朝鮮日報
新年號 其一

時代匡救의新一年
誠悃과雙行하는歡喜의生涯에!

一

우으로星辰이燦爛한蒼空이잇습니다 알에로山河가莊嚴한大地가잇습니다 그리고그中間에는無數한苦痛을부르짓는天下의蒼生이잇습니다 그들은다우리와時代와境遇를가티한우리의可憐한同胞들입니다 우리는그들을瞬間이라도이즐수업고여저서는아니될것입니다 우리는그스스로를匡救하여야할것가티여苦痛을부르짓는天下蒼生을匡救하여야할宿命的約束이잇습니다

남을救하되너의自身을救하지못하느냐고義人을嘲弄한興奮된群衆도잇섯다합니다 우리는그自身을救할결늘이업슬는지모르겟스나우리와遭遇와聯會를함께한 우리를識者로 삼는無窮한同胞그의勝友들을匡救하여야할것입니다 그러나필경은그들과우리가아울러匡救됨을發見하고使徒일밧게업습니다 그리고우리는즐거움으로이運命을사랑하여야할것입니다 誠悃의努力은가장慘痛한感激과한쇠또無限한歡喜ㅣ法悅과雙行하는것을體驗할때가누구에게나잇슬것입니다

二

江華島의城壁이屹屹한곳芝蘭이交羣하는자리에웃둑선저엄나무가잇습니다 누가심엇는지모릅니다 或은常春의世界, 印度의海濱으로부터떠더진저엄의씨드리가솟어오는大洋의熱潮와함께西太平洋萬里의물질을거처서그亭亭한枝葉을내버덧는지도알수업습니다 統軍亭의저편威化島곳까지漂着하엿나가 그의씨가지고온生命力의表現에依하야그의江岸에는鬱鬱한老松이잇습니다 白頭山의上上峰에섯는落落한長松의成熟한솔방울이自然의形勢대로千里長江을順流하다가그곳에와서遺傳의種子를누고갓는지모릅니다 偶然이로되奇異한因緣입니다 星辰燦爛한蒼空은우리의지게이오山河莊嚴한大地는우리의발등상입니다 우리는넓은 세상을솜다하고 스스로또그리고지널펏은 업습니다 世界의同胞人類의大海를등지고스스로閑山中의一小湖되기를즐길必要는업습니다 그러나印度에서온저엄보드리나白頭山에서흘러온솔방울이라도江華城下의芝蘭과威化島邊의牧草로더부러春風秋雨를가치겨는것은또必然한因緣입니다 우리는國境밧게모든人類의同胞, 黑白의異種族들이다각각그遺際한舞蹈을突破하고新天新地를어더보려함을볼때에 우리의窮極한處地에잇는二千萬의白衣大衆을누구보담도먼저건정하여주고解放하여주고匡救하여주려함이가장理勢에合하고情誼에順逆한것을娛달음것입니다 그는다만情勢의問題이오主義의問題가아닙니다

三

우리는民族的으로나階級的으로나或은또性的으로나 그리고또政治的으로나經濟的으로나或은또社會的으로나·항상脅威와排擠과蹂躪과侵奪이업는解放과匡救의事業이하루라도速히우리의압헤完成되기를바라는바입니다 그러나우리는또觀念의世界와行爲의世界가항상서로乖離됨이만흠을알어야합니다 우리는上述한바모든熱望하는바를成就하는途程에잇서서모든經濟의社會化이나敎育의民衆化이나그리고또民衆의生活化等이가장緊切한行進의課目인줄을알음니다 그러나四圍의事情은반듯이吾人의主觀에應하야容易하게回轉하지안는것도항상觀照하여야할것입니다 아아그러나滿天下의民衆이여一念이구든곳에는다시成敗와榮辱이업는것이외다 모든行進과向上의永續하는運續가잇슬뿐이요다시所謂『알파』도『오메가』도업는것입니다 다만生命의無限性과征服의常續性만잇는것입니다 한아비,아비,아들손자 그는다만이一念을繼續하는生命의行路에생긴關節일뿐이요部落으로民族으로社會로人類로의凡庸한里程表는다만이常續의直線이 그의通過의境域에서바드바影彩이요特徵일뿐입니다

四

우리가나고보니사람이엇고意識하고보니偉貴한生命의表現者이요憤慨를하고보니그들은不合理한處地에노혀잇습니다大宇宙에어떠한超越者를假定하고이渺然한一粟、地球의陸地部에서藹然히叢生한草木의그분속으로서人生을自稱하는者가智、愚、强、弱을다투며榮、辱、窮、通、樂으로써마지하며 居然히낫다가居然히몰어가는것은참으로우슴쯕할는지도모를것입니다 그러나그는우리에게關係업습니다 [illegible]가더욱더옹닥하다가그만둔다할지라도우리가이미이天地의主人公이오時代의樞機者인것을意識하니世間의百齡은다關係업습니다 物質的으로본人生의運命이그처다만荒凉한北邙山、蕭瑟한髑髏인것은나날이目睹體驗하는바라할지라도 그도또한걱정업습니다 이처럼고덧업는一生에도萬代에써치여잇어지지안는永遠不滅의敬虔한眞理의持續이잇는것을생각하면우리는至誠과最善을다하야그의最愛의同胞들을爲하야不滅의烈火를켜맛게업는것입니다 그는누가알어주거나몰라주거나讚繼에머무르거나或은永遠히湮沒하거나 도무지알은체안코다만永遠한征服의멍에를메일것입니다

五

해가갑니다 갓습니다 一九二四年의光陰도 이미永劫으로다시오지안는過去에 무쳣습니다그러나조금도슬퍼할意味는업습니다先甲子以下六十年에消憶과湖待가도무지다헛된데로어가고窮極한우리의運命이자못形勢의日非를탄식하게하는가하면그야곳天下의生民으로더부러同胞一哭도하고싶습니다 그러나이一九二五年의新年度는大東으로부터도더오는紅光萬里의新太陽과함께더욱더욱우리에게生新한意氣를닷어다주는것입니다 아니地球가太陽의周圍를다시한번돌거니말거니 春秋의代序가또다시관에박은듯이되푸리를하게거나안하거나 吾人에게는다만刹那와瞬間의休息停滯할이업시오즉이歡喜와雙行하는誠悃을기우리는匡救의征戰이잇슬뿐입니다

그리고이感激과誠悃에잇는忠實한生命의使徒에게는感淚가雙下하는歡喜가滿面하는別界의眞天地가잇고오즉冷淡과嘲罵로써洗禮을光陰에맛기는者에게는 다만破綻으로부터行樂을보내는것과가티아모쪼록過去의感想에머무름도업는것입니다 아아해가갓습니다 그러나다만거긔갓습니다 合世대로슬퍼하소서! 忘惜은人生을淨化한다합니다 그러나을거하소서? 萬古에앳그림고죽은殉道者는업다하나이다하는人類를본고世態은質明에모지않을것임게光明을보넘에도입지아을것입니다거기간一九二四年도갓습지마는거기가지아니함一九二五年의運命은오즉당신들의一念의如何에잇는것입니다아아다만그거時代匡救의新年으로만!

本報革新의第一年을마저서

朝鮮日報社長 李商在

一

居諸하는日月은벌서一九二四年도過去에부치고이제다시一九二五年의新春을맛게되엿습니다

春秋가代序하고萬物이生新하는點으로보아서 이曆書上의新年을맞는人爲的이라고만하기는不當하겟지마는 반듯이달이날로새新年의첫날이라하는것은自然보다도人爲가만습니다 그러나自然이거나人爲이거나이미新年이되고나니吾人은또한그에相應한感慨와觀照가업슬수업습니다 昨年元旦吾人의追憶과感慨가가장깁흔 朝鮮近代史의第一『페지』를시작하든先甲子의往事를回顧하고자못悵悵한心事가스스로抑制치못할바잇섯더니지금으로回想하면依然한吳下의阿蒙이感이깁흘뿐입니다

二

이風雨飄颻하는不安定한世局에잇서서이多感한新年을마지하는者누구나다相應한所懷가잇슬줄맛습니다, 참으로白駒가缺隙을지나는듯한 一代人生의怱忙한過去이지만 嗟에笑하서는 다만悠悠無窮한消憶과 感慨도업지안습니다 그러나過去를回顧하고 오즉感傷的追憶에만빠지는것은個人으로나 社會로나자못不祥한退嬰의氣風을 助長할뿐이오 아모裨益이업는것인지라吾人은이제 그를無用하다할니다 그러한感傷的回顧보다도鼓舞的行進을사랑하여야할니다 그리고世間의사람들은흔이年齡의高下로서오로지人生의老少를나지려하지마는자못不當하다할니다 靑年은將來를意味하고또進取를意味하는것이니 이意味로서는老年인靑年도잇고또靑年인老年도잇는것이라 吾人은이新年을마지함과가티一世의老少를아울러모다進取的의靑年되기를빌고저힘니다

三

생각건대昨年은本報에關하야는매우記憶할해이엇고 또어서第一의新年을마지하는本報로서의新年은가장緊張가새로은바입니다 昨年九月十二日有爲한靑年諸君이當時維持難에싸진本報의經營權을舊前의所有者로부터完全히買收한後 우선主義와精神을根本的으로變改하야써眞正한朝鮮人의表現機關되는實質을세우고이어서十月三日을期會로써紙面을革新하야그의內容과아울러面目外지一新하게하엿고그에百般事務가大釐整頓됨을기다려十一月一日로써本報革新의紀念號를發行하는同時에四部의地方版附錄을刊行하여써널히天下讀者의便宜를圖하엿더니進行의中途에 다시그것으로만이 足히時代의要求에順應키어려움을發見하고 다시本報大『페지』發行의斷行으로그를朝夕刊에난우어 써그報道의機敏과內容의充實을實現코저하니以來數月켜음으로도新年을맛는오늘날에잇서서吾人의素養한微衷이萬一일지라도實現되엇이잇는지 吾人은항상戒懼夕惕하야一般의期待하는바에奉酬코저할뿐입니다幸히天下의人士는眷愛扶護하심을萬望하오며 兼하야新春의康福이僉位에게잇기를祈禱합니다

祝朝鮮日報 雩南生

哲學博士 李承晩氏筆

『把文明灌輸到民間去』

이一篇은 現今 中國思想界의權威인 北京大學總長 蔣夢麟先生이 本報를爲하야 寄한바이며 篇末의落款은蔣氏의自署입니다

我們的先覺、我們的前驅、將這樣的啓示我們、世界將要發生很大的火災！或者這火已經在燃燒、你要是不留意、便可由這斷火邊延開去毀滅了全世界。聰明的人已經在那裏預防、或者已經在那裏壓制、究竟是否就能這樣的消滅了災禍、在我們看來就在聰明的人如何去應付了。總之最大的翔難已隱伏於最近的將來、幾乎人們都已經是聽、幷且也知道是一種不能避免的劫難、可是誰忍見波紅的血就在我們的眼前滴！

爲我們而犧牲的犧牲者、在祭壇前灑血、在擴塚中悲泣、我們不忍詛呪他們、也沒有力量來變質他們、却爲他們嘆息、幷向他們表示充分的同情、倘若我們將要踏着他們走過的脚印去走、那末我們又當怎樣的演奪

『敎育比革命還要緊』及『一時期遲緩而艱難的敎育運動、隱在爭政治之自由的努力以前』從前俄國的革命領袖都這樣鄭重地主張、並且屠爾格尼夫（Turgenier）在給俄國一個熱烈的革命家的信中也曾說、『你以爲革命的要素存在人民中 其實恰恰相反我可以斷定革命這樣事體、從他的眞意義、最大的意義解釋起來只存乎少數階級的少數人……俄國智識階級的使命、就在把文明灌輸到民間去使他們由此可以自已判斷該何去何從』

年長的人們在那裡和我們一樣的幻夢、或者在兩種方向上和我們一樣的努力。我—我卽將屠爾格尼夫的話鄭重地來說、『把文明灌輸到民間去』！然而這僅是凡庸如我者的幻夢、也就是凡庸如我者所想望的實在。

一九二四、十二月、九日

夢麟

文明으로써民衆에灌注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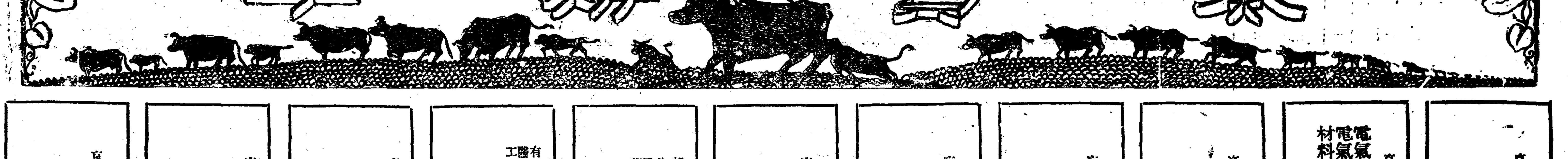
우리들의先覺과 우리들의前輩는 다이와가티 우리들에게啓示하얏다 『世界는무섭게큰火災가잇서將次發生하려하거나或은벌서火焰이닐엇거나하얏는데汝等은도모지이를 注意하지아니하니畢竟은이火焰이蔓延하야全世界를燬滅하고말것다』하얏다 賢明한者는벌서그中에서豫防하거나或은그中에制壓하고잇슬것이다그러나이와가티하야究竟災禍를能히消滅할런지못할런지는우리가보건대賢明한者들의手腕如何에잇겟다한다 要컨대最大한劫難은벌서最近의將來에隱伏되야 사람은거진다認定하며또는一種不可避의劫難인줄도아나니 그누가鮮血이이眼前에淋漓함을忍視하랴

우리들을爲하야犧牲한犧牲者가或은祭壇前에서피를흘리며或은叢塚中에서슬피우나니우리는저이들을참아咀呪치못하고 또는力量이잇서서저이들을變質치도못한다 문득저이들을爲하야嘆息하며 또는저이들의同情을表示한다 만일우리들이 저들의나아가든步武를밟아나아가라면 우리는또얼마나 愼重히하여야할가

『敎育이革命보다도緊要하다』함과『一時期가遲緩하고艱難한敎育運動이政治的自由를爭하는努力보다압선다』함은저俄西亞革命首領들이 다鄭重히此를主張하얏고 또『로―우키니부』는露國一個 熱烈한 革命家에게준書札中에 이와가티말하얏나니『君은革命의 要素가大衆中에잇다하나 나는革命에對하야이것은아조達反이다 眞正한意義로써最大한意義로써解釋할진댄다만智識階級의少數人에게잇다. 露國智識階級의使命은 곳文明으로써民衆에灌注하야 저들自己가此로因하야 그適從할바를 스사로判斷케함에잇다』라하얏다

老年들은 다우리와가튼幻夢이잇스며 或은兩種方面에잇서우리들과가티努力도한다 나는『로―우키니부』의말로써愼重히말하노니 『文明으로써 民衆에灌注하자!』그런데이것은다만나가튼凡庸한者의幻夢이오또나가튼凡庸한者의應當할實在이다

一九二四、十二月、九



京城府黃金町四丁目一〇四 朝鮮公道會

京城府鍾路三丁目二四番地 電氣工事請負 電氣機械器具 材料一式販賣 鍾路電氣商會 電光化門一三五八番 振替京城三三三七番

京城府樂園洞九十七番地 又華醫院 院長 金水長

京城府太平通二丁目 祛痰止咳散本舖 慈善堂藥房 主 金錫胤

京城府武橋町 新式高級自働車貸切 서울自働車部 電光五十三番

京城長沙洞 中央印刷所 電話光化門七二一番 振替京城三三八二番

朝鮮賦球製造元祖 各種新式罕발製造 都散賣商 三友罕발製造所 朴聖奉 京城府觀水洞九二

有名賣藥 醫療用品 工業用藥品 機械 繃帶材料 化粧品其他 卸小賣 高麗舍藥房 京城府鍾路二丁目十五番地

京城鍾路三丁目八五番地 新舊書籍各種 三光書林 姜範馨 振替京城一三九一九番

京城府鍾路通二丁目九十五番地 普信洋服店 主 李升鎔 振替口座京城五六三八番 電話光化門七七六番

京城府桂洞二六番地 桂山普成學校 (前普成初等學校) 電光一〇六四番

京城府鍾路通 永一洋服店 電話光化門五三二番

衣服洗濯과머리헝겁은데에서난 東海星으로다가져와옴시다 東海星社 製造總本部 京城府樂園洞一二〇七番地 電話光化門一二〇七番

京城府孝悌洞三二六番地 人蔘大補丸總本舖 各種補藥 新藥書籍 都賣散賣 朝鮮製藥商會 (地方部)

京城岡崎町五番地 合資會社 京城護謨工業所 電話龍山八八一番 長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七十一番地 和洋建築 金物雜貨 煉瓦 崔台根商店 電話本局 番 工場竹添町三丁目三九二番地 電話光化門四四三番

白白敎總本部 職員一同

蘇茸補益丸、金剛山精力、楊梅丸、正淋丸製造所 京城府貞洞壹番ノ二 大陸製藥公司

京城府寬勳洞一九〇ノ七 廣泰號轎子店 趙德鎬

京城府淸進洞七六番地 四海旅館 主 鄭海爽

반도萬年筆製作發賣元 合名會社 東元商會 社員一同 京城鍾路二丁目十五番地 振替京城一三六〇番

旅行中年始欠禮 京城府積善洞一三九番地 趙重顯 電話光化門一四六七番

時評

官界의惰怠(一)

×

朝鮮總督府調査課에서는客年一月로부터 六月末까지 各道에對하야 報告例에依한報告를要命한件數가 百四十一件인데 各道의報告成績을 統計的으로 發表한것을보면 指定한期間內에提出한件數가 六十六件、期限經過後에 提出한것이 六十九件 未提出件數가六件이라한다

놀고먹는 朝鮮人! 朝鮮人! 거을른 朝鮮人! 이것이 恒用 官界에서 朝鮮人을嘲弄하는套語이다 그러나 朝鮮사람은 놀고먹는사람이만타 거을른사람이 또한만타 그러나 놀고도먹을만한사람을除한外에 놀고먹는사람은 할수업시먹고놀게된다 그리고 거을른사람도 거을르고십허거을른 사람보다 할일이업서서 거을른쟁이가되는편이더만흘것이라한다

勞働을强要하는것은協同的生産 共同生活을 整齊하는社會의特色이오 勞働을하고십허도 勞働의機會를 빼앗고 勞働을强要하는것은 資本主義社會의特徵이다 朝鮮도그런特色에 支配되는나라의하나인 外닭에 勞働을일코憤怠하는사람이만흔것이 事實일것이다

官吏의惰怠(二)

×

먹을것에念慮가업스면 거을러진다고하는것은 幾分主義者의 協働主義에對한 反對의唯一한口實이다

朝鮮總督府官吏들은 元來 競爭의原則을金科玉條로 밋는 階級의人物이라 그런지 國庫金의潤澤으로 먹을일에念慮가업기때문에 그러케惰怠하야젓는지 그가운데도 게을른 朝鮮人이어서 그러케거을름을보이게되엿는지 責任官으로서 當然히 할일인 命令하면 命令을밧는 官吏는 當然히그것을忠實히履行하는것이 當然한일인데 如干의事情이잇기로責任을履行하지아니하는것은 그야말로 참意味의惰怠이다

朝鮮人의거을름도事實이다 그러나 朝鮮人의거을름은할일업서不得已惰怠하는사람이만흔까닭이오 同情할點이잇거니와 總督府官吏들은國庫金으로 生活을潤澤하게또박박하게가면서 責任을 忠實히履行하지아니하고惰怠한다는것은 엇더한意味로보든지 可惜한일이다

그러나 反省이 업다면 그야말로末流의人性이다 惰怠의風이彌漫한 官界에서 먼저自省하야 勤勵의風을振作하야 模範을示함이如何

外交團의會合內容

華府條約措置가主題

(北京三十日發) 三十日午前十一時브터和蘭公使館에서華府會議에關係잇는日、英、米、佛、伊和蘭、葡萄牙等의各公使가會合하엿는데內容은秘密에付하나二十四日附中國側의回答에依하면外交團側이速히華府會議의決議及同會議에서指定한擔保의實行을期한다云云의通告에對하야外交部로부터의回答은中國은各國이華府條約으로旣定된各措置를實行할意가잇슴을聲明하고甚히滿足하엿던바이라고逆襲的態度에出하엿슴으로外交團은此를意外라하야그에對한措置를會議하야再次外交部에通牒을發하라함이라고思惟되더라

孫氏入京

(天津三十日發) 孫文은病勢沈重에 不拘하고 三十一日朝 入京할豫定이더라

金法問題討議로 四部委員會開催

(北京三十日發) 金法問題를討議하라고三十日內務、財政、敎育、農商四部委員會를開하엿

長春戒嚴撤廢 年內實現

(長春三十日發) 奉直戰의際에發布된長春城內戒嚴令은今年內에撤廢하고吉林으로부터來駐한警備隊는敎政軍隊가歸還하기까지駐屯하야秩序維持에努力한다더라

吳佩孚氏 去處는어대

畢竟은四川일듯

(北京三十日發) 吳佩孚氏는二十八日衞兵三十名을隨하야鷄公山을下하야漢口에向하엿는데漢口方面의吳氏入漢反對로因하야吳氏는河南、湖北省境과漢口의中間인廣水에서下車하엿스며或은廣水滯留說도잇스나畢竟은四川省으로往하리라더라

齊氏渡日決定

(上海三十日發) 前江蘇督軍齊燮元氏는日本에赴하기로決하고家族外前江蘇交涉使溫世珍其他幕僚十四名이來月一日發上海丸으로出發하리라더라

獨逸對五個國質問

何故로撤兵不可能인가

(巴里二十九日發) 當地에서公表한바에依하면英、佛、白、伊、日五國은獨逸政府로부터온質問書를受領하엿는데目下右五個國은何故로一月十日까지에『케른』을撤兵할수업는지理由를說明할覺書에對하야硏究中인데該覺書는作成後에바로獨逸에送付하게되리라더라

撤兵會議開催決定

軍事監督委員會의宣言

(『나웬』無電三十日發帝通經由) 巴里特報에依하면聯合國軍事監督委員會는『케른』地方撤兵問題에關하야獨逸政府에交附할公文書를作製하엿는데右文書에는會議가一月十日前에決定될수업슴을宣言하고又軍事監督委員會는『벨사이유』條約에規定한義務의不履行을認할만한軍備撤廢에關한多數의境遇를特히列等하엿스나然而義務不履行에關하야特定實證은아모것도記載되지안하엿더라

獨逸軍事管理力說

(『쏠드』無電二十九日發)『푸지파라잔』紙는論評하야『라 프레뷰-』에揭載된聯合國獨逸軍事管理委員長『노레』將軍의寄稿를轉載하엿는바此에依하야聯合國委員만의힘으로는獨逸의軍備增加에對抗함은不可能하니『라인』의占領特히『마인쓰』占領은絶對的으로必要하다하며일聯合國管理를主張하고又는『마인쓰』駐兵을減하면歐洲平和는다못一年間을保證될뿐이라고하엿더라

聯合國의最後覺書

獨逸政府質問에對하야

(巴里三十日發) 三十一日巴里에서開催될大使會議에서는聯合國은依然히此를拒絶하며同時에右에對한最後覺書를發하리라는바此覺書는五國의最後의決定은伯林에잇는聯合國委員會로부터의最後報告가到着한後新年一月中旬頃까지此를與치못하겟다하며五國은該覺書로써獨逸政府에對하야『케른』地方의占領은獨逸이『벨사유』條約을履行치안는理由를告하라함이라한다그런데 後의決、을與하기爲하야聯合國大使가會合할은可能하나然이나此가確定될與否는오히려疑問이라더라

日本漁船沈沒

(쌍페드로二十九日發) 日本漁船『가오루』丸은濃霧로因하야『부인손트』前海에서沈沒하엿다더라 잇다右乘組의船長山崎某及水夫二名의死體는二十八日夜發見되는同時에三名의水夫도救助되엿는데右沈沒原因은猛風에걸이엿는지衝突되엿는지는尙今判明치못하더라

佛國에又中間內閣說

(巴里卅日發)『에리오』佛國國務總理가來年一月十三日議會再會에際하야果然國務總理의重任에無事히經過할與否는疑問이며『부인손』氏를外相으로하는『판루푸에』氏의中間內閣說이又復擡頭하는中이더라

佛國下院

債務問題討議

(巴里二十九日發) 佛國下院은聯合國債務問題에就하야討議中三○二對零票의信任投票를行하얏는데이것은右補助金問題에關한것이엿다然而債務問題의討議는無期延期가되엿는데巴里新聞中反抗的態度를取한二新聞에政府가檢刷를加함에對하야非難의소리가잇더라

丁抹軍備全廢實施

僅히國民義勇兵만存置

(나웬二十八日發帝通經由) 丁抹政府는去十一月二十九日에下院을通過한軍備全廢案에就하야實施編成案의完成을急速히하는中인데右案에依하야國境監視密輸入防止에는國民義勇兵組織의警察隊五千人을置하기로되리라더라

英債賣出不續

原因은低利로

(倫敦二十九日發) 英國政府發行의『비토리아』公債六百萬磅에對하야一般申込이僅히五十四萬磅에不過하야大失敗에歸하엿는데原因은너무低利인外닭이더라

아國叛亂情報

(倫敦二十九日發) 倫敦在留의『알바니아』人側은『알바니아』政府가今回의叛亂으로因하야逃亡하엿다는報道에對한詳細情報를接하엿는데此에依하면前首相及其關係는一團의陸軍士官들과함께目下『부린지』에滯在인一萬叛徒의首領『아이메드·베그쏘-그』氏는目下『지라나』에滯在하야政府組織의準備中이라더라

日米交換敎授

派遣合意

(華盛頓二十九日發) 日米兩國陸軍省은今回諸學校交換敎授로將校를相互間에派遣하기로合意하엿는데右派遣士官은六個月間兩國의聯隊附가될터이라더라

軍縮會議具體案

關係各國에諒解要求

(紐育二十八日發) 華盛頓條約에依한砲身改造問題에就하야特히米英國으로부터仰角增大問題에關하야兩國의抗議를受한事는第二軍縮會議가問題가되는中인此際에米國政界에서極히重大한問題가되야잇다其結果議會는特別委員會를任命審議하야決定한後此에回答을發할터이며又下院에서는一般軍縮及補助艦定軍制限會議를招集할權能을大統領에게賦與코자하는案을提出할지며一方米政府當局은目下關係各國의諒解를求하야第二軍縮會議의招集은着着具體化하는傾向이잇더라

베니스君府間

旅客輸送飛行

(『나웬』無電三十日發帝通經由) 伊太利의『베니스』로부터羅馬『부카레스트』를經由하야土耳其의『콘스탄치노풀』에至하는旅客輸送飛行을開設하기爲하야建造된二十五人乘旅客飛行機는『베니스』에서試驗飛行을行하엿는데成績이良好하엿더라

撤兵問題가 亦是難關

日露交涉第一日

(北京二十九日發) 日露會議는二十九日午後五時부터四時間에亘하야芳澤大使館에서開會되고『카라한』氏는前日日本이提出한案에對하야口頭로對 側의主張을述하엿스며會議의經過는一般的으로良好한데撤兵問題는意見이一致되지못하엿다그러나數日中에는一致點을發見할터이라는旨를兩代表로부터兩國政府에報告할터이라하며三十日은日本公使館에서撤兵問題에關하야다시會議를開할터이라더라

形勢有望=(北京二十九日發) 日露會議第二日은二十九日午後五時로부터芳澤大使館에서開會하고二十七日芳澤公使로부터提案한日本側最後的修正案에對하야『카라한』氏는詳細히其意見을述하엿스며芳澤公使도此에對하야更히說明을加하며或은意見을交換한結果撤兵問題가最大의困難인事가明瞭하게되엿고其他利權問題에就하야는雙方의意見에尙今相當한間隔이잇서서아직若干의接衝을要하나形勢는大體로着着有望하게進展된다한다또『카라한』氏는今回日本側의提案을直時莫斯科政府에送하야請訓한模樣이더라

軍事訓練問題

今期議會에提案

(東京電) 全國中學校及專門學校에現役陸軍將校를配屬하야軍事訓練을하게하고終了者에게在營年限을短縮할것은一種特典으로다못文省에對하야는不公平하게됨으로此點에對하야今期議會에在한論爭의中心이되리라고豫測하는中이며陸軍當局

義務敎費

結局增加될듯

(東京電) 義務敎育費國庫負擔增額問題는形便에依하야는三派의協調를決裂에導할지며따라서內閣運命에도關한境遇가잇슬지도豫測이며더구나政友本黨은議會의劈頭에此를提案하엿는故로庚申俱樂部도此를提案하엿는外닭에

『萬歲』發賣禁止

日米戰을豫想한

獨逸人著述의飜譯

(東京電) 最近東京某書店에서出版된日米戰爭을豫想한『萬歲』라稱하는著書의內容은日米戰爭의結果日本이敗北하리라云한것으로獨逸前皇帝『카이제루』의侍從武官이著述한것 대此東京에在任하는某氏가飜譯한것이라內務省은二十九日檢閱한際에此著書를知하자直히發賣禁止하고一方警視廳에도通報하야飜譯者를引致하야嚴重取調를하는中인데內務省側은右의著書는日本의國體를甚히侮辱하는것이라하야原書의著者를取調코자外務省을通하야伯林에잇는日本大使에게急電을發하얏고또陸軍省側도何等의處置를取할模樣인데右著書의叙文은陸軍省新聞班長櫻井忠溫中佐가書한것이더라

內府留任慫慂

(興津電) 平田內大臣의辭任問題에就하야閣公도甚히憂慮하야目下의形便으로는內大臣의適任者를他에求하기困難한故로病이그러케重하지안으면當分間常時輔弼의任에當하기를希望하엿다더라

運動方法協議

貴院改革問題

政友實行委員

(東京電) 政友會貴族院改革實行委員會는二十九日午後二時부터本部에서開會하고今後運動方法其他에對하야種種意見을交換한後左와如히協議하고四時半에散會하엿다더라

一、決議提出이無하엿슴은遺憾이나政府로하야금貴族院改革을際明케하엿슴은其改革促進에有力한줄로認함

二、此目的을達成키爲하야緊急質問에同意한四派의結束을堅固케하야益益突進할事

三、來年一月初旬에四派의實行委員會를開하고既定한六大都市에서演說會를開하야國論을喚起할事

四、山本、武藤兩總務의辭任申出은此를聽許치말고어데까지던지留任하야서此의目的에努力할事를希望함

토로츠키氏監禁說

(倫敦三十日發) 伯林來電에依하면勞農政府國防委員長토로츠키는中央執行委員長及人民委員長의命令에從하야所職을去하야『크리무린』에監禁中이라더라

來年度의勞農宣傳

如斯窮乏으로는繼續不能

(나웬無電二十七日發帝國經由) 리가特報에依하면莫斯科의財政第三인터나쇼날의聲明한바에依하면目下窮乏을告하는中인故로勞農露國은到底히來年度에外國宣傳을持續하기不能하더라

에서도訓練案作製에對하야此點에留意하는中이다勞農關係等으로限定되는대로그것에依하야同質問에對하야詳細한說明을加하기로되엿는데體育及國防의見地에서軍事訓練을全國靑年에게도及케하야同修了者에게對하야도中學校卒業者同樣으로年限短縮하는것이아닐로陸軍의大目的이라을기다려바로前記軍事訓練案의通過를稱하고前記軍事訓練案의通過를여더라

貴院改革問題와

政府方針

(東京電) 貴族院制度改正問題에關한四派의情勢가意外로强烈함에鑑하야政府는새삼스럽게該問題에關한方策의確定을急히하는中이나政府의企圖하는바改革案의正體는結局貴族院令第十四條를그대로두기로大體意見이一致되고다만互選規則의改正쯤에곳칠骨子는제버린所謂審慮에不過하리라더라

政友幹部의凝議

義務敎育費問題로

(東京電) 義務敎育費問題에關하야政友會의野田、岡崎、山本三氏는二十九日午後에高橋總裁의私邸를訪問하고橫田法相을加하야凝議하엿는데이것은政府及與黨間의折衝에就하야最善의歸結을得하려함이라더라

貿易通報員

特設國大畧決定

(東京電) 今般의行政整理한結果農商務省囑託으로海外市場에貿易通報員約十餘名을置하기로되야前日以來로人選中인바나雙方에相當한人物을어들수업스며아즉設置場所도具體的으로決定치못하엿스나大槪左의國에一名乃至二名을特置할方針이니卽南洋印度、波斯、阿弗利加、南米、加奈陀、濠洲、北歐이더라

各地聖誕祝賀

成川郡天主耶蘇敎會에서는去二十五日午後六時에聖誕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少年少女의音樂遊戲가有하얏스며特히崔光明孃의獨唱은滿場의人氣를끌엇고(成川)

▲伊川郡幼年主日學校及幼稚園에서는去二十五日午後七時에同禮拜堂內에서聖誕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ᄒ前누란人山人海를이룬속에少年少女의歌劇을마친後餘興으로『걸아닌無窮花의허릳엇』이란演劇으로 同十二時에閉會하얏고(伊川)

▲白川邑耶蘇敎會에서는去二十四日午後七時에聖誕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亦是盛況을呈하얏고(白川)

▲美陽郡耶蘇敎會와同地方各敎會에서는去二十五日에聖誕祝賀式을擧行하얏는데敎、마다大盛況을呈하얏다고(美陽)

▲蔚山郡蔚山面江亭敎會에서는去二十七日午後八時에幼年主日學校及男女勉勵硏究會主催로同敎會禮拜堂에서聖誕祝賀式을擧行하엿는데音樂其他遊戲잇는餘興이有하엿고(蔚山)

▲利原新長老敎會에서는幼年主日學校及幼稚園主催로去二十五日下午七時에聖誕祝賀式을盛大히擧行하엿는데少年少女의二十餘種의歌劇舞蹈는滿場觀覽者에게津津한趣味를與하엿고(利原)

▲開城郡北部敎五個幼年主日學校에서는去二十七日下午七時에當地中央會堂大講堂內에서牧師申公叔氏의司會下에聖誕祝賀式을擧行하엿는데特別히未曾有의盛況으로可憐한少年少女들의歌劇을하기爲하야入場券을發賣하엿고(開城)

▲江景郡聖潔敎會와美監理敎會에서는 去二十四 二十五日兩日에聖誕祝賀式을擧行하엿는데各種의音樂과賞品授與式이有한後에餘興으로『뗏세집』及『뻿네헴』이라는演劇이有하야一般觀衆에게無限한興趣를與하엿고(江景)

▲江華吉祥面溫水里公會에서는去二十四日午後七時에 聖誕祝賀式을擧行하엿는데未曾有의大盛況을呈하엿스며特別히이祝賀記念하기爲하야金十圓을饑饉同胞에게送付하야달라고本報江華支局에依賴하엿다(江華)

鐵筆寫眞 投稿歡迎

새해문안드립니다

禁酒會館을

靑年會에寄附

客年夏期에濟州城內에有한數個團體가聯合하야濟州靑年會가成立되는同時에濟州禁酒會도良好한成績으로進行하다가禁酒會는不得已한事情으로解散되엿다함

基督靑年에

三氏의多額寄金

平壤基督敎靑年會에서는從來經費에多少不足을感하며오든바日前吳胤善氏로부터百五十圓、鄭益魯氏로부터百圓、金東元氏로부터八十圓의寄附가잇섯다더라 (平壤)

巨濟沙谷에서

靑年會創立

은旣報한바어니와同會의所有인家屋一棟은(時價六百圓)沙州靑年會에寄附하얏다더라(沙州)

慶南巨濟島沙等面沙谷里에서는同里有志李鍾臣、李冕雨、李鳳雨、李三雨、李鍾倫諸氏의努力으로最近에沙谷靑年會를創立하얏는데任員은如左하다더라

會長李鍾臣 副會長李鳳雨 總務李冕雨 會計李三雨(巨濟)

單獨으로

勞働夜學創立

巨濟李氏의特志

慶南巨濟島沙谷里有志李鍾璡氏는一般勞働男女를爲하야勞働夜學會를創立하야義務的으로敎鞭을執하야現在學生男女合三四十名에達함으로一般의稱頌이藉藉하다더라(巨濟)

罹災救濟劇團을

固城에서歡迎

全北群山靑年會主催의罹災同胞救濟劇團一行은客月二十四日背屯에來하야當地親睦會의後援으로兩日間興行한바有志諸氏의多數寄附가有하고盛況裡에閉幕하엿다더라(固城)

洪原靑年總會

委員을幹事制로

咸南洪原郡靑年會에서는客月二十九日午後二時부터同郡天道敎宗理院內에第二回定期總會를開催하고臨時議長金信根氏의司會로會務를進行하얏는데從來委員制인規則을改定하야幹事制로變更하고規則制定委員三人과幹事九人을左와如히選擧하얏다더라

▲規則制定委員 宋泳近 金信根 吳淇燮

▲幹事 朴裕鋼 申東勛 李在熊 朴河運 韓吉 姜錫珉 欉榮奎 吳淇燮 李利奎(洪原)

江界電燈點火

江界電氣株式會社에서는去十月부터電燈架設工事에着手하야그동안進行中客月初旬外지竣工되엿슴으로同月二十四日에遞信局으로부터檢査한結果其成績이頗히良好하야同二十五日夜부터電燈이開始되엿는데同月末日外지는無料이오來年一月一日부터料金을計算徵收한다하며燈數는總千三百燈이라더라(江界)

蔚山少年劇歡迎

慶南蔚山邑에잇는天道敎蔚山少年團에서는少年劇團을組織하야去二十七日彥陽에到着하야當地敎團體의後援으로同日午後八時부터興行하엿는데社會劇으로『靑年의改心』과宗敎劇인『新生의日』은多數한觀衆의게만흔歡迎을바덧스며翌日인卽二十八日은上南面巨里天道敎會內에서亦是數百觀衆에게多大한歡迎으로써興行하엿다더라(彥陽)

潭陽勞農創立紀念

潭陽勞農會에서는來二日午後二時부터當地靑年會館에서各組合創立紀念式을擧行한다는데當日에는組合員은勿論이오光州、昌平各勞農團體에서도多數히參席하리라하며會順은過去一年間의經過報告와압흐로進行할모든方針의討議가잇고來賓의感想談과餘興도잇스리라더라(光州)

濟州電話不遠竣工

濟州城內에는從來市內電話가업서서市民에게不便이적지아니하던바數月前부터市內有志가島廳에會合하야協議한結果電話架設工事에着手하야着着進行中인데近近竣工되리라더라(濟州)

人事消息

▲徐廷禧氏(朝鮮勞農總同盟中央執行委員) 三南各地의小作爭議와饑饉狀況調査次로出張中이더니昨朝入京

八面鋒

○子를쥐라하고、丑을소라고하여왓다、쥐가가고소가오나우리의살림도、그만큼못기를바란다

○蒙古의赤化는昨年十二月에一時的現象이라고하엿다、今年엔은勿論濃色이되엿겟다

○廣東政府와、佛天主敎會側에專漢鐵道擔保로하는借款假契約이成立되엿다하다南北이다투어가며、起債만한다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金銀美術製造販賣
潤光商會
電話光化門一九三七番

京城府安國洞三十七番地
朝鮮女子敎育協會
槿花學院
電話 光化門一五叁八番

京城本町二丁目四三番地
婦人壹錢起業株式會社
朝鮮支部長 吳忠煥
電話 本局 三四七六番

京城府仁寺洞三〇
運動具 文房具 樂器一切 玩具一切
朝鮮쓰레블商會
主 朴容璐
振替京城一二一五八

京城府中林洞二三九番地
製造販賣
立米機 精米機 油機 鑛山機 吸入瓦斯機 黑鉛機 染料粉碎機 丸藥製造機 麥一修理機 製物切機 鐘作機 一號精米機 八號精米機
朝鮮鐵工場
主任 金泰和
主務 金柴澤
電話 本局八六三番

京城府鍾路二丁目
最新式各國時計直輸入都散賣業
普信堂
主 玄錫柱
電話光化門八八三番

京城府鍾路一丁目
新舊書籍及萬年筆都散賣商
世界書林
主 王世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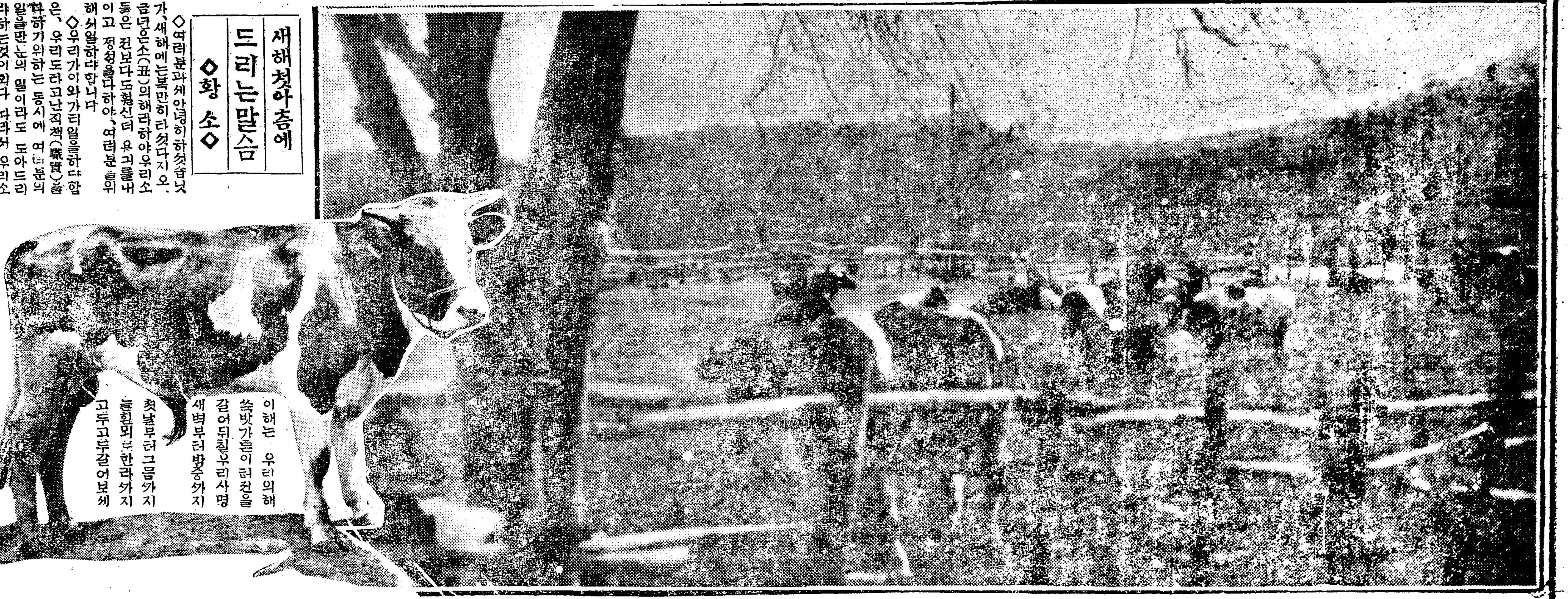
京城府添竹町二丁目二番地
漢城精米所
主 曺秉學
電話 光化門 一三三番

京城府公平洞一百二十二番地
和洋雜貨
太和商店
劉昶圭

京城府和泉町五番地
引蘇丸 活命水 白應膏 其他六十餘種製造元
同和藥房本舖
主 閔橿
電話 光化門二二一八番
振替口座京城三三一八番

京城府黃金町一丁目
最新式朝鮮料理
漢陽館
主 徐相俊
電話本局二七九五番

京城府鍾路二丁目一〇〇番地
풋뽈製造及運動具販賣
半島풋뽈製造所



새해첫아츰에 드리는말슴

◇황 소◇

◇여러분과세안녕히하섯습닛가, 새해에는복만히타섯다지오. 금년은소(丑)의해라하야우리소들은 전보다도훨신더 욕긔를내이고 정성을다하야, 여러분을위해서일하랴합니다

◇우리가이와가티일을하다함은, 우리도타고난직책(職責)을위하기위하는 동시에 여러분의일을만는의 일이라도 도아드리라하는것이외다 따라서 우리소들은 우리를 길르고부리고사랑하는여러분께서도 우리와 함께욕긔를내여가고 정성을 다하야아모리어려운일이라도 무준히하여나가고 야모리 맛갓자아니한살림이라도 바로삽기에 힘쓰시기를 새해첫아츰에 비나이다

◇거룩한팡밍은 우리의 머리를고두고두 버춰어 줍니다날마다또는해요 해마다오는 오늘이지만 특별히 오늘아침에해人긋이주림에 울고모든번민에 우는 우리들에게 무슨색다른 의미를 가진드시더욱따뜻이 비최일 것이올시다 여러분 오늘아츰첫새벽에 일어나서서 동으로향하야 떠오르는 햇빗을 흡석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옵고우리는이해를잡으로우리해를만들기위하야여러분에 다음과 가튼몃가지를간절이청하고자합니다

一、새해부터는 아모리 어려운일이라도 실망하지말고 즐곳하여나아갈일

二、새해부터는 해뜨기전에 이러나서 해人살이 퍼지기전에 아츰밥을 먹고그날 하두일을 충실히할일

三、서로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야우리의 일은우리가 하도록 할일

平壤刑務所에血雨

朝鮮人과日本人囚人의亂鬪

수일전사소한일로대오공장에큰싸홈 조선어한명과일본어두명은중상햇다

평양형무소(平壤刑務所)에서는 종래부터 죄수의취급을 남달리특별히하는까닭에죄수들이단식(斷食)을 하느니 동맹파공을하느니하며 기타에도 별별소문이 만키로 유명한것은 일반이이미다아는바어니와 연세상안형무소안의 일일으로사실의 대개는거의그안에서 사라지고 마는까닭에 보도에도유감되는 일이만흔바 금번모처에서 도사한바에의한즉 일전에도 그형무소안에서는 피를흘닌큰소동이 잇섯다는데사건의내용을드른즉수일전그형무소 제오공장(第五工場)에서조선인죄수 이십명 에게일본인죄수 삼명이 달려들엇슴으로조선인 죄수들도 공장에잇는몽치를 고 대항하여서로어우러저싸홈을 하야일본인 이천사십일번(番)과이천일백이십오번죄수두명과 조선인죄수 박양정(朴養正)합세명의중상자를내엿스며 기타에도 다수한경상자를내여 일시는수라장을 일우엇다하며 는동시소동들이든것슴으로형무소에서는 죄수들의 요구에응하야 영등포 형무소와가티 하여주엇스나 조선인죄수에게는 그와가튼조치 못한며우를 그대로하여옴으로 이것을 분개한죄수들은전부동맹 파공을한 까닭에그형무소에서도 엇지할수업서 전부죄수의 요구에응 하기로하엿다더라(평양)

元朝天候는平穩

오일경까지온화

◇京城測候所員談

에는겨울이다 날시가눅고 항상음울하야 새해를 맛는이의가슴을 답답히한다 이에대하야경성측후소원은 말하되「목하고 긔압이 중국(中國) 몽고(蒙古)방면에 잇서서 그발달이느리며 따라서조선의 긔압의배치는 매우 완만하야저서날시가 눅고항상흐린 것인데일월초 하로날에는 오전중은흐리겟스나 오후부터는 해빗을볼줄로 관측하며 초닷새이내까지는 별로치운줄 모르고지내리라고 하더라

永登浦에서온 四人反抗

대우잘못하야 복역할수업다고

행정정리(行政整理)의바람이형무소에까지 불어얼마전에 영등포형무소(永登浦刑務所)에수용하엿든 일본인죄수 십사명을평양형무소로 옴겨왓든바 평양형무소에서는침구와불통이며기타죄수의대우가너무도조치못하다하야영등포에서온권괴죄수십사명이동맹하여가지고일권에형무소의문을깨트리며류리창을부시

惡巡査轉任과 住民歡喜

홍원운포에잇든 동환순사의비행

함남(咸南)홍원(洪原)군운포면(雲浦面)주재소장(駐在所長)등환일격(藤丸一格)이라는순사부장은 지난이월경에 동군경찰서에근무할때 동군 원정년회에 청년회후원(靑年會後援)으로경포면 사립경명학교(私立景明學校)안에서흥행하는소인극(素人劇)을취톄하려나갓다가 오후열시십분도 되기전에이미허가에제한하엿든날한시간이되엿다고시간을사긔(詐欺)하엿슴으로

일반관중

측과경관사이에론쟁이이러나필경에는사오명의청년이 경관과함께우편소(郵便所)에가서우편소표준시계와 비교도하고더욱명히증명하기위하야 함흥우편국(咸興郵便局)시계까지 전화로대조한결과 더할수업서 등환일격은 시간사긔한것이 판명되야 그이튼날청년회대표두사람파각시군지국과자가지컨경찰서장을차저가서동환순사에게대한 처분을 엇더케하겟느냐고물은즉 그서장은자긔가

모든책임

을지겟노라고 하는동시에 권리후원 단례와관중들은 그주최단데인 홍원청년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엿슴으로 이에대하야 그청년회에서는 임원회를 개최하고 직접책임자인홍원경찰서에게이삼조건의질의문을 데출하엿슴으로 그경찰서장시제생차랑(矢繼生次郞)씨는 일변으로당야시간사긔한 순사부장등환일격을 운포 주재소(雲浦駐在所)로던근식히 교직접혹은 간접으로 교섭한결과 이사건이 이미무사하게되든듯 하엿든데순사부장

등환일격

(藤丸一格)은본래부터 성질이 괴악할뿐더러그관내에잇서서는제외의에감독관이 업슴을다행으로하야 별별못된짓을 만히하다가 필경은그사실이 탄로되야『부장』두자를예이고 봉급도감하야 멀리국경인혜산진서(惠山鎭署)로전근식혓다는데 디방주민들은 깁버하기를마지아니한다더라(홍원)

价川警察署의拷問致死事件

괴소즁지된청년을따려죽여 순사두명은평양검사국으로

개천경찰서(价川警察署)안에서는 지난이십일청년한명이 고문상해(拷問傷害)로말미암아무참한최후를 고하엿는데 이급보를접한평남보안 과장(平南保安課長)과 안주파본검사(安州播本檢事)는쉬괴한명과안주공의를대리고 이십일일낫차로 개천경찰서에출장하야 사실을 림검하고시례를

검사하매

이현저함으로 곳 개천경찰서장을림회시킨후 공의로하여금 시레를해부한결과타살이판명되엇슴으로검사는즉시이사건에직접관계잇는개천경찰서천동순사주재소(价川警察署泉洞巡查駐在所)에 근무하는흑목(黑木)순사와리달오순사(李達浩)두명에게구인장을 발하야 안주검사국으로 톄포압송하야 취됴중이더니지난 이십칠일에는 일건서류와함께평양검사국(平壤檢事局)으로넘기고 말앗다는데 이제그내용을 알아본즉 피살자는박천군가남면유대포 (博川郡嘉南面裕大浦)(洞名未詳)에원적을둔 김한진(金漢鎭)(三三)으로기미년

독립운동

에참례햇던일로하야 제령위반괴소중지(制令違反起訴中止)를당한일이 잇섯고 살인미수혐의가잇서서 경찰당국에서 톄포코자 노력하여오든청년인바 지난십륙일 개천군중서면평원리(中西面平原里)에 서천괴 두순사에게 피착되엿든데 데포될때에 소나무몽동이로무수란타하야반 죽엄을맨들어가지고천동순사주 재소에도라와서하루밤동안재우 면서고문하엿다는데를논가해자

두순사는

부인하는바이 지마는 일시경은 죽엇다는 소문까지낫섯다는것만큼고문의 매가 심하엿슴을 추측하겟다하 며 그주재소에서는 그다음개천 경찰서로넘기어서그곳에서 공 의의치료를밧게하엿섯스나마츰 내 지난이십일고문의 악한매ᄉ 독으로말미아마 그와가티 죽게 된것이라더라

屍體는遺族에게

순사를상대로 고소를하다고

원통하죽엄을 이루운 김한진의 시례는원향과가티해부하고검사 가검증한후필경그유족에게인도 하기로하엿는바곽십일에되는그 의로모와그안해는(유아도두명) 시레바드러는 동지를노코 개천 경찰서 마당에와서

땅을치며

달려들어통곡 하야 듯는사람으로 하여금눈물 과슬품과 원망을 금치못하게하 엿는바 사람이라면 인수하려니와 이러니 우리는바들수업다고힘 남하며 통곡하야 검사와 보안과 장이 백방으로 달래어 원한가득한 이시례를 맛게되어 달래어필경유족 죽엄을 우름과눈물로 실고통아 갓다하며 장법는 집이가난함을 알고 개천서장이 어십원을주 어장사를 지내게하엿다는데 그 의친족들은 가해순사를 상대로 고소하라한다더라(안주)

平壤署非常警戒

○○단원의평양잠입설로

평양경찰서 고등계와 평남경찰 부에서는 당디에 ○○단원이침 입한형적이잇는듯하다하야자조 비밀히회의를연결과방금ㄴ말년 사로인하야이쉬이는중에잇는사원 을소집하야활동을개시한다는데 이로인하야 새해에도 마음을놋 코놀지를못하게되리라더라(평양)

舍人作人喜消息

리창현사건은 작인편이성공할듯

봉산(鳳山)인인 (舍人) 소작쟁의(小作爭議)로생긴문데인리창헌(李昌憲)사실로 소작인 십여명이 가처엇다가 결국여덜명은재녕(載寧) 검사국 (檢事局)으로가게되엿다함은 이미 보도한바어니와 재녕으로부터 온소식을들은즉 소작인이 백방될것은사실이고 사실은사실대로 바로잡히리라는데 이소식을 가지고온 소작인들은 매우깃버하며 하히를흥미잇게 기다리고 잇다는데 일월륙일에는 분명한사실을도사하리라하며 그때에는 모신문긔자김모도청하야분명한증거를엇고 커항으로모신문긔자는

辛氏無事放免

서울청년회의 년하장 문구관계로종로서에서 취됴를밧든 신텰호(辛哲鎬)씨는삼십일에무사히 방면되얏는데 이사건으로 인하야긔소여부는아즉모른다고

市井雜事

◇三處에竊盜 시내서대문서에만 삼십일에 도난이세곳에잇섯다는데 중림동(中林洞) 이백삼십이번디부덩고 무세천장(武藏仙藏)(쿨)의집에서기르는 흰비둘기한쌍과 흰닭일곱머리 가격십이원어치를엇던자가훔쳐갓스며 죽첨뎡삼뎡목 이백오십번디서덩우(徐廷祐)의집에서는의복여섯가지와 백미(白米) 너말가격십여원어치와죽첨뎡이뎡목백구十번디영국인반우거(班禹巨)의집에서는 시계양말등속가격이십여원어치를도적마졋다고

종명자

▲새해는왓스나、우리에게는새해인지묵은해인지도모지분간이나서지아니합니다 해마다 전례에 의하야 주고밧는 년하장을줄센입니다 ▲새해든지 묵은해이던지 사람의생활에 무슨큰 변동이생기는것은 아니매、새해라고갑작이 별다른일이 잇슬까닭은 업지만은、그래도 새해라면 무엇이좀 달러지는드시생각하는것이 사람의 사상인듯하다 ▲그러나、사람스사로가ㄴ자긔의 생활을고치지 아니하면 골잘번의 새해가 거듭할지라도무슨소용이 잇스리오、우리도이미어제까지의 생활은 시비간에 책장을뎝허두고 오늘부터는새로운 책에서 새로운일과를하드시새생활을지어봅시다 ‖새해 인사대신에‖

鐵窓에도新陽은復照

西大門과京城兩刑務所의 이천팔백팔십오명옥중동포 대개는신상에별고업다고

해가밧귀거나절후가밧귀일때마다 우리의간절히생각나는 바는옥중에잇는동포와 해외에잇는형데이다이제해외소식에대하야자세한소식을 권할길은업거니와옥중에서과세하는동포의근황은엇더한가

온갓고통과 온갓신산을 다맛보든김자년도 어느덧 보내고새해를 맛게되는 우리조선사람이야 그누가 남모르는늣김을 밧지안흐랴만은 그중에도 가장심각한늣김을 바드며과거를 회고하고고향을 사모하는이는 뎔창속에서해를 보내고 해를맛는동포들이다

서대문밧

게잇는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유죄무죄이런저런죄로 해를보내고해를맛는 사람들만 일천륙백삽십일명이라한다이중에서정치범(政治犯)에든사람이일백십여명이라는데 정치범중에도 세상을들레든김상옥(金相玉)사건의김한(金翰)(오년징역)의렬단(義烈團)사건의김시현(金始顯)(십년징역) 리완용암살(李完用暗殺)사건의 리동수(李東秀)(미결)등여러사람들이잇다 대개그들의 근황은별로이상이 업사며교뎍몸에병은업습니나

심히쇠약

하야인정잇는사람의 눈물을자아 내게되엿다 특히그들은 다른사람들보다 더 버상히 침묵한태도로 여가만잇스면책보기를 쉬지 안는다한다 그리고 공덕리 (孔德里)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는 일천이백사명의 수인이 옥중에서과세를하게되얏는데 이중에도 정치범에든사람이 오십여인이오 그중에는대동단사건(大同團事件)의권협(全協)(팔년징역)의용단사건(義勇團事件)김석황(金錫璜)(팔년징역)광복단사건(光復團事件) 김영철(金永喆)(칠년징역)

밀양폭탄

사건(密陽爆彈事件)곽재긔(郭在驥)등 여러사람들이잇는데 그들의 근황도역시 별이상은업것스나 몸이몸시파리하야간괴로워하는사람이사오인잇스나그다지큰병은아니라한다 이와가티

뎔창속에

서해를보내고 해를맛는 이천팔백삼십오명에게송구영신의 특뎐으로 삼십일일부터 일월오일까지 휴가를주고또초하루날아참부터 삼일외지는 매일떡두개식과 쇠니마다고기국을 준다한다

(사진은서대문형무소의구지다친쇠문)

京城鐘路靑年會舘
世昌洋靴店
主 梁世鎭
電話光化門一〇七三
振替京城七八七八

京城(龍山)元町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電話龍山長三四番◆振替京城壹貳八番
登錄商標 堅牢 美麗
大陸고무
社長 李夏榮
我고무 鮮界 元祖
京城鐘路(裁判所前) 同會社總販賣部
電話光化門七六五番◆振替京城七貳參參番

京城木曜會
朝鮮勸業信託株式會社
京城信託株式會社
朝朝土地經營株式會社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
株式會社證券金融社

京城府笠井町二二二
廣信金融社
京城府水標町二一
大正親睦楔
産業楔
順桶楔

不二興業株式會社

高陽郡龍江面倉前里三四七
李鎭石

京城府公平洞六十六番地
大成商會
主 張基肇
電話光化門五二四番
振替京城三七一三番

京城府並木町二七六番地
별포고 무신製 造販賣元
京城織紐株式會社
電話本局 一一〇八 二七〇一番
振替京城 四一一七番

營業科目
各色고무綿布靴 純고무平靴 고무쓰레바
純고무洋靴 新式고무底便利靴 各色綿布洋靴 男女用乾油靴
永光고무靴總販賣所
金永斗商店
京城東大門通進智洞二七番地
電話(光化門)四七七番
振替京城一〇三六番
永光고무
工場高陽郡崇仁面新設里

京城府南大門內
齋藤合名會社
雜穀部
電話本局 一九九〇 七九〇五番
電略號京城局(サ)又(サイ)

京城府內
團成社
光武臺
主 朴承弼

京城府鐘路二丁目(四街里)
金銀美術品 製造都散賣
三光商會
電話一一二三番

奇人奇緣 (64)

金溟濃 譯
盧心汕 畵

五四、순희란이름

그러고 영자가박사의말을좃친함에 민씨부인의 태도는일변하엿다

박사의 말이란 춘자를민씨부인에게맛기고 그대신 이제까지의은금을 삼배로올리어 줄터이니금후로는 두리따로 집을정하고잇스라고 하는것이엇다 박사는광산(鑛山)을 가지고 잇서서수입되는돈도 만흠으로 남을이러케후하게 하여줄수 잇섯다엇젓던 삼배라하면 하이카라를삼배나할수 잇슴으로 사치스러운것밧게는 아모것도 바라는것이업다고 할만한 민씨부인으로서는 것버하지아니할수 업섯다 그래서자연히 마음이 풀어저서

『엇젓던 박사가나와 부부가되자는 약속을저바린다 하는것은너무나 섭한일이나 모든일을다그러케 잘이 즈시는 량반이니가그런것을 생각하야 이번에위약한것은 용서하겟슴니다』하고가란人게 되엿다 춘자는좀처럼가란人지아니하엿스나그도나종에는엇절수업시가란人고말엇다

혼례한후로 늙은부부나 젊은부부나 행복이엇다는말밧게 더할말이업스나 신혼려행을간 뎡희는 견문이넓어질수록 모든것이 새사람가티진보하야 본래부터 어엽부든용모와 얌전하든인품이 더한층광채를 발하게되야 누구든지 부러워할만한 새부인이되엇다 그뿐아니라 그전에독신으로잇슬째에는 나타나지안턴 여러가지장처가 경호의안해가된후로 나타낫스며 또는자긔도 녀자에게업지못할 여러가지일을 배우기도하고 주의하기도하기째문에 얼마안가서 집안형세가 넉넉할것가트면 실로사교계를 뒤흔들리라고 남들이생각하게까지되엇다

려행가서도라오기 얼마전에 뎡희는 시어머니에게 보내려고 편지를씨는데 그엽헤서 경호가본즉 거긔에는 뎡희라는이름을 쓰지안코 뎡희라는 첫머리글자 그한자만써잇섯다 별로히 의심할것은업스나 그래도 뎡희라고 분명히 쓰는이만 갓지못함으로 경호는 다쓰기를권하엿다 그러나 무슨까닭인지 전에경호의말을안들은일이업든 뎡희는 그러기를 듯지아니하엿다 그래서경호의마음을 돌리라고 함인지

『당신은 녀자의이름중에서부엇어린이름을 그중 조와하세요?』하고뭇엇다

경호는 가슴속에 사랑이넘칠듯이자신잇섯슴으로

『뎡희라는이름이 데일조치오』하고 대답하엿다 이러한이야기는 새부부간에는 날마다잇는일임으로 다른사람이보면 무엇이 자미잇는지 조곰도 알수업는일이나 그본인들에게대하야는 국가의존망도 이에달리엇다 할만치 자미잇서하는것이엇다

『누가제이름말이어요? 다른사람이름중에서말이지요』

이것을 들어보면 경호의마음속에 다른녀자가 잇나업나를알수잇슬지 몰으는일이엇다 경호는좀생각한후에

『글세뎡희라는이름을 빼노면 순희라 하는이름이 데일그리울가』

정직하게한말이나 뎡희는얼골빗이달라젓다

『네? 순희라는이름이오? 그것은왜요?』하고 간신히태연한말소리로물엇다

『우리집에는 예전부터족보에 순희라는 일홈을가진부인이 둘이잇슴니다 하나는 지금게신어머니인데……』

뎡희는그의말이씃나기도전에

『네? 지금어머니의일홈이 순희며요?』

경호는뭇덕뭇덕하고는

『그러고일곱대전에도 순희라하는부인이 잇섯슴니다 그량반은조상중에 데일 현철한부인으로종종나라에서 칭찬을 바닷슬쁜아니라 그때에생긴현부전(賢婦傳)이라는책에도 긔입되여 잇슴니다』

뎡희는이러한이야기를듯고좀놀라는빗이업서젓다 말아서경호도별로이상하다하는마음이나지아니하엿다 그러나나종에 쓸데업는이런이야기를젓섭히다시생각할때가잇섯다

그후로도뎡희는 자긔의 이름을결코 편지에나다른데에 쓰지아니하엿다 이름을쓰지 아니하면안될때에는다만머리글자로한자만썻다 무슨까닭일가하고 경호는다소의심하기도하엿스나엇던녀자이든지 녀자에게는 남자가알수업는이상한버릇이잇는것이란말을들엇슴으로이것도역시한버릇이라고생각하고말앗다

昨年中의牛籍

◇작년일년동안생산수

수소	一六二、六二三頭
암소	二〇四、一六二
計	三六六、七八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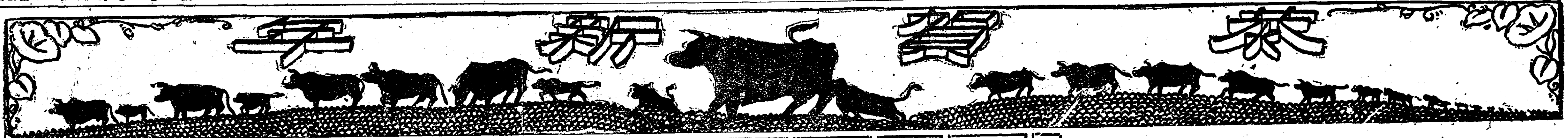
◇이중에죽어업서진소

	수	암
늙어죽은소	七、八〇四	一〇、〇二一
베려죽인소	一六五	一六六
잡아먹은소	一五五、五一八	一三三、九三四

◇이것을전년에비하면

생산된소가	九、九七四(增)
늙어죽은소	二、四一九(增)
베려죽인소	一〇、七四〇(增)

編輯兼發行人 金東成
印刷人 金炯元
京城府水標町四三番地
發行所 朝鮮日報社
電(光) 編輯 六一五番
編輯 一四七三番
營業 三七二番
振替京城四〇九九番



井邑郡長明里
金箕東

湖南線井邑驛前
穀物貿易商
深田泰壽南店
長 電話七一番
電略(フ)又ハ(フカタ)

湖南線井邑驛前
米穀委托買賣
穀物業
金森第一支店 電話六九番
金森第二支店 電話三六番
金森第三支店
電話一二六番
電略(カ)又ハ(カナ)
主任 金玄三

井邑郡德川面達川里
金學雨

井邑郡德川面優德里
德川公立普通學校
校長 谷川平大
訓導 孫机鶴
訓導 張煥實

井邑郡梨坪面上松里
面事務所一同

井邑郡古阜面新興里
許白述

井邑郡
郡守 金彰漢

井邑郡
苧布組合

井邑郡長明里
鄕校總務 吳學根

井邑郡長明里
進士 朴濟炫

井邑郡長明里
井邑青年會執行委員
朴孝建

井邑郡長明里
申命雨

井邑郡長明里
井邑勞働組合長
朴碩奎

井邑郡井邑面長明里
金箕南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李在南

井邑郡古阜面新興里
趙東奎

井邑郡井邑面水城里
金教春

井邑郡井邑面水城里
郡面長 丸山省藏

井邑郡井邑面水城里
韓賓中

井邑郡井邑面水城里
代書業 崔彰煥

井邑郡井邑面水城里
旅人宿 尹鎭求

井邑郡井邑面市基里
米穀商 辛泰煥

井邑郡井邑面市基里
李性宥

井邑郡井邑面市基里
朴幸奎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姜相鎬

井邑郡井邑面市基里
友恭商會
主任 李樂三
主務 李京鎬

井邑郡井邑面市基里
白鳳麒

井邑郡井邑面市基里
井邑衡平社

井邑郡井邑面上里
李斗鎬

湖南線井邑驛前
㊀鮮一運送部
井邑運輸組
店主 高漢重
電話一八番
振替京城一三八二三番
私書函井邑第三號

湖南線井邑驛
驛長 鶴丸市藏

湖南線井邑驛前
穀物米穀商
松本壯四郎

湖南線井邑驛前
穀物米穀商
林鍾元

湖南線井邑驛前
雜貨商
主任 金庠洪

湖南線井邑驛前
米穀商
主任 田中義政

湖南線井邑驛前
鐵道貨物運送業
井邑驛前支店 金學

井邑驛前連池里
井邑勞働組合

井邑驛前連池里
趙相貴

井邑郡井邑面上坪里
穀物米穀商 湯川彌太郎

井邑郡井邑面上坪里
林鍾燦

井邑郡井邑面上坪里
金相熙

井邑郡井邑面下芽里
穀物米穀商 金琛述

井邑郡井邑面三山里
金雲瑞

井邑郡內藏面
面長 孫聖晧

井邑郡笠岩面
面長 柳載陽

井邑郡笠岩面芝仙里
李伯述

井邑郡笠岩面新綃里
尹炯錫

井邑郡笠岩面丹谷里
柳武相

井邑郡笠岩面丹谷里
柳殷相

井邑郡笠岩面川原里
李相華

井邑郡笠岩面川原里
吳永完

井邑郡笠岩面川原里
李水一

井邑郡笠岩面川原里
金鳳權

井邑郡笠岩面磨石里
卓成錄

扶安郡乾先面巴山里
具容書

扶安郡扶寧面新興里
金日載

扶安郡保安面月川里
許邦煥

井邑郡七寶面
面長 金東柱

井邑郡七寶面詩山里
面書記 金充基

井邑郡山外面
面長 金成鎭

井邑郡七寶面詩山里
李喜燮

井邑郡七寶面[illegible]里
金泳燮

井邑郡七寶面臥牛里
崔永大

井邑郡七寶面伐樹里
張順化

井邑郡實林面實林里
趙振國

井邑郡北面伏興里
李潤德

井邑郡北面伏興里
文奎浩

井邑郡北面新平里
柳然煥

扶安郡舟山面
面長 崔在洪

扶安郡上西
面事務所一同

井邑郡龍北面新泰仁
金炯淑

井邑郡龍北面新泰仁
穀物米穀商 金[illegible]運 電話九番

井邑郡龍北面新泰仁
旅人宿 李成三

湖南線新泰仁驛前
海陸物產委托買易 三益商會
主任 李守鍊
主務 柳奎文
主務 李元植

湖南線新泰仁驛前
穀物米穀商 金周煥

湖南線新泰仁驛前
朴瀅求

湖南線新泰仁驛前
泰仁醫院醫師 尹善旭

湖南線新泰仁驛前
穀物米穀商 宋榮秀

井邑郡泰仁面泰昌里
旅人宿 崔龍澤

井邑郡泰仁面泰興里
金應斗

井邑郡泰仁面泰興里
宋榮根

井邑郡泰仁面泰興里
金哲坤

井邑郡泰仁面泰興里
旅人宿 崔光國

井邑郡泰仁面
面職員一同

井邑郡泰仁面泰成里
吳鴻泰

井邑郡泰仁面泰成里
旅人宿 張泰燮

井邑郡泰仁面居山里
衡平分社 趙學俊

井邑郡甘谷面梅井里
金在東

井邑郡甘谷面梅井里
崔在哲

井邑郡甘谷面山城里
崔獻宇

井邑郡山內面菱橋里
劉載翊

井邑郡山內面菱橋里
裵一錫

井邑郡山內面
面職員一同

井邑郡山內面長錦里
金誠錫

井邑郡瓮北面長
姜甲秀

井邑郡德川面達川里
李熺洙

井邑郡德川面望帝里
崔承烈

井邑郡德川面優德里
宋圭錫

井邑郡德川面上鶴里
金永道

井邑郡德川面事務所
面長 金炳啓
書記 金基鎔
朴炳旋
崔錠烈
韓鎬石
李起俊

密陽自働車株式會社

密陽城內
米穀商 精米商 正信商會
主任 李承鉉

密陽城內三門里
金容吉

密陽郡守
閔麟鎬

密陽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密陽警察署長
荒井仁策

京釜線密陽驛前
米穀商 並精米業
韓春玉

三浪津
今村果樹農園
主 今村十三郎

密陽郵便所長
上妻壽三郎

密陽煙草耕作組合
職員一同

三浪津洛東江
金在昊

三浪津金融組合
理事 八木新太郎

馬山線洛東江驛前
米穀商 ㊀運送店
李完熙

三浪津
朝鮮興業株式會社
三浪津管理所

馬山線洛東江上市場
米穀並布木商 李明一

三浪津洛東江
朴義鳳

馬山線洛東江驛前
米穀並布木商 朴智鳳

馬山線洛東江驛前
洛東煙草耕作組合

三浪津驛前
裵相守

三浪津
林田果樹園

密陽城內
密城洋靴店

密陽城內郵便所長
泉豊

馬山線洛東江驛前
日新旅館
主 朴基潤

馬山產興貯蓄組合

鳥致院面協議員
學校評議員
金融組合評議員
金教哲

燕岐郡錦南面
職員一同

燕岐郡西面
代書業 曺秉海

燕岐郡南面長
河經煥

鳥致院
大陸ゴム鮮特約店 朴基守

燕岐郡全義面
朴東烈
愼熙鍼
金榮國
金暎煥
李鍾甲

燕岐郡全東面
職員一同

鳥致院本町
ゴム靴商 金光濟

馬山線洛東江驛前
文度翔

三浪津堤內龍田里
梁在榮

三浪津
大久保商店

三浪津
權儀瑨

密陽城內
株式會社 慶一銀行密陽支店
支配人 李源永
副支配人 朴昌守

三浪津洛東江
慶南銀頭取
池昌奎

密陽嶺南樓內
朴氏宗約所

密陽醫師會

八坂商店運輸部取引店
南滿洲鐵道株式會社承認店
國際運送株式會社取引店
朝鮮運輸計算會社交計店
京鮮滑走船巡航合資會社元扱店
水陸運送業並ニ倉庫業
分川波水陸運送店
店主 川波藤太郎
馬山線洛東江驛前
振替京城二八五九番
電略(ヤマカ)又ハ(カ)

京義線沙里院
德本洋服店
金淀楫

海州北本町
辯護士 金永烈
電話二二七番

朝鮮釜山
衡平社釜山支社

朝鮮日報　新年號 其二

一九二五年의最大懸案 日米關係의今昔觀(上)

民世學人

一、種의差別과悲劇의出生

一九一四年첫가을 歐洲의戰亂이바야흐로열리어天下의人心이外닭업시뒤숭숭한그때오래간만에故山에몰아온一靑年은자못感慨無量한듯이列國民의壯烈한鬪爭을생각하면서外에遊遨하엿다 秀麗한靑山은東西로둘러잇고中間에는젊은平野가南北으로展開되엿는데新涼을마저서변서老衰한氣色을뛴운垂楊들은시내의左右로첫첫늘어섯고樹林사이를삭이어點點이헤터잇는漢村의人家들은周圍에展開된田園의景光과아울러가장安靜한平和鄕을象徵하는듯하엿다

靑年의발자취는垂楊이늘어선시내가로옴기엿다 쓰르람이의우는소리는비개인後의추축한버들입속으로흘러나온다 靑年은外닭업시孤獨한한포가낫섯다 그는冥想者와가티깁흔생각속에들엇다 어느덧가지우의쓰르람이는그平和로운音律을멈추고뀨작이악착한悲鳴을한다 쏘치가보핫다 풀속에떨어진靑玉과가튼적은쓰르람이의날개는마치宮人의여름衣裳보담도더욱엷고 고왓다

그러나한마리의黃蜂은그의엽구리를풀고살(矢)로는연방쏘고잇다 엽구리는벌서躁豆빗만큼불어뙤기엇스나이優美한쓰르람이는抵抗할意思도업는듯이悲鳴만하고조부심을한다쓰르람이가優美하거니黃蜂이醜惡하거니自然이내인대로이오또그의赤裸裸한實力의鬪爭은남의干涉으로엇지할수업는일이지만그는금작이그優美한弱者를同情하엿다그러나히조리로黃蜂을쏫고말엇다일부러그를剿滅하려하지안햇다다만自然界에잇는이不公平한種類의千差萬別또는그强弱의千層萬層을생각하며금작이슬퍼하엿다

그러나그優美한弱者의悲鳴소리는如前히들린다거정스러운얼골빗을한그는다시가보앗다 黃蜂과쓰르람이는들우앗가의慘劇을되푸리하고잇다 懸然히憤怒한靑年은발길을들어서벙도써지거라고나리밟고또무벼버렷다勿論醜惡한强者이나優美한弱者이나이憤怒한靑年의발길미테는餘地도업시욕께저서다시흔적도볼수업시되엿다 悲哀한自然界이다 外닭도업는昆蟲의鬪爭에無理한干涉을行한殘虐한橫暴者! 그靑年은슬퍼하엿다放聲大哭이라도하고십헛다 그는書齋에돌아왓섯다 마치國家의興亡을본듯이悲憤하엿섯다 아아이種의差別과밋그强弱의等差! 造化翁이답어다준人世의悲劇! 그는出生의悲劇이아니고무어실가?

내가낫느냐? 내가잇고보니나는낫도다그리고나는人生이라意識하니또人生이도다 내가잇스니또너가잇슬것이다 내가잇고너가잇스니人生은벌서差別界에서잇는悲劇의出生者이다 人生은모다同胞이다 同一한大宇宙의洪大한품속에서棲息하는이人生은그의同胞愛와人類愛에依하야相互扶助의協調의生活을하는것이人生된本意이오또人類良心의至上命令이겟지! 아아그러나이나와너와그와저와의差別界에서잇는各個의人生들은―그의各個人들을包括한各個의集團들은언제나과연眞正安樂한永遠한平和鄕에들어갈가?

人類歷史의第一『페지』에는벌서『아벨』을죽인『카인』의罪惡으로써記錄되엿다 그러나이『카인』과『아벨』 兄弟와姊妹가서로殘害하는記錄은오늘날外지는한모양이엇섯다 生物의本性은相互扶助인지生存競爭인지? 人類의本態는愛의平和인지憎惡의殺伐인지? 그는곳絶對의單一性을確定할수업다

人類는與컨대境遇의動物이다 發展의過程에잇는 現下의人類들이 그의不合理한 殺伐과爭奪의禍因이되는 모든 社會組織을 根本的으로 改造함으로因하야모든無用한種族的、階級的의軋轢을根絶한다할지라도日吾人은各個의個體를單位한人間性의本質로보아그의絶對의平和를確信할수업는바이며 하물며有史以來累千年을長繼하든種의差別및意慾의障壁은그러케一擧에氷釋될것을 速斷할수업는바이改造의過程도無數한波瀾曲折및夥多한犧牲을預想하지아니할수업다

吾人의時代와밋갓가운將來或은永久한將來까지도吾人은어느程度로되무리하는悲劇을覺悟하지아니할수업는바이다우리는直接間接으로大小의悲劇慘劇을經驗하여왓거니와지금에太平洋의東西로부터助長되는新脅威는또한이絶對한新悲劇의序幕이곳우리에게展開되려함을預告함이다

二、黃白衝突과禍亂의東漸

『一般軍備의撤廢는 到底히實現할可望이업슬뿐아니라或은돌이어 반갑지안은일이될것이다 政治家는實際問題를對象으로아니하면아니된다 만일一般的軍備撤廢를하도록하려면모든이면서人間性을 改造하여야할것이라』는고

이는『와신론』의軍縮會議를招集함에臨하야故米大統領『하딩』氏가一般的軍備撤廢論者에게辯說한바이다 『하딩』은凡俗的政治家이다그러나吾人은高遠한理想的當爲論에熱中하야凡俗的인實在性을沒却하는誤謬에는싸지지아니함을要한다 『와싱톤』의軍縮會議는眞正한歷史見地로보아서吾人에게憧憬하고아모것도남겨주지아니하엿다 그러나實際의國際史에잇서서吾人의留意할二大關目이잇다

其一은日英同盟의廢棄에依한日本孤立의完成및英米協調의促進이요

其二는日本軍備의差別的制限및中國에對한優越的抛棄그것이다

그리고昨年五月二十六日로써米大統領의裁可를거쳐七月一日로써實施된排日移民法案과밋現今外지繼續하는米國의排日의餘波또는海軍擴張의氣勢는이미吾人의말보다압서서市街人의傳說이더욱紛紛한바어니와『다음의戰爭은?』하는質問에應하기를만듯이『日本人하고!』라는말로써한다는米國의海陸軍人의態度이든지및그들의必勝을밋는軒昂한意氣로써보든지識者는이不祥한流血의慘劇이未然에防止될것을斷定하기에窮할것이다

日米의葛藤은二十世紀의重大한懸案이오現實이주는人類의一大煩悶이다 일즉『보스니아』의爆彈으로因하야全世界의大動亂을挑發케하든것과가티이東西의兩大國의衝突은또한다만甲乙의相對者에게만制限되리라고볼수업고 事件의發展은반듯이最初의責任者들의意識하엿든대로만가고말을바아닌즉吾人은日米의葛藤이意外에解除되믈預想하지안코서는今後生民의一大禍亂을覺悟하지아니 할수업는바이다

그러나이厭忌할만한流血의慘劇은米의罪악도아니오勿論또日의罪에因함도아니오人世의實情과天下의大勢가자못그必然의運命으로써强制하는바이니要컨대그들은가장時勢에屈服하는平凡한奴僕들일뿐이라

그들은그의하는바를스스로알지못하는『유대아』의群衆들과가티서로각각自己最愛의主를刑機에달고不期한悔恨의눈물을準備코저 할일뿐이다 種의差別은現今外지의人類史上莫大한 悲劇을준바이오黃白의衝突은그由來가또한오랏섯다 無産者의國際的團結을부르짓고또는그가이미實現의中途에잇는바黃白의衝突이란워낙現代的으로完全한意味를하지못하는바이다 그러나이階級的團結이바야흐로그發生의過程에잇는것과가티이種族的의衝突은아즉도掉尾의大活劇은마치지못하엿다

紀元前五世紀頃의 波斯人의『헬라』侵入가튼것은 오히려『아리안』人相互間의일이라 하려니와五世紀頃의匈奴의東南歐洲征服、十三世紀의蒙古人의 大軍의東歐進襲等은오늘날外지도遺傳的恐怖心을歐洲人에게주는바이오 所謂亞細亞의歐洲壓迫의例證으로써하는바이다그러나十五世紀以來로東方의禍亂은거의다歐洲와밋歐洲人의子孫에依하야促成된바이다吾人은『아푸리카』、『아메리카』『오스트랄리아』各地에잇서서歐洲人들이얼마나殺戮와殘虐을行한것은그만더되푸리하지안는다그러나低級이오또苦役인勞作에關하야歐洲人들이항상東方의有色人들을使役하고그의荒蕪가開拓되며文明이創設되는中途에잇서서그들이곳有色人을排斥或은壓迫하는것은자못恒例가 되어잇는바이다『東部아푸리카』로 부터나탈、요하네스부르히、로데시아』밋南阿聯邦의諸地域은黑人이나또는印度人의汗血에依하야開拓된바이지마는黑人의處地는勿論하고同一한英帝國의臣民인 印度人은이미『아푸리카』에서虐待과驅逐을바든지오래엇다

一九一四年所謂南阿移民法과印度人의大反抗運動은곳그를날함이엇고白濠主義를高唱하며亞細亞人의入國을絶對禁止한廣漠한領土의所有者인濠洲도그러하고一八八〇年의米中條約및一八九四年米中通商條約에依하야中國人의入國을禁止한米合衆國은그의西部諸州의鐵道、鑛山、原野및建築이大部를中國人의勢力에依하야造成된것이엇섯다이러한形勢는『카나다』이나南米列國에도잇섯고 또現今잇는바이다이러한諸事件은 날로東西民族의軋轢을助長하고戰亂後의大勢가倍前의氣勢로써西勢의東漸、侗局의推移를表明하는것은잠으로現下絶大의危機를暗示하는바이다

三、歡樂과併存하든憤怒―排日運動의今昔

日本은幸히運의나라이엇다그잇는古昔에잇서서는大陸風塵에超脫하야民族的潛勢力과및獨特아니한國民的自尊心을保持할수잇는遼海의島國이엇고近代에잇서서는 東西交通의要衝에잇서서먼저 歐米의文化를輸入한先進國될 形勝의地이엇섯다 葡萄牙와西班牙의商船이明의商船과함씌日本의港灣을訪問하든것은멀리十六世紀中葉의일이엇고和蘭의商人을爲하야平戶의開港을許하든것은一七一〇年(光海君二年)부터이며一六三七年(仁祖十五年)天主敎徒의反亂인『島原의亂』을討平한後德川幕府로因하야斷行된鎖國의政治가아니든들日本의國情이얼마큼이나더욱變動을일으키게하엿을는지모를일이엇다

吾人은日本의伊達政宗이그의家臣을呂宋으로부터羅西哥에보내든蒼古한일을들추음必要는업다그러나一八六〇年『페리』와의條約의批准交換을爲하야米國을訪問한公爵岩倉以外七十一人의日本使節의米國에서經驗한바는이미오늘날日米의國交를暗示한바잇섯다그들이『뉴욕』에서바든바大舞蹈會場裡의歡迎會에는主要人士一萬以上의列席下에그의設備는 壯麗와華奢를다하엿고그들은日本과의通商의利益을說力하엿섯다그리나中央의舞臺에引導된日本의使節은그의『상투』와異樣의衣裝과및大小의佩劒과함씌자못그들에게興行場에나온觀覽物인感이잇섯고그들이街上에巡廻하매그를引導하는米國의海軍士官들은 人民들에게『원숭이와同伴한者여! 너의肩章을떼어버리라』는怒罵를바덧섯고 『黑奴』라고외치며拳銃으로쏘는醉漢에게는驟怒한日本人의白刃을내두르는活劇이잇섯다이經濟의利害를爲하는通商의條約、客氣的歡迎와및深刻한侮蔑그리고醉漢의拳銃과驟怒者의日本刀、이三段의事實은日米關係의由來및그現下의形勢를가장如實하게象徵하는바이아닌가?

當時『뉴욕』의中央인『메트로폴리탄오페라』에서多數한米國의士女가遊戲를棄하야驚異와歡待로써마지하든日本人은이미그必然한順序를밟어서그들을敵待하는地位에섯고當時무리持續하든人種的偏見은이미彌縫할수업는國際的大葛藤을보게되엇고그리고拳銃과日本刀는바야흐로그의威力을試驗하게되엇다 다만이手中을벗어나서作用할수업는三尺의日本刀가遠距離의射擊을自在로할수잇는無步한拳銃을敵對할勝算이잇고업는것은依然한大疑問일뿐이다 一八七〇年米國渡航을비롯한日本移民이一八八七年日本(明治二十年)에는이미排日의소리를듯게되엇고 一九〇三年부터同六年外지三個年間『하와이』로부터轉航者를合하야無慮三萬以上을算하게되는日本人의入國은當時日露戰爭에日本의戰捷에關한米國人의國民的猜疑心과함씌排日의運動은자못燎原의火勢로擴大되어學童隔離로부터移民制限에미치고因하야日米紳士協約의締結에因하야日移民은자못杜絶된形勢이엇스나寫眞結婚에因한日本婦女의渡米와其他轉航者도相當한入國者가잇섯고其後에今日外지前後二十年에米國의排日運動은或은善良한風俗을妨害하고그의低廉한勞銀으로白人勞働者의生活을威脅한다는社會的理由로써도出現하고或은日本人의西部諸州의土地와및其他利權을占奪한다는經濟的理由로써土地의所有를禁止하고會社의企業을制限하게되며或은日本人은同化치안는侵略的國民이오共和政治와合致되지안는特種國民으로써그들의存在와繁殖및그勢力의發展은곳米國의國民的統一을妨害하고그의存立을威嚇한다는政治的理由로써하야처음에는加洲一帶에限한地方的問題이든것이近年에와서는米國全國的大問題로되어필경은昨年七月一日로써施行된決定的인排日案이되엇고지금도오히려多少의排日을計劃하는形勢이다

要컨대日露戰役의直後로부터勃興된排日의氣勢가日本의日獨戰爭의成功및所謂對中二十一個條의要求또는西伯利亞出兵에因한北方侵略의野心、對朝鮮强壓政治의實情等에돌어보아日本人은곳軍閥의跋扈하는特權階級의武斷政治로써항상無盡한侵略의野心을품는『반갑지안은人民』이라고생각되는外닭이엇다 그리고新興한米合衆國이그의無盡한富力을기울여이東亞의天地로써一大經濟的飛躍地를삼고저하는터에當面의敵으로써이『僭越』한島帝國을發見한外닭인것은이미吾人의煩說을要치안는바이다

祝朝鮮日報의新禧

朴殷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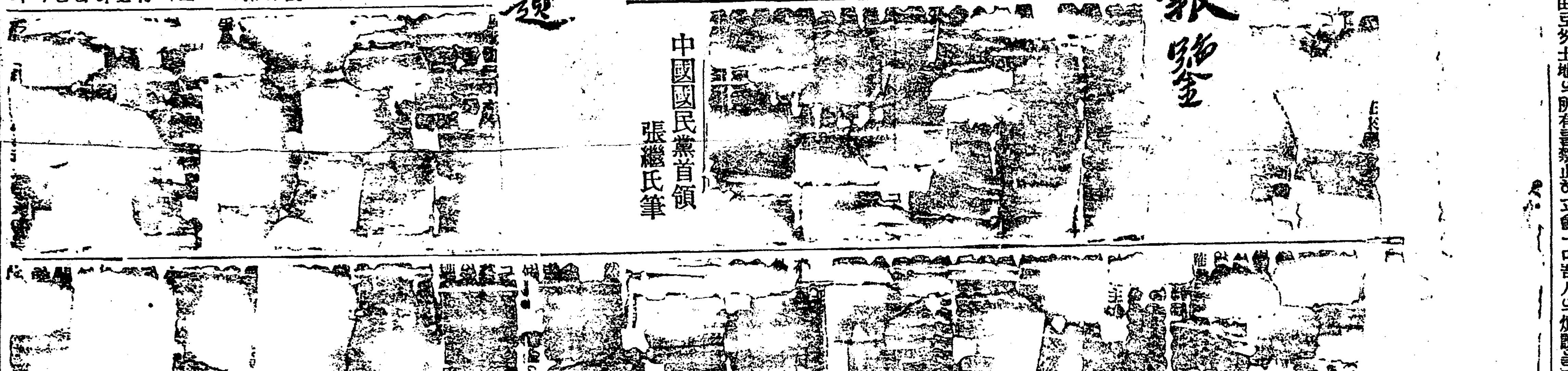
余가近者에佛祖世尊이靈尼山頂에서華嚴會를組織하고大演說을開한다는消息을接하매생각하기를現在惡濁世間은各種不平等의苛酷을因하야苦痛을바든者가無數하거니와오즉華嚴法界의十方國土는一切平等이라비록無權者라도參會의承諾을得할것이오또佛의慈悲力과威神力은平等을實施키爲하야怖畏者를救護하는지라이제우리兄弟姊妹는모다怖畏中에잇는者인즉余가그演說의政音으로써救護方法을어더오게되면何等愉快이며何等幸福인가하고淸風一席을借하야飄然히道場門外에得達하야入場을要求하니果然平等法界임으로差別待遇가업더라宮殿과樓閣이모다廣博하고嚴麗한데梅檀과菩提樹는陰翳함이雲과如하고蓮華網과摩尼珠는地에鋪한것이雨와如한지라余가十分恭敬心과懽喜心으로會席을周瞻하니司會는우리神祖桓因天帝이시오、會員인諸佛은普賢、普德、普光、普音、普智、普寶、普覺悅、普淸淨、普勇猛、大精進、海月光、大明德、大福光等諸位菩薩이고諸神은金剛神、主城神、主山神、主林神、主藥神、主稼神、主河神、主海神、主火神、主風神、主空神、主方神、主夜神、主晝神等이오諸王은阿修羅王、迦樓羅王、緊那羅王、摩睺羅伽王、夜叉王、大龍王、鳩槃茶王、乾達婆王、月天子、日天子、三十三天王、須夜摩天王 兜率陀天王、化樂天王、他化自在天王、大梵天王、尸棄天王、徧淨天王、光音天王、廣果天王、知足天王、大自在天王等이러라이 때世尊이結跏趺坐하야眉間의白毫光線을放하야諸天을照하게하니無量數의會衆이모다瞻顒하고懽喜하야一心讚仰하는지라世尊이妙智를演하야大智慧의平等主義로서衆生으로하야금憂苦解脫의方便을普示한後에그大旨는佛의威德이廣大無碍하고神의法權이至公無私함으로諸佛과諸神과諸王等이그威神力을바다循序로演說이잇섯는데億兆衆生의憂苦를解脫하고福利를享受케함이一切平等이거늘人間社會의法權은差別이甚함으로惡이善을害하고强이弱을食하야極重한罪惡을지어地獄과火山의刑을밧게되는것은모든業障이가리운바되야通明한覺悟가업는緣故라그럼으로佛의慈悲로一切衆生으로하야금 모다覺悟를엇는罪惡의網 을버서나게함이라고各其辯才를現하더라會를閉한同時에余가桓因神祖압헤辭退를告하오니神祖씌압서親히余의게七字要訣을付하사一般子孫의게均配하야現在憂苦를解脫케하라하시매余가惶悚伏地하야百拜領受하얏는데어느方面을좃차紹介를得코저하얏더니맛참朝鮮日報社로부터新年祝詞를求함이有한즉紹介의方便이適宜한지라因하야바든바七字로써주노니勇猛精勤不退轉이라우리報界法友는此로써一般兄弟姊妹의게均配하야各種事業이右七字의精神으로써前進前進하야日新又新함을頂祝不已하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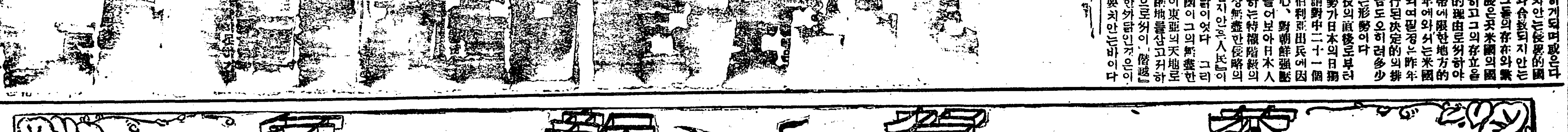
民族自由

張繼題

朝鮮日報鑑

中國國民黨首領 張繼氏筆





京城府壽松洞參拾參番地
振陽源本舖 滿鮮賣藥商會
振替京城壹貳四九五番
電話光化門九八參番

京城府南大門市場
海產物貿易及委托業
柳昌源
電話本局二五七二番
電略 류 又난 창

京城南大門市場
海產物委托販賣業
金鍾夏
長電話本局三四〇七番
電略 (夏) (하)

朝鮮京城南大門市場
內外國米雜穀肥料麴及麻袋委托業
廣信洋行
電話長本局四〇一〇

各號字母 各號活字 製造販賣
Ⓚ 英一活版製造所
金英植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二二番地
電話本局二五六八番
振替京城二三九七番

朝鮮食料品品評會 一等賞受領
朝鮮料理元祖 食道園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
電話光化門 四一四 五一七 番

京城府鍾路壹丁目六拾番地
綢緞布屬 棉布棉系 洋屬其他 直輸入貿易商
金熙俊商店
電話光化門長七五八番 二一一番
振替口座京城六二五番

典故大方
發行所 漢陽書院
京城府慶雲洞四三番地
振替京城一一七〇二

京城府樂園洞二七九番地
全昶

京城府敦義洞
朝鮮料理 西洋料理 明月館
電話光化門 八六二 六四 番

京城府瑞麟洞
明月館支店
電話光化門七三五番

朝鮮青年運動의今昔

過去一年을回顧하야

鄭栢

無産青年運動은 現下 朝鮮社會運動線上에서 가장急進的이외다 그러하야어느意味로는우리社會運動의中心勢力이라고도 부를만콤 매우重要한位置에서잇슴니다 그것은 靑年運動의由來로보아 또는靑年運動의過位와및範圍로보와 그런한가한다우리의社會運動을살펴보면小作運動、勞働運動、思想運動婦人運動、靑年運動 等여러가지로分類하야도볼수잇스나그中에靑年運動이 어느運動보다도群集的運動의試織이 만흔同時에오랜由來를갓고잇슴니다 前韓國時代에 舊思想을排除키爲하야政黨的 色彩를 띄고서이러난當時所謂『開明한靑年』들의群集運動이 日韓合倂後 거의沈滯泯滅에 싸지고잇다가三一運動이 이러난後 民族的으로새로운自覺을가지게되야靑年運動이다시勃興하게되얏슴니다 이와가티 靑年運動은 시작된지年淺한 小作運動 勞働運動等다른運動에比하야 먼由來를가진것입니다 그다음靑年運動의範圍로보면 우에옴긴바와가튼由來를가진 朝鮮靑年運動은 다른나라의靑年運動과는 갓지아니한 다른任務를 하나더짐머지고오게되엿다 外國의社會運動을보면 靑年團體와思想團體가各各分立하야 思想團體는 直接鬪爭을中心으로삼으며 靑年運動은直接鬪爭보다도 敎養이中心이지만은 朝鮮의 靑年運動은思想團體가 行할 任務를兼行하야 靑年運動과思想運動이 한데석거서 하나가되고말엇슴니 (近來에는漸次로分立되는傾向이뵈입니다마는) 그리하야從來靑年運動이 그鬪爭의範圍가 小作運動이나勞働運動과가티局限된지안코 社會運動의全線에蔓延되야縱流橫流의여러가지波動을이르키엿습니다自覺한靑年이農村과工場에헤여저잇슴과가티靑年運動者도小作團體와勞働團體에參加하야 指導의任務에當하고잇섯슴니다

그다음 또 朝鮮에는資本主義的病弊는高度에達하엿스나資本主義的産業이 發達치못한外닭으로 工場勞働者는少數에지나지못하고 또그의運動이徽微하며 農村의小作人은 그經濟的環境이都市勞働者보다 그急進性이적을뿐아니라또妥協性이만흐며 無智한外닭에朝鮮의靑年은엇더한意味에서 外國의勞働階級과가튼任務를社會改造의途程에서行케될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쓰고자하는靑年運動이社會運動線上에 어떠한位置를 차지하고잇는가를며강말한줄압니다 일로부터本題로드러가서靑年運動이 지난해一年동안에어써케運動을하엿는지 그자최를살피기爲하야年中에드러난事件을 들어서簡畧한批評을試한後 그狀況에依하야現下靑年運動의傾向을考察코자함니다

지난一年은 靑年運動에잇서서가장重要한時期엿슴니다 民族的自覺으로이러난靑年會聯合會가업서지고 靑年總同盟이이러나서 지난해에이르러 民族的靑年運動과 階級的靑年運動과의 두潮流가合하는河口를이두엇슴니다

지난해이른봄부터 서울靑年會를비롯하야 各地에散在한靑年團體들이 서로입을 모으고뜻을合하야 靑年運動의統一에對한 議論가 자못盛히 오락가락햇슴니다 그리하야 靑年運動者들이 各地靑年團體들을巡廻訪問하며 講演隊가 三路或은四路로分하야 巡廻講演을行하며 宣傳을盛히하야 種種의集會와 여러가지發表가잇섯슴니다 이것이 곳靑年總同盟의産婆役을擔當하는모든暗示엿슴니다 이運動이 차차로進行함을따라서靑年會聯合會는 各種의團體에게 同意를 어더서 새로운綱領下에 모히는 새團結을成立하기로 決定하엿슴니다 그리하야朝鮮靑年會聯合會와서울靑年會와 進永靑年會聯合會와新興靑年同盟、北靑靑年會、濟津靑年會、裡里勞農靑年會等二十六團體가發起團體가되여『階級的大團結을目標로』靑年運動의統一을圖하기爲하야 『노뉴산의宣言과『大衆本位의新社會의建設을期圖한다』는朝鮮民衆解放運動의先驅가되기를期함』이라는두가지綱領으로써各地靑年團體를糾合하야 四月中旬에 마츰내 二百二十七團體의加盟과 二百餘代表의 出席으로써 靑年總同盟이 創立되엿슴니다 이同盟은 四年前三一運動의遺産인靑年會聯合會와比較하면聯合會에는 民族運動者와및政客의風을가진 人物들이中心이되엿슴에反하야 總同盟에는 階級意識이잇는靑年運動者와新興의銳氣를가진無名靑年들이多數로參加하야그의中心이된것이 새現象입니다또綱領으로보면聯合會의『一、社會를革新함事二、世界에智識을廣求할事三、健全한思想으로團結할事四、德義를尊重할事五、産業을振興할事六、世界文化에貢獻할事等六箇綱領은 民族主義가基調가되고 쌀조아自由主義思想이 一貫하엿스나靑年總同盟은우에옴긴것과가티『階級的團結을目標로』 하야二個의새綱領을세웟슴니다 前者는民族을本位로삼은 縱斷的運動입에 對하야後者는 全階級을 本位로한橫斷的運動이라볼수잇슴니다

總同盟의規則通過와 機關組織으로써 創立大會의幕을내리고臨時大會로넘어가서 자못疾風迅雷的으로一、靑年同盟의根本方針一、靑年修養一、靑年團體組織一、異流靑年團體에對한運動一、勞農運動部、婦人運動一敎育問題一、宗敎問題一、衡平運動一「反動團體에對한것」一、東拓問題一、民族問題等十二項目에 對한決議를하엿슴니다 機關組織이 잇난後에이러한決議가잇는것은지지난해에解散된 靑年黨大會를 前鑑으로하야取한바機敏한處事라 할수잇슴니다 그런데官憲의臨時大會禁止가다만그臨時大會에限하야行한것이아니오 繼續的으로總同盟에關한一切集會를禁止하엿슴니다 그리하야그 執行委員會와 甚至於總同盟常務委員會까지 禁止하야看板만남겨두고서 그表面으로는解散과다름업는 狀態에잇섯슴니다 何如間 靑年運動은 昨年(千九百二十三年)에열린靑年黨大會로써 그序論을쓰고 靑年總同盟創立으로써 그의本論을 쓰기시작한것입니다

靑年運動의中心勢力이되는靑年總同盟이그와가티禁止를當한後 鼎昂과不[illegible]의低氣壓은 各地靑年團體로하여금在來로쓰든『靑年會』라는名稱의頭上에흔히『新』字 라는二字를이고나오게하엿슴니다 그뿐아니라 會員親睦智識交換哀慶相助等單純한修養을 目的하든機關을 社會運動의前衛가되는것을目的한機關으로變作하기爲하야 各地靑年團體가서로압질러서 會則과綱領을改正하얏슴니다 지난六月에 馬山에서進永無産靑年會가創立되며그運動이 ○○主義를 包含하얏다하야그會를 解散케하얏슴으로 新派靑年會 는 名稱으로서 다시結合하게된것도 그一例의하나입니다 八月頃에咸北羅南에서共榮靑年會가創立된지未久에解散을當하고○○主義宣傳嫌疑로써四五人이現在豫審中에잇슴니다 그內容은 알수업스나이事件은 咸北聯合靑年會主催의講演으로李漢[illegible]이舌禍에걸리여지금囹圄의몸이되여잇는事件과아울러北鮮靑年運動에陰鬱不安의低氣壓을일우엇슴니다 그뒤를바처서 九月初에는淸津靑年會에서 主催한東京震災時被害된 朝鮮人追悼會事件으로하야 南潤九 鄭道石等이數十日間收監되엿섯슴니다 그리고 發島배달靑年會가社會運動으로써그目的을고치며 岩泰靑年會와가터힘쓰든것은 小作運動에 今年부터더욱히靑年들이 小作組合을일으키며 指導하야 農村에잇는靑年運動이 小作運動에 그색리를박은것中의 한例를볼수잇슴니다 또三嘉靑年會의崔昌燮이不[illegible]로因하야 六十圓罰金에處한일은 一時 當地靑年運動을不安케하엿슴니다 講演의禁止와解散은京鄕을通하야 그 [illegible]를이루헤일수업슬만큼만엇슴니다 이와가티 反動의勢力아래에서一波動萬波의現狀으로各地에서이러난靑年運動은 九月第一日國際無産靑年紀念日을맛게되엿슴니다

朝鮮靑年이 國際無産者와紀念日에參加하기는 再昨年부터비롯하엿스며 이紀念日을朝鮮靑年運動의年中行事로써가장먼저行하기는 永同靑年會、馬山靑年會서울靑年會等少數團體엿슴니다 그中에서서울靑年會는 地方靑年團體에서보낸靑年데이紀念宣傳文으로因하야任[illegible]漢、韓愼敎、張彩極等이出版法違反에處함으로因하야 第一回朝鮮無産靑年데의 印象이깁게되엿슴니다 靑年데이를朝鮮에서紀念하기가 이와가티最近이오 最初에는그것을紀念한團體가이와가티極少數입에不拘하고 지난靑年데이는非常히盛大하엿슴니다 靑年總同盟이爲始하야서울에잇는 新興靑年同盟서울靑年會其他地方에서咸興、大邱、馬山、昌原、裡里、平壤、群山、全州、晋州等이두枚擧할수업시各地靑年會에서禁止와解散은當하엿스나紀念의뜻을表하기는하엿슴니다 發表한靑年運動의標語는靑年運動을推進시키는데는도움이되엿슴니다

一、勞働者와農民에게로가자
二、解放에必要한智識을갓자
三、○○○○○先鋒이되자
四、全鮮靑年은靑年總同盟의旗幟아래로
五、主義者는團合하라

以上과가튼標語等中에 몇재標語가 問題가되여一時에波瀾이잇섯슴니다 그리고 新興靑年同盟에서는 『新興靑年』이란雜誌를發刊하얏다가 不幸히發賣禁止의厄을當하얏슴니다 또大邱에서 第四靑年會가이러가서嶺南靑年運動上에 한異彩를發한것도附記할바입니다

지난해一年동안에行한바靑年運動을 槪觀하면 靑年運動이朝鮮靑年總同盟을 中心으로삼어가지고 그리고또衝動的이오殺伐的인氣分運動에서 버서나서計劃的이요 組織的인運動으로드러가는傾向을볼수잇게되엿슴니다 靑年黨大會를前後하야當時의靑年運動者는 思想的感激에날뛰며 오로지로만틱한理想社會의幻象을머리속에그리며資本主義 社會의現實生活에對하야 한갓呪咀만하고잇는사람이만히석기여잇섯슴니다 그리하야그運動이計劃이업시 隨時하야一時的發作行動으로만치는便이만엇스나 近來에는靑年運動의必要한智識을 가질것을 깁히늣기여 各地靑年會에서는淺民講習과勞働敎育이날로熾盛하며 少數의會員으로써結合된思想硏究會와 讀書會가 허일수업시族生함니다 또는靑年運動者들이小作組合과勞働者組合에드러가서 勞働階級의階級意識의譯化를促進케하는同時에靑年運動이다른나라의廣義의社會運動과가튼任務를行하고잇슴니다

朝鮮靑年運動은山上의轉한石과가티癸亥와甲子年山으에서언뜩아래로굴러나려가기시작햇슴니다한번굴르기시작한물은加速度로써아래로굴러버리고아마는性質을가진것과가티 靑年運動은사람들이『이러케되엿스면』「그케되지마럿스면』하는모든善惡의批判보다도엇더한必然의路를向하게될것입니다

日本無産政黨의

=側面觀=

辛日鎔

一、序論

優越階級의經濟上支配力을綜合、集中하야 組織化 制度化한것이곳 政治的權力의本質이다 이것은어떠도 階級對立이잇는 資本的經濟組織의配下에잇는現代國家의一般的特徵이라할것이다

거 오펜하이머-가定義한바와가티 『國家機關은 征服群이被征服群에게 課하는바法律制度이며 上層階級이下層階級의財産群을監督하는機關이다』 또『엥겔쓰』의 말한바와가티 『國家即 政治機關은 푸로레타리아에對한 색르조아의防禦組織이다』……

이러한意味에서오는날階級對立이잇는社會에잇서 階級鬪爭은必然的으로 政治的權力을中心으로 하고 演出되는것이다 階級鬪爭의目標가 經濟上利害關係에잇다하야 所謂直接經濟行動——同盟罷工、暴動、怠業等으로써階級의最善의手段方法을삼는것은 엇더한時期外지有效한手段方法이될는지알수업스나 이것으로써 最後의目標에外지到達하겟다고 밋는것은부즐업는妄信이아니면 아름다운空想일것이다 政治運動을全然히無視하는이탈리-生카리의勞働階級이 이것을實證하고잇지아니한가 저들은 現今反動的勢力의抑壓아래에서 오죽呻吟할뿐이아닌가거러어도푸로레타리아階級이한階級으로써成熟된社會에잇서서는 經濟上利益을取得하기爲하야는 運動을當然히政治化하지아니할수업는것이다 이러한見地에서 現今日本의無産階級運動이 從來에取해오든經濟的直接行動에서 一步를進하야 政治的運動으로 그方向을 轉換한것은 그時期가時期임을밋는同時에 社會進化의法則에依한進路를밟고또한資本主義가爛熟하야 階級的境界線이明確하게된것을反證함이라한다

二、歷史的背景

經濟關係가變革되야財産形態가相應한變革을兼하게되는것은우리가歷史上에서目覩한바事實이다 即原始社會로부터 封建社會에 封建社會로부터 近世的資本主義社會에 또한이資本主義的社會로부터 新社會形態로進化變革되는것을

그런데日本의社會가 封建的幕府時代를넘어明治維新이란變革을經한以來 近世的資本主義가長足의發展을 遂하게되는同時에 資本主義自體의缺陷에서因生한바 多數의無産階級을 達하게한것이事實이다 그런데이와가티過程에잇서서 新興階級이한階級으로써擡頭 하게된것은決코어倉捐의事態가아니다마는曲折과波瀾을經過하야온것이다 이제新興階級의그發達하여온자최를 잠간살펴보자

日本이 泰西文明을 輸入하든明治維新時期부터 歐洲에잇서서는 外資本主義文明이 爛熟한時期에達하는同時에 그必然의産物인社會主義運動이 또한熾盛하엿슷다

그럼으로日本이泰西文明을輸入하는同時에 社會民主主義의思想도아울러輸入하게 된것은自然의形勢이엇다

그런데 當時日本은 歐洲의文物制度를 盛히輸入하야舊制度文物에急進的改革을加하엿스나 閥族의餘勢가오히려 凌侮치못할者로써 萬般政務를料理하는狀態에 잇섯슴으로實狀新社會形態인 資本社會는活潑히自由發展을遂하지못하고 舊勢力에衡附하야 苟且히成長하여오다가 日淸 日露兩戰役을經한後 비로소政治的勢力을 正面으로大部分占奪하는同時에 一般社會의實勢力을完全히資本家의손으로掌握하게되엿다

日本資本主義가 이와가티發展을하게되는동안에 社會民主主에輸入된바 社會民主主義思想은 隆隆한新勢力下에 實로奄奄한氣息을保存함에不過하엿다 元來 思想은決코一時的現象으로써 價値나生命을逃하기수업는者이다 이社會民主思想은커加藤弘智氏民主思想宣布時代로부터 東洋社會黨或은德富蘇峰氏等의民友社『國民之友』의時代를經하야 明三十四年安幸部德木下 河上(清)片山等의社會民主黨時代의時期를經하고 更히赤旗事件、○○事件等이續發한後 反動的勢力아래에 다시寢沈치아니하면안되게되엿섯다 그리다가 世界大戰勃發結果

> ## 同情! 歡迎!
>
> 철학박사 리승만
>
> 재외모든동포는 조선일보의 새주인일동에게 대하야 무한한동정을표하며 귀신문이우리인민의 언론긔관이된것을크게환영합니다
>
> 우리의 성공은 인민단합에잇스며 인민의단합은 사상일치에달렷나니신문이인민의사상을 인도하기에유일한긔관임으로 우리목뎍을 속성하기에또한 유일한긔관이라 합니다귀사원일동이 이정신으로 이긔관을삽엇스즉 동일한목뎍을가진 모든언론긔관과 일데인민이 다 우리와가티환영하며 협조할지라 귀보의날로확장됨을 밋으며 간절이축하합니다
>
> (一九二四년十一월칠일)

未曾有의好景氣時代를際會한日本資本主義는 實로躍進的發展을見하게되엿다 그러나 이好景氣는大戰의終熄과가티이러한世界的恐慌의餘波는日本經濟界를容赦업시振盪하야더더서多數한失業者를生하고 極度의沈滯를招致하게된結果 이써것幼稚의域을脫치못하얏든勞働階級의自覺을促進케하는同時에 이와呼應하야이러난社會主義運動은非常히活潑하게되엿다그리하야鈴木藏生等의右傾勞働運動은또한大杉、和田等無政府主義運動이相當한發展을보게되엿고 堺、山川、荒畑 의맑쓰主義運動은그中에서도가장優勢로써 一般思想界를風靡하고말엇다

三、方向轉換期

우에말한바와가튼歷史的經路를밟어 今日에至한日本無產階級은從來의 取해오든바 單純한××的直接行動에서 方面을을一轉하야 政治的舞臺로 그勢力을集中하여가지고 勞働階級의利益을 새로운立法에依하야 積極的으로또는比較的漸進的으로 獲得할必要를切實히늣기고 이러나게되엿스니이것이곳無產階級의政黨組織運動이다 勿論이現象은겄어도 日本의政治史上에 新紀元인同時에 社會進化의新機軸인것이事實이다

그런데이제同政黨의 進出하라는 그方面과 및組織하는그根本精神은 果然그正鵠을得한것인가 이것은깁히注目하고考察하지아니하면안될問題이다

그러나아즉 同政黨의詳細한內容에至하야는 一一히指摘하야 論評하기不能한 일으로다만發表或은報道된範圍에서 大體로[illegible]가한다 여러가지에제論及되는範圍는 極히槪念的 汎論的에그칠것은勿論이다

傳하는바에依하면 同政黨은社會民主黨的綱領을標榜하는同時에 結束된基礎團體乃至人物은 右傾的團體 或은議會主義漸進主義의色彩가濃厚한 思想家、學者階級의人物을網羅하엿다한다

이것은現下日本의政治的 乃至社會的事情으로보아 可히免치못할事勢라가천다

元來社會運動의 初期에잇서서는 小數의先覺者 卽明確한階級意識을가진知識階級이 前衛가되여가지고 거의殉敎的으로運動을指導 組織하여나아가다가 엇더한時期卽勞働階級이階級으로서 自立할만한時機에至하야는 階級意識이明確한前衛分子가 比較的階級意識이朦朧한大衆과妥協하여가지고 새로운進路를取하게되는것이니 이것을곳運動의『方向轉換』이라고말할것이다 그런데 이方向轉換이라는것은 그러케單純하게解釋할것이아니다 거긔에여러가지危險性이付隨되는同時에 一般無產階級의 一層確乎한信念과覺悟를 要할바多多함은 贅言을不俟할바이다

四、方向轉換의危險性과妥當性

一般的으로 危險性을말하는사람가운데 가장만흔것은『右傾』이라한다 다시말하면無産階級運動이從來에取해오든 革命的直接進路를버리고 妥協的議會主義或은改良主義로墮落하는것이라 다 그러나 이것은 먼저도말한바와가티 足히取하기어려운바이다 一時的暴動으로써 奇興的勝利를爲하라는것은한忘想에不過한者이다 階級的組織과自律的統制와政策을必要로하는 大衆의巨大한利益을圖得함에는 一攫千金的意氣로서 到底히그究竟의目的을達하지못할것은更論할바이아닌가한다 따라서 經濟的關係의支配力을集約한바 權力을中心에두고 그權力의分解에用力하게되는것만큼 無產階級運動이그만큼大衆化組織化한것이라볼수잇는것이다 政治運動은 決코右傾하는墮落行動이아니다

그리고一步를讓하야政治運動을主眼으로삼는反面에는 너머議會를信賴하는議會主義運動으로化할憂慮가업지안타고하는사람이잇다 勿論이러한憂慮가잇다는것도一理가업슴은아니다아니라 차라리適切하엿다할는지도모르는바이다

그러나 이것을看破하고忘却하여서는안된다 妥協이업시는第二線에闖入할수가업다는事實을 엇지그러냐하면 먼저도말한바잇거니와 새로운立法에依하야 當面의緊急한問題를解決하기前에는 第二次的問題를解決할길이杜絕됨으로妥協에依하야 階級鬪爭을一層深刻化하게하는同時에 戰線을擴大하게되는것을 意味함이다 그럼으로吾人은議會를信賴하는反面에는非議會主義의成長이隱微中에서行하는것、라한다

要컨대 方面轉換問題의危險性과妥當性은 無產階級의信念의 問題와 態度에따러서決定될問題이다 다시말하면 危險性을마니가젓다는것은 日本無產階級이그만큼 自信이薄弱하고幼稚하다는것을말하는것이오 이와反對로 妥當性을把持하여가지고 能히當然한進路를그릇하지아니하겟다 또아니한다하는것은 그만큼 日本無產階級이成長하고 確固한것을表徵하는者이다

여긔에注意하지아니하면안될點은 議會그것을 全能으로밋느냐 안밋느냐 하는點일것이다 全能으로밋는것은 두말할것업시議會主義로의 墮落이다 그리고 一時的으로議會를通過하야 當面한緊急한問題를 解決함에굿친다면 이것은議會主義에對한勝利이다

오늘날日本無產階級이 政治運動을 비롯하게된것은 大衆의要求에依하야 過去의非妥協的行動을 犧牲으로하여가지고 새로운陣容을 整齊하야새로운態度를가지고 獲得의進路를取함에不過한것이다

이것을比하야말하면 놉혼層段을한層 두層밟어올라가는사람이 놉히올라가면올라갈사록 最下의階段과距離가머러지는동時에만일失足을하야 떠러지게되면 놉히올라갓스면 놉히올라갓슬사록 더모지게떠러질것이다 그러나 最下의階級이업다고 決코最下階級과 絶緣이되는것이아니오 또한 모지게떠러질것을 危懼하야 當然히밟어올라갈階段을올라가지아니할것도아니다

그리고 左傾을爲한左傾 卽階級的利害를 打算치아니하고散在的利益과一時的氣分으로써全階級的利益을擯斥하는것과一는運動은 沮喪하는것이라함수잇다 적어도 階級鬪爭이歷史의機軸을잡을것이라고 社會進化의方向을打開하는것이라고밋는사람의 取치아니할것임은勿論이다

五、結論

今日에呱呱의聲을 처음으로擧하야 注目한將來에 新興階級의新運命을 開拓하라는使命을띄인無產政黨은 政治權力의本質을 討檢하야 이것이 經濟關係의支配力의最高集約體인것을看破하고 여기에對應하기爲한必然의產物이다

그리고 오늘날成熟된勞働階級이 自階級의利益을達成하는機關으로써當然히要求할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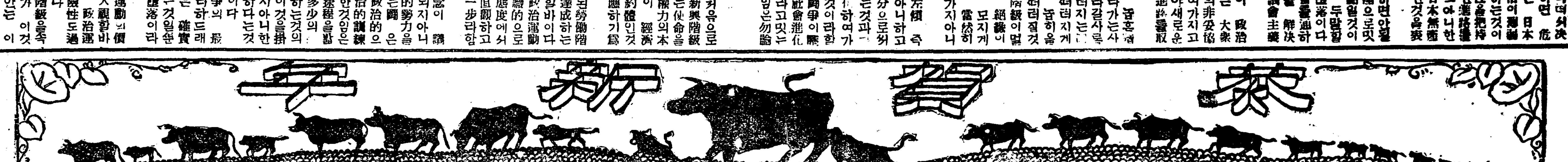
何如든 無產階級의政治運動은 自己의力量을無意識的으로라도過信하는 空想的態度에서一步를讓하야 現實을直觀하고積極的의策略的抗爭의第一步라함이妥當할것이다

經濟的行動에對한信念이 動搖되지아니하는範圍에서는 政治的努力을中心으로하야 演出되는鬪爭은無產階級으로하야금 政治的으로結果하는때 또한政治的訓練을加하는데잇서 有効한것임은勿論이려니와 이러한途程을밟어나아가는途中에서 多少의伍者 變節者를 產出하는것의損이잇다하드래도 이것을掛念하야 當然한길을밟지아니한다는것은 스사로幼稚하다는것을表明함에不過하는者이다

그러나 암만階級鬪爭의最高目標가政治的鬪爭이라하드래도政治를爲한政治運動은 確實히階級的利益을反噬하는것일뿐더러 小뿌르조아의墮落이라할수잇는 것이라

그럼으로 元來政治運動의價値를妥當性을 너무過大視함바이아니며 또한反對로 政治運動에서 因生되는 危險性도過少視하여서는안될바이다

日本無產政黨이 自階級을속이는政黨이되지아니할가 이것에 注目할것을 [illegible]라하지안는다



橫城郡橫城面邑上里 廣濟堂藥房 金龍在

橫城警察署員一同

橫城郡守 石明瑄

橫城金融組合 理事 橋口眞一

橫城郡橫城面邑下里 東信商店 主 申鉉玖

橫城郡橫城面邑上里 橫城醫院 公醫 盧基榮

橫城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橫城商業組合

橫城郡廳 職員一同

橫城郡橫城面邑下里 鍮物商 主 卓命洙

橫城郡橫城面邑下里 世一商會

橫城郡橫城面邑下里 李一成

橫城靑年會長 方顯榮

橫城郵便所 職員一同

橫城郡橫城面事務所 職員一同

橫城郡橫城面邑下里 東一商店

橫城郡橫城面邑上里 金永澤

橫城郡橫城面邑上里 秋秉王

橫城郡隅川面事務所 職員一同

橫城郡井谷面事務所 職員一同

橫城郡安興公立普通學校 訓導 崔利吉

仁川府寺町二四番地 海陸物產委託賣買 振興商會 主 洪鍾振

密陽郡學務主任 許宗大

三浪津 米穀並魚物商 朴在萬商店

三浪津 松原果樹園部 丁碩倫

馬山線洛東江下市場 綢緞布木雜貨 孫性玧商店

密陽郡內二洞 穀物貿易 朴章億商店

三浪津區內安台里 朴鳳緖

三浪津 姜弘奎

三浪津 代書業 金成濟

三浪津 米雜穀綿布商 趙亨植

三浪津洛東江市場 雜貨各種綿小賣 鈴木商店

馬山府元町 金元澤

三浪津驛前 運送共同組本店 大久保淸四郎

馬山線洛東江驛前 精米穀類委託賣買業 伊佐坂運送店

密陽城內 穀物 新昌商店 主 表文昊 電話二七番

密陽金融組合 監事 金泰文

密陽郡庶務課長 森芳介

馬山元町 姜啓三

馬山府元町 李基柱

馬山府元町 海産物委託買賣商 朴明克

馬山府元町 余大用

馬山魚市場 海產物貿易委託買賣運送業 明道烘 電話三三九番

馬山 李壽榮

馬山魚市場 海陸物產委託業務 韓元吉

結城面長 全在鎬

京城府本町二丁目京劇前 太平堂印刷所 電話本局二七一二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元鍾路) 各種綢緞 各種布木 直輸入商 崔潤錫商店 電話光五八九番

京城 株式取引市場 仲買人組合

京城本町二丁目 우쓰보야出版部 우쓰보야貿易部 電話本局二五二七番 振替京城二三三番

京城旭町二ノ六 印刷帳簿 犬養帳簿製造所 電話本局二二七九番

京城本町二丁目 田中時計店 電話本局二五七 一七二九番

京城南大門通二丁目 堀井謄寫堂出張所 電話本局四〇二番

京城府岡崎町 養成과供給 朝鮮自動車硏究所

京城鍾路二丁目 楠商店 電話光化門三九六番

京城花園町九七 染料原料專賣商 東華洋行 電話本局三九九二番

京城手形交換所 組合銀行

京城府本町一丁目 合資會社 山岸天佑堂

體育獎勵의抱負

톄육회를비롯한각단톄의 送舊迎新의所感

年來로朝鮮사람이 體育의必要를切實히늣기게된것은 무엇보다도깃분現狀이다 그리고朝鮮體育會를爲始로한 여러團體는 이깃분現狀을 잘끼導하고 더욱奬勵하기에 만흔힘을써와왓다 그네들은體育에對하야 엇더한抱負와 希望을가젓는가 또는 엇더한實績을보히엿는가 이를한번紹介함도 決코無益의일이아닐것을밋는바이다

歷代體育會長 의回顧와所感

體는「그릇」 『톄』가업고는 德智가無用

李商在氏談

第六回會長 李商在氏

나가는돐은이로하야금 靑年中에도덜덜뛰는靑年들이만히모힌體育會의長이되라함은 아모리老靑年인나로도 躊躇할바이엇슴으로 會長을곳辭免하엿든것이다 그러나老靑年도 靑年은靑年이라 運動을조와하며 참靑年들의씩씩한氣慨들을볼때에는 메우깃버한다 老靑年인이라! 온人類가이것을 시러하지안을것이다 人生의貴하다는德智體로말하드래도 體가업고는 德도德노릇을못할것이오 智도智노릇을못할것이다『體』는 德닥근智를담아두는『그릇』이다 그릇이든든하여야 담아둔것이安全할것이오 담아둔德、智가重하고 貴하며자라날수록 그것을담아둘『그릇』이

든든 하여야할것이다이려고보니體育이德智를爲한唯一의보배이다 換言하면아름다운智이나참다운德은體가完全히發育한後에야 비로소그眞價를 빗내일수잇다 過去의朝鮮은德으로부터智에向하야進步하엿다이제는體育을奬勵하지안으면아니될時期에이르럿다 이點에서體育의必要를 覺醒하는同時에 모름직이 새해부터더욱더욱씩씩한氣慨와健全한心志를涵養하기를바란다

名實이 서로맛게하라 네使命이크다

崔麟氏談

第五回會長 崔麟氏

朝鮮에體育會가創立된以來여러有志의盡力한結果로 比較的充實한好成績을어덧슴은事實이다 이러하게長成하엿스나 그러나 아직도創立이日淺한外닭에모든것이具體的으로 그完全한眞善의境에이르지못할것은 또한避치못할事實인同時에 적지안흔遺憾으로생각한다 새해를마즈려하는이때에 넷일을追憶하며 잇서서일층이『朝鮮體育會』인이만큼그名實이符合하게하도록힘쓰지아니하면아니될줄안다 그러며지금外지는全然그러하다는것이아니다 그러나나의삼한바는 보다도더充實하고보다도더完全한

名實 相合을意味하는것이다 적어도全國的으로團結된모임을만들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여러번의競技大會가잇섯스나 그것은一時的으로大會그때만運動을行하엿스며 이것이나마京城을가장중심으로하야 特殊한一部의網羅에 지나지못한늣김이不無하얏다 그럼으로體育會自體의根本的充實을 나는切實히부르짓는다 이것을고치자면各地方마다 支部나支會를設置하고 이것을모다網羅하야가지고·그統一機關을京城(假令)에든가中央에둘必要가잇다고나는생각한다 朝鮮靑年이一致團結하야 體育이라는것을 一時的의遊戲나 한때의消日거리로알지말고 적어도『朝鮮』一代의 健康이이에잇슴을覺醒하고 奮闘努力하기를바라는바이다 오즉새해에朝鮮의體育界를爲하야비는바는根本組織을

眞善 하게하는同時에더욱이外國의그것에比하야遜色이업게하기를힘써맛고비는바이다 一般運動界가發達된西洋各國의 놀다울만한그體育制度가決코單純한 한낮에된것이아니며 한때의遊戲나娛樂으로만알지안는데서그러케發達되것이다 『朝鮮體育會』!네일홈中에重하고大한무슨使命이잇슴을볼수가잇다 一般社會의有志와더부러 體育會에當局한實任者諸氏들은 모름직이 이重且大한時急의問題를 맛당히아름답게할줄밋고바라는바이다

靈의집인 톄육장려에 援助가必要

張斗鉉氏談

第一回會長 張斗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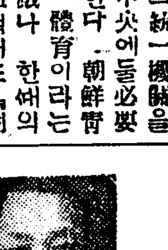
人生의사라가는데 업서서는아니될것이 여러가지이지는物마는 質에잇서서 衣食住인것과가티 또한精神에잇서서세가지가섯업서는아니될것이잇다 그것은곳智德體三育인것이다 이것은내말이아니지마는 나로말하라면 이것을뒤집어體智德이라고십다 그런데우리나라의古代에는 이세가지를分明히난호아기르지못하엿다 體育이나智育은잇섯다할지모르나 體育은어더보랴도어더볼수업섯다 그언제인가 三一運動의뒤를이어體育을一般社會的으로奬成하고某某有志사이에말이되아드되여『朝鮮體育會』는創立되얏다나로하야금이와가든意味深長한會의 長이되라고

力勸 을함으로 이에對하야는 한門外漢인내가 朝鮮民族의그릇을튼튼히하는體育을爲하야 얼마동안在任한것이다 在任한동안運動場의施設이나 하라고하얏스나 그도그러케되지는못하얏다 내가오로지힘을쓸수는 업지마는 어데까지든지도으라고한다 體育會가생긴以來 五六年이나되얏지만 아즉運動場하나도업슴은一般社會의援助가切實함을엇슴이라고생각한다 그後로組織된日本人의體育協會는 우리의것보다經費에넉넉하다 이번에라 極東「올림픽」이니 世界「올림픽」이니 하는곳에 그所謂朝鮮代表를選拔하야보낸다고 각금豫選大會를열지안는가 朝鮮의代表될우리가우리사람中에서選拔하야보내야될것이다 아즉이러한

選手 를내이지도못하얏스나 그賤勵는體育會使命의 하나일것이다 그러나經費問題가떠러생긴다 日本人의그것은總督府이니 府이니하는그當局에서 해마다多大한補助費를주며各日本人銀行이이것을도아준다 一言的으로말하면 우리는우리의것의充實을爲하야物質로精神으로援助를앗기지말며 그리하야 世界的으로選手를내이게하야 우리의일홈을날려야겟다

精神美를 발휘하도록 根底부터改革

朴昌夏氏談



第七回委員長 朴昌夏氏

내가지금朝鮮體育界의過去를顧하야新年을마즈려는이때에잇서서하고십흔말이잇다면山과갓고업다면아조업다고할만큼말하기가에單調롭지못하다 내가在任한 짧은동안體育會로서風波도업지안엇디 體育會안으로서도잇섯스며體育會의主催한大會에서도잇섯다 對內의圓滿치못한것은 오히려잘되기를爲한一時의意見衝突이라할수잇거니와 競技大會의進行中에이러한不祥事가잇슴은 實로 그대로看過할수업는 큰痛嘆인同時에 이것을根治식히지아니하면아니될것이다 이것을考察하건대 모든不祥事가全部精神美를

土臺 삼지아니한技術向上과優劣爭鬪에서 이러나는것을알수잇다精神美即『스폿스맨쉽』을等閑히하고 技術만을向上식히면식힐수록優劣을다토는데熱中하야지며이에따라鬪爭、紛爭等의不祥事를演出하는것이라고나는밋는다이리하야그結果는미워하고 시긔하고 속이는일이자거서 神聖한『스폿스맨쉽』涵養하랴는大會로하야금오히려亡하게하는일이往往잇서보인다 이로因한弊害를大會에參加한 어린小學校學生들에게까지 보히게됨은무엇보다도더욱寒心한일이다 이와가티 우리體育界의過去를도라보며압흘바라볼때에 나의다만밋고바라는바는 時代落伍의域을버서나 精神的으로自覺하야體育을爲한體育입을잇지말고 精神을爲한體育입을잇지안키를바라는바이다 또이方面에自己도힘쓰려하는바이다 이것이

眞正 한『스폿스맨쉽』의첫階段일줄로안다 그리고한가지나의意見을말하려하는바는從來小學生이外에는大會에社會팀을混合參加케함은過去에이러난일에삼허서極히避하게하얏스면조흘가한다 차라리專門學校팀으로參加케할이至當하다는생각이다 하나는오는새해부터는이두가지의改善을希望하야마지안는다

均衡的으로 자라게할방침 뜻깁흔運動

第八回委員長 李東植氏談

朝鮮體育界에잇서서 多事하든甲子年을 아모거동이업시 보내며새해를맛게되매 感慨가無量하다 이때를가름하야過去의追憶이업지도아니하며 將來의希望도업지아니하다 이것은사람의일이라避하지못할바어니와더욱이斯界의淺識한나로서一그任務가重且大한朝鮮體育會委員長에任하게되야日淺한나로서아직過去가엇더하며 將來에무엇무엇이 所望이라고實任잇게말할수도업다 그러나먼저말한바와가티過去의엇더엇더한것을고치며將來의새所望이엇더엇더라고말은못할지언정 이것이잇슴은事實이다 그럼으로過去의歷代功勳者의뒤를

밟아 널리우리의事情을參酌하야 힘써일할생이다 무릇朝鮮社會의現狀이그均衡을이두지못하야 모든方面으로不合理가아니면矛盾撞着이甚하야畸形的의變態로되야감은 우리의當하고잇는事實이다그리하야各方面으로 그完全을求하고저 저一三一運動의뒤를이어簇生한靑年運動 社會運動 教育運動等 이로해아릴수업시勃興하얏스며이와벗하야이體育會가創立되얏다 이와가티뜻기픈運動과더브러 이러난同會이라더욱이 그責任이重하고大한것은贅言을待할바이아니다 또同會가생긴以來 커윽이微忠을다하야 朝鮮社會 體育界에새로운功績이 잇슴도事實이다 그러나 體育會가一般社會에對한奉仕그反面에잇서야할一般社會의 對體育會

情熱 은 이와正히反하야甚히말하면一般社會는 朝鮮體育을 爲한體育會도沒理解하는感이不無하얏스며 全然體育界의重大한實任을體育會自體에만 맛기고度外視하는듯한 感이不無하얏다이리하야長足의進步를 그다지보지못하얏다고 나는밋는同時에압흐로새해부터는 一般社會의有志로더부러朝鮮社會의均衡的發展을爲하야 아니世界的朝鮮을爲하야 體育界를爲한體育會를사랑하며 도음을앗기지안키를기피바라는바이다

豫選制 새해부터는 實施할計劃

朝鮮體育會地方部 姜昌熙氏談

우리朝鮮體育會는아즉朝鮮體育界에對하야무슨큰貢獻도업섯고 또무슨成果도잇지못한터이지만 우리民衆의體育向上과普及을期하랴는큰使命을띄우고나온以上에는또歷代幹部의苦心努力한뒤를이어이로부터熟과誠으로將來에活躍하랴고한다 이러하면반듯이成果가잇스리라고自期한다 그러나우리의體育界가아직試驗期에잇다하야도過言이아니며따라周圍事情에모든困難을늣기는過程에잇슴으로一朝一夕에만흔希望과期待를채우기어려울것이다 우리는그러할수록한層더奮勵하야大勢에떠려짐이업기를企하야마지안는다 이제切實히바라는바는各地方에계신여러분이直接間接으로만히

連絡 을取하며또協助하야써從期以上의圓滿한發展을期하는바이다 이點에서本會에서는新年부터全朝鮮體育界의統一을促進하고地方運動을一層鼓吹하기에主力을傾하는同時에地方豫選을實現하게하기爲하야各地에豫選地를設定하고當該地方에는本會의支部를置하야相互의連絡을取하야一致한進展을圖하라한다

◇朝鮮體育會의第二三四回開會長으로在任한高元勳氏의經驗과抱負는내이지못하게됨은一般『펜』과함의遺憾한일이다(記者)

一般關係諸氏 의回顧와所感

理解하라 『스폿스맨쉽』을 唯一한發展策

京城基督教青年會 尹基昊氏談

나는 지금 새해를 마즘에 참으로 무엇이라고말할수업시 感慨가 떠오른다 사랑하는우리나라의運動界에 一言을하고저한다 그러나 이제競技의善不善을 말하고저 아니한다 다만『스폿스맨』으로서반듯이아니될競技精神에 오말을할가한다 모든運動이드러온지 年이되얏스나 아직까지 거의十數步가너무도遲延하고 그進步가업다 이제그原因을잠간생각하야보면 一般이아직『스포트』에對한 아모理解가업는줄로생각한다 다만『스포트』라하면 한遊戲物과가티보는傾向이 또는娛樂物과가티알며 아니라고아니할수업다 그原因이 또한『스폿스맨쉽』이全혀업는데서 이러나는일이라 할것이다 나라의運動界는 이러함으로우리

退步 하는狀態에잇다 例를들어보면 中學時代보다나어야할專門學校時代가 오히려中學時代보다 모든것이退步하야잇는것을 지금우리朝鮮社會現狀이證明한다 이리하고야 엇지 우리나라의運動界가 發展할 餘地가잇스랴!그原因은모다中學時代로부터모든競技를娛樂으로생각하는外닭으로 自然히그娛樂的心理가繼續하야 畢境에는退步하고마는것이다 이것은 모다『스포트』를理解하지못하는데因함이다 이럼으로『스포트』의道德이또한 생기지아니한다 最近우리나라의 여러團體의 運動競技大會에보면 모든選手는『스폿트맨쉽』에서아름답게다토지아니하고 다만 勝負에만 모드精神을 고 모든非行을만히하는것이往往히보인다나는이제 길게말하고저아니한다 다만바라는것은『스폿스맨』은이精神을自己의生命으로알고專心專力하지안으면아니될것이다 이리하야世界的으로일홈을 떨치기를바란다

品格論 이것을ㅅ처야 眞善美하다

朝鮮體育界主幹 鮮于銓氏談

나는朝鮮의體育界를爲하야甚히사랑하는 한사람이다 이럼으로이에對하야 이제過去에나라난事實에비초여보건대 朝鮮의『스폿스맨』는大槪가 品格의큰缺陷이잇서보인다 朝鮮과갓가운日本나라만보드라도 運動家이나選手의品格이 朝鮮의그것에比할바이아니다 大體로運動場에나타나는일이證明한다 적어도한運動場에서共同으로共樂을누리며 協力一致하여야할 運動選手가 이眞善의本旨를바리고오히려서로의이라하야 남을猜忌하고업수히녁이는일이 적지아니하다그리하야快樂하고 神聖하게하여야할 競技로하야금有終의美를내이지못함이往往잇다 이것이 모다남보다 나흐라고하는데서 이러나는因果이다우리는이것을고치는것이急先務일줄로안다 이點에서技術보다도 選手의品格向上이目下의急務이라고 나는생각한다

세가지 공개를바란다 一般을爲하야

朝鮮學生會執行委員 趙龜淳氏談

年代는記憶이잘되지안는다마는 十餘年前은京城市內에運動具店조차업슬지경이엇다 그러나오늘날우리의運動을볼때에는누구든지驚嘆하지안을수업다 이곳저곳에서이러나는體育熱은 이로그數를헤아릴수업게되얏다 그러나아즉까지그眞精神을理解함이적은듯하다 더욱이專門程度學生들은運動에對하야度外視하는感이不無하다(다그러라는것은아니지만)이에對하야나는其原因이中學校時代로부터運動이라는것을選手에限하야獎勵하엿고 다만競技者만養成하야自校의일홈을내이기에만專力한外닭이다 우리專門學校學生이運動을너무等閑히역인外닭에너무學生의氣分이업나고말하는이가잇다내가日本人學生의運動하는것을보고 우리의運動하는것을볼때에는 참못그러운點이만라 一九二四年봄에本會에서主催한陸上競技大會에서도日本人보다技術이不足한點이업지안엇다 그러나그後專門學校聯合庭球大會에는우리의技術이그보다優越하야結局月桂冠을어덧다 大會에마다紛爭이업게할것이며또새해로부터는朝鮮體育會에서主催하는大會에는一般觀覽者에게無料로公開할것이다 이것은다른것이아니라 듯건대經費의關係라한다 새해부터는公開할수잇게하도록研究하고 생각한다 女子運動競技大會等에男子의入場을拒絶함은不可하다 이것은男子에게公開하기를바라고이만큼 멈춘다

氷上競技에 對하야

李一生

나는 多期運動中가장盛行하는『스켓』에對한選手라는것보다 그運動을매우질기는사람中의하나이다그럼으로이글을쓸資格有無를不拘하고一般的으로『스켓』은엇더한것이라는것만을紹介하련다

× ×

『스켓』은무엇을일컬음이며엇더하게하는것인가 는

사람은 누구나다 알것이오 또모르는사람은 길게말하야紙上으로는아라듯기어렵겟지만첫재이『스켓』(Skate)에對한發音을 좀注意하야 分明히하기를바란다普通은『스겟』또는『스켓』또는『스켓트』라는말이들닐때마다 귀에거슬린다『스켓』은어름지치는器具인데 漢字로쓰면『滑氷器』라고할는지그리고多期의運動이文明한나라에서는勿論二三種四五種이아니지만其中에第一普遍的이고또는

簡單한 運動은『스켓』이第一이다朝鮮에서도『스켓』의輸入된지가數十年에至하얏지만一般的民衆運動이되기는十年內外가아닐가생각한다 내가이것을始作한지가四年間인데 每年에『스켓터』가增加됨을보고또는其技術이亦是每年느러감을볼수잇다겨울은動物에對하야蟄居期이다 찬바람이불고찬눈아래서모든것이陽春이다시오기만기다리고가만이잇서잠만자는때이다 그런데自然이맨드러노은畵幅가튼

어름우 에서線과圓을自由自在로그리면서 뎃그려지는것은 오즉사람에만 許諾한特權이아닌가생각하며깃버한다더구나다른사람들은치위와바람을견데지못하야 날의치움을咀呪하는듯이陽春을기다리나唯獨『스켓터』들은유리가튼어름우로찬바람을거슬러서 마음대로이리저리다니는것이 果然사람의特權이오 더욱피가설코 살어뛰는『스켓터』의特權이다 이러케말한다고『스켓』을하지아니하는이들업수이녁임은 아니다 그리고우리朝鮮은南鮮地方의

一部를 除하고는事實『스켓』에 適當하다 近來에學生間에(그밧게 學生以外에도)『스켓』熱이차차생기는것은 우리將來體育界에對하야 대단히조흔傾向이라고미드며깃버하는바이다 그리고이『스켓』에는大槪二部門으로區分이되여잇스니第一은『스피-드스켓』(速力滑氷)이오第二는『베규어스켓』(象形滑氷)이다 第一『스피-드스켓』은 速力을爲主하는것인데마치陸上競技에百米突이나二百米突競走와가튼것으로 이速力滑氷에使用하는『스켓』은칼날이좁고『날』을『알미니옴』으로만드러서 될수잇는대로 主量이가볍게만든것이다 從來朝鮮에서使用하는것은『베규어스켓』을흔히使用한다 『베규어스켓』에使用하는『스켓』은

우리가 흔히쓰는 것인데 勿論普通使用하는學生用이나練習用에不過하다 今年부터運動具商店에 『스피-드스켓』을(競技用이라는것)과는貌樣이다

特히『스피-드』를運動하는이에는 이것으로當하는것이조흘것이다 그리고 이『스켓』은다른運動보다 速키普及될可能性이잇는特色이 세가지가잇다이제그것을드러말하면

第一은運動器具가堅强하다다른野球蹴球庭球等에器具가얼마나費用이만히드는지는말하지아니하거니와『스켓』은五六圓만주고사면五六年以上을使用할수잇다

第二는相對者업시하는運動이다 다른運動은

器具가 整然히 準備되고 相對者가잇서야만할滋味가잇지마는『스켓』은언제던지혼자할수잇는運動이다

第三은너무過度하지아니함으로男女老少間에適當하다이點에서다른여러가지運動에比할바이아니다오히려『스켓』은女子運動에도第一適宜하다고생각한다舞踏의一種과가티優越함뿐아니라

藝術的 임으로 女子의運動으로는이以上더업다고생각한다

第四는다른모든運動이閉塞되는때에하는것이다 다른모든運動은눈이따우에덥히면못하게된다 그러나『스켓』이나또는『스키-』만은할수잇다

弊害防止하야서 東洋諸國의戰者가되기를懇切히바라는바이다 (一二、二一日別府溫泉場에서)

野球審判 資格에對하야

李源容

요사이여러가지競技가 猛烈히進步되는中에 野球熱이 極度로隆盛됨을따라서 全國各地에서大小團體의對抗競技나 大會가자조擧行되는것은 斯界를爲하야 大端히慶賀할바이다 그러나 間或 競技中에紛爭으로因하야競技가中止되거나 變하야 應援團의喧嘩亂鬪로因하야神聖한競技場은 二種의修羅場으로化하야바리는일이만히잇다 그러면 이過因이選手의精神修養의不足이나 或은應援團의訓鍊이不足하야 그러한것가트나 그보다도 더큰原因은競技를支配할만한審判官이不足한外닭이다

理論上 으로말하면審判官되라하는 사람이 規則에精通할것가트면 紛爭이나 其他의過失이업슬줄로생각하고 審判官을養成하랴고野球規則講習會를設置하라하는團體도잇섯스나그러나審判官은規則의精通한것으로만 滿足할것이안임으로 良好한結果를엇기어려울줄로 나는생각한다적어도競技를支配할만한精神即말하자면一刹那에起하는動作에對하야

李源容氏

正確한 明確한判決力을가진 果斷性이豊富한사람이 아니면아니될것이며 明白한音聲으로 宣告를敏捷히 나리며 完全한視力으로써選手의一擧手一投足이라도 輕率히看過치아니할

手生活時代에『스타플레이어』(Starplayer)로 名聲이藉藉하든

重鎭이 라 엇든사람이만 審判官의明確한判決은 選手의『파인플레이』보다도 競技의興味를더 한層도와주는것이다 우리野球界에도 野球技를 科學的으로研究하야技術을 向上케하랴면조흔選手의繼續出生을바라야할것은 말할必要도업거니와 조흔審判官이될資格이 具備한人格者를選手中에서 選出하야過渡時期에서 頻頻하든 紛爭의

世界競技收入 朝鮮의一千倍

世界野球選手權爭奪戰은一九二四年이第二十一回되는해이다 一九○三年에는八回競技에入場者는十萬四百二人에收入이十萬圓으로一回에約一萬三千圓이엇고同五年에는約二萬六千餘圓이엇스며同二十一年以後에는一回에二十萬圓以上에達하얏스며昨年選手權競技에는二百十餘萬圓에達하얏다고 朝鮮에서는體育會主催의大會가고작만하야千餘圓이엇다하니二千餘倍나되다入場者는一九○三年當時에는十萬二百四十八人이든것이一九二三年에는三十萬一千四百三十八人이나된다고、世界爭覇戰의한『게임』에 得點中만흔께가一九一○年의十點이엇다한다

蹴球의由來

山川生

蹴球가어데로부터 始作되얏스며엇더한變遷으로 그經路를지어今日에까지 이르럿는지 번알아볼必要가업지아니한다 무릇世界의文明은 東洋에서起源되지아니는것이업고 東洋이면中國에서始作되지아니는것이업는것과가티 蹴球도中國에서始作된것이다 約四千六百二十餘年黃帝時代에비롯되얏스며 그後로春秋時代와 戰國時代에는 複雜한 方法과規定으로 軍人들에게가르키든것이다 西洋에는二千餘年前되는希臘

羅馬時代 에始하야 十六七世紀頃에는 英國을中心으로하고 一定한規定아래에서盛行되얏스나 그러나아즉도 方法이亂暴하얏슴으로 一時는中止狀態에 이르럿섯다 그러나米國學校에서는 이것을갓다가 自意로規則을지어서 競技를하게되야 大端한不便을 感하얏슴으로 各學校에서는 委員을뽑아 一定한競技規律을定하야가지고 行하게되얏든것이다 그後부터英國에서는『아』式蹴球를그나라의國技로하야 매우重하게녁이게되얏슴으로 老幼와貴賤을勿論하고 英國人이면모다 이競技를理解하지못하는사람이업게되얏스며 이웃나라인佛國外지도傳하고마랏다

對抗競技 는 距今五十三年前西曆一千八百七十二年에『잉글란드』와『스캇트랜드』와의競技가 始祖되야 國民을熱狂케한後로 至今外지繼續進行되며 또發達되야온다 이와가티英國人은이것을가지고 移住하야가는곳마다 이것을傳하야 盛行하게한다 歐洲大戰亂時代에 戰地에잇는兵士에게慰問品을보낼때에도 蹴球를보낸일이 만타한다 이것을보아도 얼마나蹴球熱이膨脹한지는알수잇다 이것이日本에오기는距今四十餘年前의일이며

우리나라 에 드러오기는甲午年後 英國軍艦이派遣되야잇는동안 英國人學校에서英氏를教師로任用한때부터始作이되야 靑年會、漢城高等學校、普成、培材等 各學校에서도始作하얏다 그러나 그競技方法은規定업시門(골)들만세워노코 함부로찻(蹴)든것이다 그러나 저三一運動의뒤를따라 생긴體育會가잇서 一定한規律아래着着進行하게되얏스며또向上하고發達하야가는途程에잇다 우리民族의 體格欠陷과競技의精神을 涵養하라면實用이적고 方法이簡便한 이蹴球부터獎勵하기를바라고긋친다 (宣川信聖校에서)

濠洲女選手 『데비스』에出戰

一九二五年에擧行한『데비스컵』爭覇戰에出場할濠洲팀의『멤버』에는『오하라、우드』氏와同夫人도잇다는데 夫人은相當한選手로서『밋키스트、떠블』에도出場한다고

體育界의回顧

◇朝鮮體育會主催◇

諸大會○盛衰縮圖

◇野球◇

	第一回 1920	第二回 1921	第三回 1922	第四回 1923	第五回 1924
小學團					仁川普、攻玉普、協成普
(優)					仁川普
中學團參加팀	儆新校、徽文、培材、中央	徽文、儆新、中央、五山	徽文、啓聖、培材、崇實、松高、五山、儆新、中央	培材、徽文、中央校、五山、青年舘	徽文、培材、中央
(優)	培材	徽文	培材	徽文	培材
青年團參加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邱青、世醫專、[illegible]
(優)	全培材	牛島俱	中央體	中央體	大邱青

◇蹴球◇

	第二回 1922	第三回 1922	第四回 1923	第五回 1924
小學團參加팀			光成普通、普成初等、興仁、培材、輔仁學校、勝洞基督、壽松公普、新明學校	永興公普、壽松公普、崇德普通、齋洞公普、光成普通
(優)			光成普通	光成普通
中學團參加팀	啓聖中學、平壤崇實、崇德學校、儆新學校、徽文高普、普成高普、中央高普、平壤光成	東光學校、崇德學校、平壤崇實、啓聖中學、普成高普、青年學館、群山永明、儆新學校、徽文高普、培材高普、中央高普	中央高普、徽文高普、群山永明、咸興永生、培材高普、定州五山、平壤崇實、光成高普	培材高普、培材學堂、光成高普、平壤高普、咸興永生、徽文高普、中央高普、高敞高普、定州五山、協成學校、普成高普、徽新學校
(優)	徽文高普	徽文高普	培材高普	培材高普
青年團參加팀	[illegible]	[illegible]	佛教青年、[illegible]、漢陽體育、大華三省、大華青年	健康運動、佛教青年、[illegible]、修養團、普成專門
(優)	平壤戊午	佛教青年	佛教青年	健康運動

◇庭球◇

	第一回 1921	第二回 1922	第三回 1923	第四回 1924
小學參加팀			宣川公普、第一松普、普成初等、鎭南浦普、仁峴公普、第二松普	宣川公普、第二松普、梅洞公普、仁峴公普
(優)			宣川公普	宣川公普
中學參加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徽文高普、松都高普、培材高普、[illegible]、南大門商、平壤高普
(優)	松都高普	松都高普	徽文高普	松都高普
青年參加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優)	金剛團	金剛團	金剛團	太陽俱樂

京城鍾路四丁目五一 綢緞布木商 方泰卿 電話光化門二二八 振替京城四九六五

京城鍾路三丁目七八 廣學書舖 振替口座京城八一六

京城府鍾路二丁目七七番地 各國流行 眼鏡時計 專門商 明眼堂本店 主 張熙元 電話光化門一二三〇 振替京城七一八四番

洋服機械 同附屬品 洋襪製造 各種染料 都散賣商 京城內資洞一三 李政儀 振替京城一〇九〇九

京城鍾路二丁目一四番地 歐米帽子 學生帽子專門 메리야쓰 洋傘專門 鍾路商會 高麗洋行 電話光化門一一八七番 振替京城三九六一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 金潤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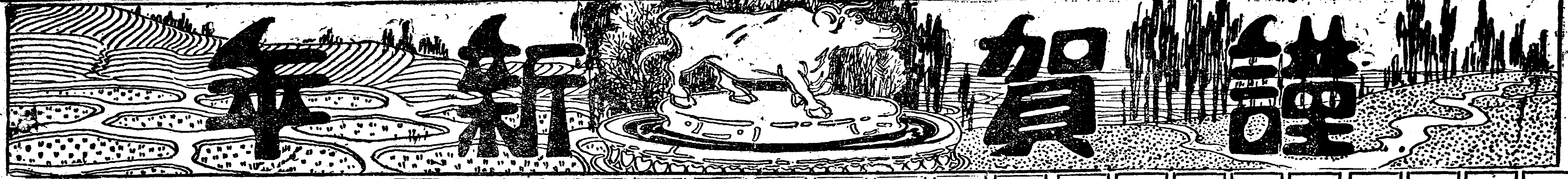
京城蓬萊町一丁目八八番地 合資會社 朝鮮護謨工業所 社長 朴永根 電話本局一六一七 振替京城七五七一

京城府公平洞七三 大成食堂 電話光化門七五四

京城府崇仁洞二二六 各種毛皮物及 滿蒙貿易商 東明商會 主 吳明燮 電話光化門一三六七

京城府仁寺洞二百四番地鍾路里門內 活命液及 各種賣藥 製造發賣 本舖 再生堂大藥房 振替京城四七五八番 電話(サイ)ㅅ는(재)

京城府鍾路二丁目四一番地 東洋洗濯及 染色帽子業 京城洗濯舍 主 張永根



錦山邑內 朴贊文

錦山郡錦山面中島里 朴恩赫

錦山邑內 金聖佑

錦山郡市場 綢緞布木雜貨 洪奉春

錦山邑內 朴天表

錦山邑內 鄭海斗

秋富面泉光里 全海元

全北錦山邑內 金濟憲

錦山郡濟原面濟原里 振興會

錦山邑內 李輔冕

錦山邑內 韓喆淙

錦山邑內 金顯相

錦山邑內 金永根

錦山錦山面中島里 鄭在國

錦山面上玉里 任良星

錦山光東醫院 梁錫鎭

錦山蔘業組合

錦山邑內 金泰浩

錦山邑內 金憲植

錦山邑內 金善昌

洪原郡龍源面源東里 龍源釀酒所 主任 金圭河

洪原郡龍源面中洞里 學校評議員 金周洛

洪原郡龍源面東村里 韓俊鍵

滿鐵靈武驛 川島一郎

洪原警察署 警部 趙鋼勳

洪原郡 希賢漁業釀酒所一同

洪原郡邑內 雜商 成生和

洪原龍雲面門中上里 學校評議員 朴在鏞

洪原郡好賢面直洞里 學校評議員 姜錫鏞

咸南洪原邑 最新式流行服 並附屬品販賣 日新洋服店 主 姜錫珉

洪原郡 龍雲面事務所 面長 金鼎浚 會計員 金元協 書記 朴潤鋼 技手 韓熙周 書記 嚴浩達 同 申淵淏

洪原郡邑內南門通 生曲 熟曲 小麯 朴景龍曲子部 電話八番

洪原郡 好賢面事務所 面長 鄭吳列 會計員 朴在琳 書記 金壽鍊 同 崔炳鐘 同 沈啓德

洪原郡 希賢面事務所 面長 李根涉 會計員 李□河 書記 李□奎 同 朴有健 同 朴成奎

洪原郡 鶴泉面事務所 面長 金基協 會計員 姜鏞桓 書記 林述湜 同 洪亨義 同 姜審求

洪原郡廳 職員一同

洪原警察署 署長 大和田勘彌

洪原郡 龍源面事務所 面長 洪性信 會計員 陳信源 書記 金鋼儀 同 姜昇俊 同 韓忠楨

洪原郡 龍川面事務所 面長 朴林洙 會計員 李柱凡 書記 金姜浹 同 金鎭基 同 全敬昌

洪原郡 私立鶴泉普通學校 敎員 金聰燮 同 韓秉? 同 姜吉求 同 康□□

洪原郡 私立龍雲普通學校 敎員 金暎燮 同 白泳信 同 眞永龍 同 金喆鎭

洪原郡 龍源公立普通學校 崔舜河 金啓龍 邵明鐵 李泰□ 朱洛□ 朴泳□

洪原郡鶴泉面鶴山里 面協議員 郭吉鏞

洪原郡鶴泉警察官駐在所 名取直衛 孫舜昌 李英□

洪原郡 龍源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洪原郡 西湖警察官駐在所 渡邊尚雄 金榮俊 徐正賢

洪原郡靈武市 靈武繁榮會長 申彦翊

咸鏡線靈武驛前 海陸物産運送取扱 ㊂三星運送店 主任 申彦進

咸鏡線靈武驛前 鐵道貨物取扱 雜貨商 ㊍運送店 木元喜藏商店

北靑郡新浦面蔵坪里(松內) 新興釀酒所 洪命義

咸鏡線靈武驛前 鐵道荷物取扱㊌ 北鮮運送店 主任 申彦翊 申仁賢 尹東國

靈武郵便所長 陳炯澈 事務員 朴秉基

咸鏡線前津驛 職員一同

洪原郡鶴泉面鶴山里 郭君沁

洪原郡鶴泉面壯南里 實業家 金熙龜

洪原郡鶴泉面壯南里 道評議員 金亨根

洪原郡 天道教宗理院

咸鏡線前津驛前 海陸運輸㊄ 共同運送支店 主任 鄭奎昌

洪原郡州翼面富興里 學務委員 李永善

洪原郡邑內 雜商 洪成興

咸鏡線靈武驛前 靈武海關局 主任 金文尙

洪原郡龍源面□洞里 徐□鍾

平壤府鹽店里 中央齒科醫院 電話九一七番

平壤府新倉里(電車終點) 海東醫院

平壤府廳 職員一同

平壤府鐵貨里五十番地 箕城劵番 電話六五九番

平壤府倉田里一八〇番 辯護士 文鳳儀

平壤府南門通二丁目八三 理髮器具 化粧品一式 直輸入販賣 雲龍商店 電話九三一番 振替九〇九八

平壤 光成高等普通學校

平壤府巡營里三番地 綢緞布木商 鄭基恒

平壤專賣支局 職員一同

平壤府里門里八五番地 廣田本店 電話一四六番

平壤郵便局 職員一同

平壤 大同江고무工場

平壤電氣株式會社 職員一同

平壤紀笏病院 姜海龍

平安南道廳 食堂一同

洪原郡 希賢公立普通學校 校長 山口春□ 訓導 金元明 同 弘□

洪原郡 希賢警察官駐在所 鈴木正之輔 田中□ 森□

平壤府鹽店里二二番地 穀物斗量組合 電話九五四番

平壤府館後里 私立箕明學校 校長 金聖學

平壤府將別里八四番地 世昌織造商會 主 朴台弘 電話長一一七一番 振替二〇五一番

平壤府磚九里 東明旅館 主 金善基

平壤府司倉公設市場(第八號) 金泰興商店

平壤府館後里八〇番地 李秉俊商店

平壤府南門町 平壤寫眞館 主 金裕昌

平壤府磚九里四四番地 中央精米所 電話七八四番

平壤府大察里 平壤製油工社 主 崔鎭鋪 電話九三五番 振替京城一二七五五

平壤府西門通 東洋精米所 長電一〇二一番

平壤朝鮮旅館 主 申來乙

平壤府下水口里 朝鮮染織合名會社 電話一二四六番

平壤府水玉里六十八番地 東陽旅館 電話一二六七番

平壤府黃金町停車場通 大同製車工場 主 朴承珀

平壤府橋口町五四番地 牛骨牛油阿膠製造 貿易商 昌成商會 主 李道敎 電話八二八番

平壤府水玉里 西鮮旅館 電話一二八六番

平壤府將別里六六番地 各種織造洋襪工場 大同洋襪織造所 主 李昌淵 電話一二五二番

平壤府本町四十番地 疾病預防研究所 實費院 院長 盧麟奎

平壤府驛通 最新式洋服類及附屬品 諸官衙及滿鐵御用達 平順洋服店 主 李亨根 電話一〇二四番

朝鮮水鐵釜鼎各種農具 洋釜鼎及이全部가金鐘으로製作 販賣一切 平壤府橋口町五六番地 東洋鑄物工場 工場長 電話八一三番 本店長 電話二〇三番 電略(トウ)

平壤驛前 西京旅館 電話一〇〇一番

平壤府南門町四丁目 進興書館 主 成樂河 電話九六六番

平壤府上水口里一二三番地 實用洋襪織造專門販賣商 新成洋襪工場 主 朴仁寬

平壤法橋局分補 金鏞哲

平壤上需里二四四番地 絹織物製造販賣 大同染織所 主 黃龜淵

平壤下水口里一〇八番地 洋襪織造及スリッパ染色業 平和洋襪所

平壤府鈫貨里一四〇番地 金承第代書所

平壤府鷄里二二番地 法權局 金能九

平壤府停車場通(地方法院前) 各種印刷 和洋紙並文房具 三光社印刷所 主 金延燦 電話三二一番

平壤府南門町五番地 綢緞洋服各種 東昌織造工場 主 金庸鎰

平壤府西門通 普成社印刷所

平壤府七星門外 平和醫院 院長 康秉鉉

平壤府七星門外箕林郵便所 所長 吳世昌

平壤府將別里二四九番地 東星染工所 主 楊道命

平壤府鍾路通 三正寫眞館 主 徐淳三

平壤府上需里一〇九番地 實用洋襪各種織造機械及附屬品染料直輸入御賣商 昌信洋襪工場 振替京城一三三九三番 電略(シヨウ)又ハ(창)

平壤府上水口一五壹番地 實用洋襪各種織造販賣 東昌洋襪所 主 崔得尙

平壤 萬貨商會

平壤府南町二六番地 太陽旅館 主 車淳文

平壤府瓢町 鮮人貸座組合一同

平壤府陸路里 勞働大會平壤支會

平壤府薛岩里 普和醫院 院長 李鍾熙 電話一二六九番

平壤府慈山醫院 院長 金允煜 電話七六二番

平壤府新倉里一三七番地 新興理髮館 主 金禹鼎

平壤府港町 新又精米所 主 鄭吉鉉 電話二二六四番

平壤府鈫貨里六二番地 辯護士 辯理士 韓根祖 電話一一八四番

平壤府館後里一七八番地 辯護士 朴應茂

平壤府眞香里五八番地 辯護士 尹同植 電話一二四七番

平壤府七星門外 箕林養蜂園 主 金□□

平壤 大同學院 院長 金龍□ 敎員 金元貞 康成永 崔□玉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品質優良價格低廉 修繕精密迅速酬應 各國時計眼鏡貴金屬附屬品 一式直輸入販賣元 金昌時計店 主 金昌燾

平壤府水玉里五一番地 正昌護謨商會 電話四八六番 工場橋口町八番地 電話九四七番

平壤府里門里三十一番地 大同門勞働組合

平壤府大同門通 喜生醫院 院長 邊麟奇 電話四一九番

平壤府下水口里二五二番地 平安製油所 主 金成奉

平壤府貨鈫町五六番地 平安印刷所 主任 任志淳

平壤府鍾路 中信組合

平壤府竹興里 金建亨

平壤府館後里十六番地 光明書館 主 金□□ 電話一〇八番 振替京城六四三二番

平壤府鐵貨里一四九 日出商店 電話三二一番

平壤府大察里一二二番地 西鮮 防水雨衣工場 主 金光謙

平壤府 私立崇仁學校

平壤 私立崇德學校

平壤府壚店里七二番地 泰興釀酒部 主 金德潤 主務 朴昌汶

平壤府將別里三六(西門거리) 養氣術治療院 哲學士 生理學士 金明鎬

平壤府旭町二三番地 金融組合指定帳簿製造所 興善帳簿製造所 主 尹興善

平壤府內官公立中等學校長一同

平壤府南門町(電車停留場前) 印章彫刻 竹梧堂 主 田鳳煥

平壤刑務所 職員一同

大同郡職員一同

平壤府西門通 福田洋行 金德成

平壤鍾路 洋鐵細工所 主 白仁哲

平壤府鍾路大同門通(電車停留場前) 名刺印刷部 印章彫刻部 鮮元堂 主 安成燦

平壤府薛岩里八番ノ一 天道教宗理院

平壤府館後里六一番地 辯護士 金亨淑 電話一〇四九番

平壤 慈惠醫院

平壤府館後里 平壤齒科醫院 齒科醫師 韓□□ 齒科醫師 □□□

順天醫院 醫士 康秉鈺

醫士 孫壽卿

平壤鍾路 光山洋靴店

平壤府水玉里九二 少年世界社 電話四八一 振替京城一三九一八番

平壤鍾路濟衆醫院 愛知醫學士 金秉瑞

平壤鍾路 金銀細工 三角商會

平壤鍾路 吳泳鎬商店

平壤府鷄里三十番地 隆盛洋靴店 主 金尙河

平壤上需里 三正化學工業社 主 楊濟七

平壤府壇店里 蔡元燦

大同門通同信商會 金冕周

平壤府鍾路 煙草專門 平安金銀商會

平壤府新倉里 紙物委託 成惠商會 崔應厚 □永禧

平壤綢緞布木商組合 組合長 崔龍勳

平壤府外西城里 平安고무工場 電話長一〇七二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同工場總販賣所 電話長一一〇四 振替京城一三四七八

平壤府南門通二丁目 東西洋皮革靴原料一切 附屬品直輸入式販賣 共信皮革店 電話一一九〇 振替京城七六六九〇

平壤府薛岩里六七番地 普天教平南眞正院

平壤府西門外 大同고무工業所 電話二三七七 同工場總販賣所 電話九 振替京城一三〇四二九六

特約品目 アクナノ印底革 鳳凰印底革 山陽印クローム革 ライオン印帆布 センチユリ印キツト革 スタンダート印キツト革 PL印キツト革 3R印靴クリーム 和洋皮革靴鞄原料附屬品直輸入卸商 大昌皮革店 平壤鍾路 電話一二五九番

平壤府敍貨里一六番地 米穀棉花 海産物委託貿易 白山物産商會 電話四九一番 振替京城一七八四

平壤 北金融組合

平壤府新倉里三一 平壤館 管理人 安重宣 電話一二二〇番

崇實大學校 崇實中學校

平壤府南門通二丁目 大陸고무特約店 全丑洋襪製造元 信光社 平壤府南門通四丁目 信光社分店

平壤府西門通 朴在玹商店

平壤府新昌里一六〇番地 乾玉堂印刷所

平壤府南門通二丁目 世韶商店 電話一二、一五三番

平壤府西門通 建築請負 建築材料 東西家具 三成商工社 電話長一〇七〇 振替京城九六四四

平壤府水玉里三八 辯護士 金志健 長電一一四五番

平壤府南門通二丁目 高級活動寫眞常設 第一館 電四二〇番

平壤府敍貨里 基督教青年會 電話一一〇六番

平壤府鍾路 合資會社 義昌商會 電話六四二番

水晶ゴム各種印材印肉 水晶ゴム印材料 スタンプインキ 彫刻刃具各種附屬品卸賣 朝鮮平壤府鍾路 壽星堂印鋪 主 安□□ 電話四六四番

朝鮮日報

新年號 其三

보라! 새조선의새거름

◇경성안에잇는열두곳큰단톄의
◇금년에하랴는일하고자하는일

◇죽은듯잠잠하든우리들에게도 「우리도살어보자」하는부르지즘이한번이러난이후로, 우리겨레의살랴하는운동은, 시시각각으로형형색색의수단으로운동에서서예서남에서북에서, 봉화불가티이러나게되얏고, 이를따라우리의생활은날로새길을향하야나아가는것은우리의눈에현저히보이는일이오우리스사로가이현상을볼때에도은근히깃붐을금할수가업는일이무

◇그러나, 우리는다시한번뎡정한눈으로우리의거름거리를살핌에에, 우리들은누구나「아즉도멀엇다!」하는늦김을금할수업슬것이다, 그러타, 우리의거름는이제야비롯비롯것기시작하는어린애와갓다, 아즉도퍽도가로원하다, 그러나우리는조금ㄷ 락심할것은업다

◇이제만약「어린애의거름」을보고그아이를위하야락심하는자가잇다하면, 그는런치가아니면바보일것이아닌가, 우리는그아이의거름거리에무한한용기감이잇슴을볼때에도로혀백배의용긔를어들수잇는것이다이와가티하야우리의거름은차차가랄것이오따라서우리의살림도날과가티될것은의심업는일이다

◇보아라!동포여!우리는우리의거름을더신할만한경성안의열두단톄에향하야「새해에하랴하는일, 하고자하는일」을물엇다, 그네들은서슴지안코그들의거름거리에대한분명한대답을하엿다, 우리는새해첫아츰에만텬하독자에게이와가튼조흔인사를드리는것을더할업는영광으로알고자한다

勞農總同盟
組合運動
소작문데해결 權五卨氏談

우리로농총동맹에대하야 무르시니말슴이 올시다 지난해사월에창립한후 하고싶흔일도 만혓스며 욕하지 아니하면 아니될일도 한두가지가 아니엇슴니다 그러나 한가지이러타고 할만한일은 하야노흔것이 업슴니다이것은이른바 간부된 저의들의민첩지못하며,일에 대한능률이업는허물도 업지아니합니다 만은모든것에 입의룸지못한 우리이니가 또할수가업서요 참발로긔가막힙니다

지나간일 이야엇지되얏던지 새해부터는 모든것이혁신할긔를 뛰우고자 미스럽게 나아갈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대새로진행할사업은 오는사월 뎡긔대회에서 구톄안으로 표시되겟습으로이제 그자세한것은 아즉다말할수업습니다만은 나는 이러케생각합니다 첫재로 로동조합(勞働組合)과농민조합 (農民組合)을만히만들어야 하겟습니다 그리하야 조선각도가 모다전라남도등디와 가티단테가 만히생기도록 힘쓰어야하겟습니다 그다음동양

텩식회사 에대한문데가여간 크지아니한문데 올시다작년가을에 황해도를 비롯하야조선각디에서 일어난 소작쟁의중큰사건은 거의다동텩과 관계되는것이요 그리고본즉 이문데에대하야 적극뎍으로 방침을취치아니하면 아니되겟슴니다 또그다음으로 총동맹에서 일어나는것은일이나 큰일이나 세포단톄에서생기는 모든사정을 민활히서로알게하며 내외 운동상항을잘팔리기위하야 물가불 과관지를발간하도록힘쓰랴합니다

物産奬勵會
觀念運動
사상부터선뎐 兪星濬氏談

물산장려운동을 이르킨 이래로일시는 전국뎍으로 청건도조앗스나그것도 일시뎍 현상에지나지못하고 마랏슴니다일생을두고— 아니이세상이 웃나는날짜지 실행을하지아니하면 아니될자작자급의「물산장려 운동이이가티 일시뎍류행으로 웃이나버린것이 누구의죄이겟슴니까? 뭇그러운날슴이나

조선사람 은아죽자긔가엇더케사는가 하는경제뎍 관념이적슴니다 자긔가 국산품을쓰면 그나라가 엇더케되고남의물건을쓰면 엇지되는가를 돈연히모르는것가트며더우히국산장려의금청봉이되며중권이될일반부녀계에서는아조캄캄합니다이가티 갑갑한곳에서 물산장려운동을이르킨것은 참으로 힘준한압길을 긔약치안은것은 아니나너무나모든긔려는애어지고마랏슴니다 처음에는 경륜도잇섯고계획도잇섯스며 이러한일을하자는결의도잇섯고 이러케 하얏스면조켓다는마음도잇섯스나이제는고만 모ㅣ도피폐되고 마랏슴니다 아즉도경제뎍으로

눈을뜨지 못한조선에서물산장려 운동은더무나 읽슴니다그러냣가 무엇보다도 먼저조선사람은 조선것으로만 살어야한다 남의물건만사드리면 조선은천천 가난하야가서 나종에는무서운 최후가온다ㅣ하는 사상을항상식히는 보급운동을 실행하여야하겟습니다 그럼으로압흐로는 위선물산장려 운동을이르키는건데로「조선사람조선것」이라는 관념들이천만동포의머리에다가 깁히깁히 너어주는것이 가장밧두한급무인가함니다

女性同友會
讀書、講演
선뎐과회원모집 朴元熙女史談

녀성동우회에서 새해에 하랴는일은별로 구테뎍으로 결뎡된것은업슴니다만은커개인의의견으로말슴하오면 다음과 가틈니다 첫재로본회는 회원수효가 그리만치못합니다 물론우리 커디에잇서서 회원들만히 모흔다는일이대단히 어려운일인출은압니다만은그래도 새해에는 힘자라는데까지회원을 금년만히 모집하기애로력코저 하오며 다음으로는독서회(讀書會)와 연구회(研究會)가튼 교양긔관(敎養機關)을두어일반 부인에게 교양의긔회를주고또 힘만자라면 과관지발행(機關紙發行) 순회강연(巡廻講演)강연회 (講演會)등방법으로무산 녀성해방 운동 (無産女性解放運動)의선뎐과 진힌에더욱진력코저 함니다

天道教青年黨
地上天國
주의를선뎐 朴來弘氏談

우리텬도교청년당 (天道教靑年黨)의주의정신은 본래따우에텬당을건설하자는것이며 또는인류는 인류가구원하여야 된다는것임으로 이정신과이주의에 순응되는사업이면 언제든지 하랴함니다 지금에잇서서 새해에할일을특별히 결뎡이나혹은 계획한것은 별로업습니다 되도록새해부터는 우리청년당의주의와 정신을더욱렬뎌히 관철하로록하기위하야, 여러가지로 강구하는중인데 그중거의확뎡뎍으로 결뎡된것은탑츠레트「가튼것을발행하야 일반당원에게배부하야 더욱더욱주의와 정신을 관렬하며수양하도록하랴 는것이외다그외에미리결뎡혹은계획한것은별로업습니다

青年總同盟
青年大會
방향뎐환운동 任鳳淳氏談

청년총동맹에서 새해에 하고자하는일은 만히잇슴니다 그러나우리의복안(腹案)중에잇는것은아즉말슴할필요가업슴으로구톄뎍(具體的)으로의원회에서결뎡된 멧가지만 말슴코저합니다

첫재로 우리총동맹에서는 명춘을긔약하야전국 각중요디대(重要地帶)에 청년대회(靑年大會)를개최할야고 함니다이청년대회는 청년운동의 방향뎐환(方向轉換)에적지아니한의의(意義)가잇슬줄로 밋슴니다 그리하야 조선각샵삼도 중요한도회처에마다 이를열고저 하는것인데 이미그준비에착수한곳도 적지아니함니다

다음에 하랴하는일은디방순회강연(地方巡廻講演)이올시다 이디방순회강연도 명춘부터곳착수코저합니다

셋재로 우리가하랴하는것은 긔관지발행(機關紙發行)임니다 현재사회운동에 잇서서가장중요한임무(任務)를가진바긔관지발행을우리총동맹에서도금년에는꼭실행하려합니다

도라다 보매지나간갑자일년은 실로다사다단한 일년이엇든동시에 우리에게 잇서서는실로어려웁게 고생으로 지내인일년이엇섯슴니다 당국은 우리의행하는바 모든집회를 금지하엿슴니다 심지어위원회까지 금지하엿지오 그러나 우리는이중에잇서서도 우리의 입무를뒤하야일하며왓슴니다 새해를당하야우리는더욱우리의밋는바를향하야 힘잇는데까지 로력하고 합니다

女子教育協會
일은만타
네가지의할일 金美理士女史談

비록새해뿐 아니라 나는평소에하고저하는 바와하려고 하는것이부지기 수올시다 근본뎍으로녀자의 해방운동도 하여야하겟고녀자의 교육긔관을 좀든든히만드러서 배호고자하는 녀자는누구던지 다바더서 가르치게하도록하여야할줄압니다조선의

교육긔관 은잠으로범위가좁습니다 소위보통학교와 고등보통학교에를 입학하려 하야도벼슬하기보다도 더힘이 들고그것을 졸업하고 컨문뎍으로무엇을 좀더연구하려는 사람에게는 아모다른긔관이 업슴니다그뿐만아니라 학령(學齡)이 지나서 학교에입학지못할 새악씨를위하야 가르칠긔관이 부족함니다 비록몃군데 잇다하나교실이좁고 선생이 부족하고그불완전한 말이야 엇지다하겟소여려방면의녀자들을 위하야각각 충분한교육긔관을 설치하여야 되련마는 모도가꽁중누각 이올시다하고커 하여도 지금의나로써는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헛말을즐인 부언할것이 업는줄압니다 나는새해에

근화학원 과교육협회에대하야 경영하는바는 대강잇슴니다 리왕직에서 하사하신긔디에회관을 지어야 하겟다고생각하지마는 이것은 아즉 엇더케될는지 특별한예산이 업는일이요 무엇보다도 새해에근화학원의집섭을갈허야 될것이올 시다그리고 지금은 내집이거나남의집이거나 하여간 전보다집이넓어졋슴으로내년사월로 부터는 훨신학생을 만히밧고 특별히영어부(英語部)와 음악부 (音樂部)를 더확장식히려 고합니다다라서디방에서올라오는

학생들을 위하야긔숙사설비도 좀완전히 하려합니다근화학원 학생뿐만아니라 엇더한학교학생이 던지 또는어느회사나엇던 방면에 취직하는녀자이던지 긔숙할곳이 맛당치 못하야애쓰는 녀자들에 게뎨공하려합니다아마이네가지는새해가다가기전에실현이되겟지요

中央基督青年
農民教育
로동학원도확장 申興雨氏談

현재조선에실현된교육긔관중재산이 넉넉한사람으로 하야금배흉만한 학교는비교뎍 만슴니다마는 재산업는사람으로하야금배흉만한 학교는 거의업슴니다우리조선은 농촌생활하는 동포가대략팔할가량이나되는고로넉넉한재산을 가지고 생활하는동포도역시 그비례가 될것이외다그러면우리는모든것을이

농촌인민 즉넉넉지못한동포들을표준하야하지안흘편안될것이외다 그럼으로 우리긔독청년회에서는 금년부터 교육사업이든지 사회사업이든지 농촌형뎨 즉넉넉지못한 동포를 위하야하랴합니다 우리 긔독청년회의 교육긔관으로는 학관(學館)이잇고 그학관안에는 로동학원(勞働學院)이잇는데 지금까지그성적이 매우량호합니다 금년부터는이 로동학원안에다가 년령의만코적은것을관계치안코도의곱고 나진것을 관계치안코입학을 허락하야

초보상식 이나알도록하야일학긔만에졸업을식히라하나를설치하라합니다 그리고 종래하야오든 로동학원도 더확장하기로 하엿슴니다 또청년회학관도금년부터는 넉넉지못한 사람즉농촌형뎨를 표준하야 하라함니다 그리고농촌에서 떠나지못할형뎨를위하야 각디방으로 순회를하랴합니다 방금우리 긔독교청년회에서 그것을 시행중인데청컨이 매우량호합니다 다대게이것을

간단히말 하자면디방농촌에잇는형뎨들에게 배호고자하는열심을 고취식힌다는것이외다 농사를지어서 일년의생활을계속하는 그들이 집을떠나서무슨학교에 입학을하거나 할수는업슴으로그디방에서서로힘써배워서 다만초보의 지식이라도알도록하는것이 머단히 필요할것임니다 코러케하자면 다른학문은어려울터이니 낫가우리조선국문을잘가르치여 초보의산술가튼것을 잘힘쓰도록하면 조흘것임니다이러케하면

그들에게 뎍당한신문이나혹 잡지가를 간을발행하야매월이삼이식 이라도 읽도록하여야 되겟슴니다 이것은혹엇던신문사나 잡지사에서 하든지그러치아니하면 우리청년회에서하라합니다 이상에 말한농촌형뎨에대한 사업은 누구든지찬동하시는이가 잇스면서로 협력하야금년부터는 하여보랴 함니다

朝鮮教育協會
民大期成
금년에착수한다 兪鎭泰氏談

조선사람의일이라는것은뜻과가티되는것이 어데하나나 잇슴닛가마는 본교육협회의 사업으로말하면 범률큰커에 갓가히가는일이아니기때문에 힘만쓰면 무슨일이나 다될줄압니다 그런데「하랴 고하는일」이나 「하고커하는일」을가릴것업시오직컨력을다하야 하는일은 이것임니다다즉

재작년봄 부터시작하야오늘날까지 계속활동해 오는민립대학 긔성운동 (民立大學期成運動)임니다이교육협회에서는 다른무슨운동 무슨사업보다도 엇잿던이민립대학을 하나완컨히 이루어노코라야 하랴고하는일이나하고 커하는일이새로생길것임니다 그런데 이긔청운동은 일천구백이십 삼년봄에비로소 발긔가된후 권국뎍으로운동이 확대되여 잘될희망이보이던것이 그만호사다마(好事多魔)로일본동경에진재(東京震災)사건이돌발하게되여각디에서 무슨구제이니 의연이니하는통에 그만라격을 바다운동이

뎡지상태 에빠졋섯는데그러커럭이십사년을 맛게 되매이해에는 엇더케 종잘해보리라하고 봄으로곳 전라도(全羅道)에출장하야 의연금을 거둘예수가구십만원이나 달할으로 이번에는 완컨히 성공하려라 미면며니또밧게 또동년으로 인하야산비만동포의긔근구제(饑饉救濟)운동을 하지아니할수 업게되니부득이 또민대(民大)긔청운동은 그만중지상태에 잇섯슴니다새해에는 더욱권력을 다하야이운동완성에 진력코거 합니다마는또뜻밧게재변(災變)이나창에(碍障)나 업슬는지 그것이데일걱정임니다

女子基督青年
宿舍、沐場
녀자위하야설비 玄德信女史談

현재 하여가는일외에도 여러가지계획한사업이 만히 잇섯스나금권과 씨간관계로 유의막수가되여왓슴니다 그러나 지금까지하여 오는일도 우리청년회로서는 매우로력하고 분투한동시에그성컥도상당하얏슴니다 그러나 현재하여가는 그것만으로는도더히 만족을어들수가 업슴으로우리회간부들은

항상유감 컨만으로아려오든바 종래의 계획하여오든중에서명년부터는편물과(編物科)를두고 일반학생을모집하야 철을따러서 여러가지 편물등속을교수하기로 일권 리사회(理事會)에서 결의하엿슴니다 그리고청렵들을다하야 금권을 변통하여가지고녀자긔숙사(女子寄宿舍)를설립하야 객디에서 숙소로곤난밧는 녀자들에게 다소의편의를주도록 하랴합니다 그다음에는녀자공동식당(女子共同食堂)과커자

공동목욕 탕「셜립하고일반녀자에게 한하야 수용하랴합니다그리고자미스러운녀자의모임과 긔독교선뎐강연가튼 것을써써로하랴합니다이외에도여러가지계획이만습니다마만은금권과 시간관계도 잇슬뿐아니라기다여러가지사정으로아직은말슴하기가어렵습니다하며녀자는모든일에 여의치못한것이 만흠을한탄하는빗이은연히나타나더라

火曜會
實行而已
착준히것겟다 尹德炳氏談

여러분도 아시는바와가티 우리회는 본래신사상연구회(新思想研究會)이엇슴니다 연구회라하고보즉 한갓연구나던에 지나지아니함으로 실제로 하는일과는회의일흠과 늘부합되지 아니하는뎜이 만흐갓닭으로 이에완컨한사상단톄(思想團體)로를어너게하기위하야 작년겨울에 지금의화요회(火曜會)로일홈을곳쳐엇슴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한일은무엇이냐하면 과거를회고하야 참말로남붓그럽는 일이커지 아니함니다 그러나모든것이 특수한사정에커하야잇는 우리로서는 힘자라는대로무산대중(無産大衆)을위하야 힘을다하는체 하지아니하얏다고는 할수업슴니다 이압흐로 진행할일에 대하야말입닛가 여긔대하야는 이런일을하겟다 커런일을하겟다고 미리부터떠들고심지는 아니함니다 일하는그때가되면 작연히 한가지식한가지식 말하게되겟습니다 구태여무든시니 말슴이올시다 우리의유일한신조(信條)는, 오직

진실하게 거짓업시는한길가리 웃웃하게압만보고 웃외지나아갈뿐 이올시다 그리하야암흑한구렁에서 헤매는 허러커잇는대중(大衆)으로하야금하로밧비단결(團結)의큰힘을껫닷게하기위하야 잡지(雜誌)라던지「팜푸레트」늬리푸레트」를발행하겟스며강좌(講座)강연회(講演會)도써써로려 서울도는디바에서개최하겟슴니다 아가도 말슴한것이올시다만 우리는 무엇이던지행한뒤에말하고자합니다

北風會
組織的으로
데이긔운동에 辛鐵氏談

북풍에서할일 |하라고하는일 |그것을따로히 말할것은 업는가합니다 새해부터우리의 나아갈길은곳한길밧게업는것이니그길을향하야 나아가는데는 정론너고 계획이고가업시 다만웃가지힘을다하야 나아가고 나아가랴는정신과노력이잇슬뿐이니대개우리의가슴을 펼치어서 말하면아래와갓다고합니다

一、종래의긔분운동(氣分運動)으로하야금 조직운동(組織運動)으로옴겨갈일——곳사회운동으로하야금 데이긔(第二期)의그것이되도록노력할일

二、각사회운동과류별을뎡확히하고진용을정돈하야종래의혼돈상태에서 이러나든 운동의침체를업시하는동시에웃까지운동을 원조할일

三、사상단톄의권국뎍단결을실현하야 종래와가튼 결렬(缺裂)을업시할일

四、민족운동자(民族運動者)들과 협동을하야 조선의 현상과파운동의힘을진동하며연(聯絡)을고조식힐일

五、맑쓰사상의보급긔관을설치하야 그맑쓰사상의 보급파실제화(實際化)를꾀할일

六、도서와신문잡지의종람소를설치하야 일반에게 공개ㅁ공할일

七、일본각디에 순회강연을 행하야조선인과일본인동의무산계급간의데휴(提攜)를실현할일

八、긔관십지를발행할일

朝鮮女子青年
會館變通
부인위안개최 申알베트女史談

조선녀자 청년회(朝鮮女子青年會)가생긴지발서 사년째잡어드럿스나 이때까지 회관(會館)하나가업시 이집저집으로 도라다니면서 가진풍파를 다격는통에이미 실현하엿든 사업도엇절수업시 중지하고 마럿슴으로일반에게 대할면목이 업습니다

금년에는 회관을엇더케하든지 변통하여가지고 그동안장소가업서서 중지하엿든 실업부(實業部)의 사업을 다시계속하기로 결뎡하엿습니다 만일회관변통이 여의치못하면 따로장소를변통 하여서라도 긔어히실업부사업은 부활식히 겟습니다그리고 작년에도 하랴다 부한부인위안대(婦人慰安隊)를금년에는조직 하여가지고 정신과물질에비상한 곤난과고통을 밧는일반녀자들을 초대하야 음악(音樂)무도(舞蹈)혹은

활동사진 (活動寫眞)늬상위안회를 열기로 결뎡하엿슴니다그리고 현재교육부 (教育部)사업으로 하여가는 야학이잇기는잇스나 장소가 협착한관계로매일 사오인혹은 오륙인식이나차커오는 입학원자를 엇절수업시 거절하게되니다 그들을거절하야 몰려보내고 나는몃번이나눈물을 흘렷는지 모름니다금년브터는 무슨짓을 하든지회관을변통 하여가지고 배호고자오는사람을 하나도 돌려보내지안토록 하랴한니다 하며씨의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업시흐르더라

京城府三角町六六番地
朴潤觀

京城鍾路一丁目七一番地
時計各種 純金指輪 金銀眼鏡 貴金屬類 諸般修繕
信鍾堂時計舖
主 玄錫基
電話光化門八九六番 振替京城一一八九二番

京城府鍾路四街里
洋品雜貨
漢英公司雜貨部
主 尹宇植
電話光化門一二一二番 振替京城一〇四一七番

朝鮮銀行

京城公平洞
東西醫學研究會中央總部
會長 吳泰遊
副會長 韓秉璉
名譽會長 洪奭鉉

京城府蓬萊町一丁目四七番地
精米機 麥粉機 籾摺機 電動機 其他各種機械 鑄物一切製造 及修繕
中央鐵工所
長 安東旭
電話本局二八七三番 電信略(アン)又(チト)

京城府樂仁洞一七八
各種綢緞織造販賣
朝鮮絹織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〇三七

京城府堅志洞六〇番地
朝鮮圖書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一七七番

京城府貫鐵洞二四七
京城隆興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六四

京城府雲泥洞七五
內科小兒科 洪濟醫院
院長 劉洪鍾
電話光化門五五六

京城府樂園洞一四一番地
外科皮膚科 大東醫院
院長 千葉醫學士 李潤載
電話光化門六二九番

京城府觀水洞一六三番地
金溶埰內科醫院
電話光化門四五三番

感情에 사는 學窓의 女性

文明渴求 同族救援

커녀시대의학창생활가티자미스럽은뻬는업다그들은세상에대한근심이별로업다다시말하면생활이극히단순하다이와가티단순하고신청한학창생활중에서그들의순결한감정을드러사회사람에게소개하야알리는것도무익한일이아닐뿐아니라더욱조선사회에서는남유달리비참한처디에서서당연히련진스럽고근심이적어야할학생의좀은가슴까지태이지아니면안되게되고늙고병든부모들은자긔는악의악식과심지어가산을팔때하면서까지공부를식히어현재나과거의모든자긔네들의비운을잡아돌릴샤람이오죽책보쉬인자녀쎈인줄안다이와가티불상하고도중대한최디에잇는학생중장래사회개량의원동력이되는가뎡을주관할녀학생이깃버하는것은무엇이며소원이무엇인가본사에서각학교녀학생에게이문데를데공하엿슬뻬에
◇데일깃분뻬로는부모가공부를허락하엿슬뻬이니가련한그들이얼마나신문명에목말라애쓰는것을알수잇스며
◇데일소원으로는모다불상한조선사람을구원하겟다는것
이다이두가지가얼마나우리의시대뎍번민을말하는것인가멋백번답안중에는『출출한데호뎍을사다먹다청인의손톱이나왓다』는것을깃분감정으로쓴사람도잇섯스나머데로참스럽게조선인의시대뎍고통을표현한것은한편으로눈물이날만치가련한일이요그들에게긔대가크니만콤감사도하다그리고장래희망에대하야조선인의공통한엇던일을희망으로쓴것이잇스나이것은시국의긔휘로긔재치못한다(一記者)

最大의喜悅은何?

幼時의聖誕
‖데일깃부든때‖ ◇培花女高 金慈惠

나에게가장큰깃븜을주든때는어렷슬때의크리스마쓰올시다 십이월이십오일이되면나는말할수업는깃븜가온데뛰놀앗습니다 인세계를눈으로장식하고말업는별들이공중에서반작일때에주의탄생을축하하는나의적은목소리를따라서만장의박수소ㅣ가고요한밤의침묵을깨트릴그뻬나는한업시깃벗습니다

答辭낡을때
‖데일깃벗섯다‖ ◇梨花女高 金貞福

십사세뻬에 보통과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답사를낡을뻬에 집안사람이다와서구경할뻬가데일깃벗다

幼年名節時
‖지금생각하여도‖ ◇培花女高 金文熙

나는어려서 동모들과 솟곱질하며맘대로 뛰놀고날뛰든 그뻬가 가장 그립습니다 그리고사명절마다 고흔옷을 가라입고동모들과 억개것고 이집저집도라다니며 놀뛰고그데뛰든 그뻬――아!얼마나 나는 깃벗스릿가? 근심도업고 걱정도업고――그뻬일을 지금생각만하여도 나는깃븜이 가슴에넘처오릅니다 나는가장성하야 철알쌔로는 현재내가공부하는배화학교입학시험에 뽑히엿슬뻬입니다

入學試驗合格이
‖데일깃벗섯다‖ ◇梨花女高 金美利岩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소원하는 고등학교입학시험에합격하엿슬뻬가데일깃벗다

入學試驗合格
‖어머니나는합격햇소‖ ◇官立女高 李泰慶

나는열여섯이거진다지나가는오늘날까지가장깃분뻬가꼭한번밧게업섯서요 나는보통학교 사학년을진급하고오학년륙학년을다건너뛰여고등보통학교입학시험을치두엇습니다 밥을 새여가며시험준비를 하야시험을 치두고는마음이노이지안어서발된자를 발표하든날에도 가볼가말가하고 퍽애를썻습니다 그리고학교에가서도참아당대히압흐로나가서 서부친조희를바라볼용긔가업섯습니다 엇든리래경이라는나의일홈이조희우에나타낫슴을읽을뻬에나는말할수업시깃벗습니다 얼른집으로도라와서중문턱에서부터『어머니나는입학되엿서요』하고부르지젓습니다

高女入學時
‖찬란한교문을바라고!‖ ◇培花女高 李春蘭

나의가장깃부든뻬 사년전 배화학교(培花學校)를차저오올뻬이다 보통학교를 겨우졸업하고 엄격한부모의 슬하에서 집안일을도으며 마치단이슬마진 새싹이래양의 망선을바다 시드는것갓다가 한점만한거운짐을 벗고서광이찬란한교문을바라보고 드름할뻬일이데일깃벗다

病患差度寄別
‖이시간이영원히게속‖ ◇淑明女高 吳昇年

날마다 눈물을흘리고 긔도를올리며 하나님의 은혜만미덧더니 하나님도 불상히 녁이삽인지수월만에 친보다 조곰나흐니안심해라하는 소식을 전해주섯다진정인지 거짓인지 분간을못하고다만깃븜에 넘치는 눈물쑨이엇다오직 이깃분시간이 영원히게속하엿스면 하는생각이 압흘섯다

苦難의合格
‖너무깃벗섯다‖ ◇官立女高 金惠順

나의과거 생활중에 가장깃분뻬는 이뻬입니다 나는가난한집딸이올시다 온집안식구가 밥먹고옷입기도 어려운 처디에서도저히딸된 나로써 공부를식혀달라고참아 입을버려 부모에게청할수업섯습니다 시골서보통 학교를 졸업하고「즉시서울로올라오고저 어린가슴을 무한히 태우다가 엇더케엇더케 억지로올라와서 다행히 녀자고학생상조회의도움을 입어서 거긔류숙하면서작년사월에 녀자고등 보통학교 입학시험을 치두게되엿습니다수만흔 학생들중에서 나의일홈이입격되엿슬뻬 나는 너무깃버서 울엇습니다 그뻬에참말나는깃버서울면서뛰엿서요

첫재로卒業
‖할뻬가데일깃벗다‖ ◇貞信女高 李慧英

이것은 나의열한살적 일이올시다 이십여명이나되는 한반동모들가온데서 가장 나히어리고키가적은내가 첫재로 졸업을하게되엇습니다 졸업이무엇인지 공부가무엇인지 깨닷지도 못하는나로써 그저깃분마음뿐 이엿서요그뻬에는 모든사람이 다나를위하야 잇는것과갓고 심지어나무가지에서 지저귀는 새소래까지도오히려 나를 축하하는노래를 불러주는듯하엿나이다 나는이외에는 세상에 더깃븐사람이업는듯이 뛰고 노래하고하엿습니다 그뻬에맛보든 그러한깃붐을 그후로는 아즉한번도맛보지못하엿습니다

◇학생생활(二)
무노시간

고놀기조흔봄 엇던날나는 나의정들고 사랑깁든고향산천 싸뜻한부모동생을뒤로두고새후처에으로떠배리면길을밟게되엿다말수업는또거운 눈물이 옷깃을적시엇스며두정한긔적소리를따라나는고향과 남북을격하야 서울와잇게되엇다 산설고 물선타향에서남모르는눈물도만히흘렷스며 적막에늣긴늣김을 맛보기도한두번이아니엇다 얼마동안 고향을그리다가방학이되여고향에도라가니 나의어린동생이 뒤고개너머까지 와서 반가히언니하고부르며 달겨들는 그순간인자하고자애하신어머님의 음성을 듯든그순간 정드럿든동모를 다서맛나손을잡든그순간고향산천을다시대하든 그순간나는 형언할수업시깃벗다

新聞雜誌에
‖우리학교일이만히나면‖ ◇淑明女高 kLI

우리학교를 세상사람이 매우주의하게되고 신문잡지상에 만히나는것이데일깃부다

母親의回春
‖붓들고울엇섯다‖ ◇貞信女高 李玉英

히생치못함을 알엇든 어머니의병이 차차나하가실뻬에 나는얼마나 깃벗는지요 다나하서날어나다니실뻬보다도 약이 몸에마러서 조금차도가보일뻬가 오히려더깃부겟지요 아모련 약을써도 약이 쳐하기만하고 리젼은멋지도안코 어머니의생명은 거의위독한 디경에이르럿다가 다행히차도가 보일뻬에 나는너무깃버서 어머니를붓들고 엇절줄을몰랏습니다

放學대歸鄉
‖데일깃벗섯다‖ ◇梨花女高 李承愛

데일깃분뻬는 엇던방학뻬를 물론하고방학뻬일이다나의따뜻하

◇학생생활(一)

우에보히는것은 학예회가튼뻬에학교극을 하는광경, 아래는 긔숙사에 잇는학생이복습여가에 뎡원에건이는 모양입니다

어머니후산때
‖산파의깃분웃음을‖ ◇淑明女高 MNH

여섯해전 어머니가 후산못하실뻬슬푼중에도 어머니 겻흘떠나지아니하고 근심스럽게 산파의하는것만 보고잇섯다 의사든지산파든지 엇절줄을모르고 쌈만똑똑흘리고 어머니는 한모양이엇다오집안에 슬푸고 음산한것이가득찬것갓다 인제는 할수업고나하고 온집안이 실망하엿슬뻬산파의 웃는소리가 들린다온집안이 깃벗다어머니가 후산을하신것이다 이뻬가 가장깃부든뻬이다

最優等될때
‖부모칭찬이더욱깃버‖ ◇培花女高 金貴男

나의소학교다닐뻬에 사년이란긴세월을 마칠뻬도 깃벗지마는진급할뻬 최우등상을 타가지고부모의칭찬밧든뻬가 데일깃벗다

工夫許諾時
‖가슴에희망이찻섯다‖ ◇淑明女高 李柔淑

대정구년에 조선녀자 교육사상이일반에게 보급됨을 따라이뻬야나도 부모허락을 어더가지고서울로 오게되엿다 이뻬나의절심은사회와 국가에 유익한사람이되리라고 깃붐이가슴에 충만하엿다

父親의工夫許諾
‖밤에나를불러안치시고‖ ◇淑明女高 匿名女

보통과를마친후 부친이 상급학교입학을금하신지 아삼년후 가을에 서울와 게시든 아버지가 조곰병환이게서 조섭하기위하야 집에돌아오섯슬뻬 어느날밤나를압헤불러안치시고 잠간 내소원을무러보시고 십분의상은 서울공부를 허락하여주섯슬뻬 엇더케조흔지……그날밤은 서울가는 꿈만꾸든생각을하면……그뻬가데일깃벗다

前路차질때
‖데일깃부다‖ ◇同德女校 朱麟碩

나의가장깃부든뻬는 나의압날을 발견하야 비애를 늣기지못할뻬에 내가방황하야 내가밟아나갈압길을 차즈려면 압길을찻기가 몹시어렵다 그러다가겨우찻게되엿슬뻬 나는무엇이라 형언할수업는깃붐을늣긴다 그 압길을차저노흐면 그길로는 행복이 나를기다리고 잇는것가트니이것이 데일깃분뻬이다

故國山川對面
‖흰옷입은동족……‖ ◇培花女校 李XX

나는무엇이 무엇인지 모를그뻬에고국을 떠나멀직한 만주들판바람 무정하고쓰린세월로 십여성상을 지나든나는 얼마나고국을동경(憧憬)하엿슬가령아(靈肉)이장성함을따라 고국생각이더욱간절하더니 재작년 녀름고국을도라오는 길에 압록강뎔교를지날뻬 왕량한들판에서 배논리하고 잇는흰옷입은 우리동족(同族)을보고고국의산천을보고반가워하든것이 내평생에 가장깃부든뻬이다

普通卒業時
‖데일깃벗섯다‖ ◇同德女校 白龍女

내가세상에나온후에깃분일도만치마는특별히 깃분뻬는 두말할것업시보통학교를졸업할뻬이다그뻬는참으로 비할데업시 깃벗섯다내일생중에데일인듯하다보통학교를졸업한후에조선;대도회라는경성에와서 고등녀학교에드러나의희망을목뎍하고공부하논것도깃분뻬이다

서울첨올때
‖깃붐이가슴에가득‖ ◇進明女高 金德昊

졸업하고처음으로서울을배워형언할수업시깃벗다나도광명한세련디에나서서 남과가티 국가사회를위하야일하겟다는 마음이 나의적은가슴에 가득하엿다 이것이데일깃부든뻬이다

父親의寬恕
‖용서하신것이깃벗다‖ ◇梨花女高 崔살로마

십이세되든해 공립 보통학교를졸업하엿슬뻬일이다 언니가류학을 가섯기뻬문에 부모의서는나를 도류학보내기를 허락하지아니하섯다 아모쳐업는나는 공부가무엇인지 모르면서도 무슨지각이 생겨든지 공부를하지안으면안되겟다는 생각이나서 부모의명령을 거역하고 무서운마음으로 부모도모르게 경성에왓섯다경성에 도착한후에 즉시부친께서는 죄주는글을 보내실가겁이낫섯더니 삼일만에 죄를용서한다는 편지와돈까지 부처주섯다 그리고 부친께서는어린몸에너무머덕스러운일을 하엿스나 용서를한다고하섯섯다 이뻬가데일깃벗다

團樂한家庭이
‖데일재미잇다‖ ◇淑明女高 金姿洙

나의가장깃분뻬는일가족이모다모혀 놀뻬어린육하들은 창가와유히를하며 련진란만하고 평화스럽게놀며 각금우수운 말과작란을하면 왼집안식구가 입이찌여질가의심할(너무)웃는뻬이다

救主聖誕이
‖엇더케깃분지‖ ◇梨花女高 元英淑

내가데일깃부든뻬는구주성탄이도라오면 어린아이모양으로 논것이요 지금까지도 엇더케깃분지모르든것다

最大의悲哀는何?

悲哀重疊、淚의記錄

‖그러면 남유달리서름만흔우리 처디로현재조선녀학생이계일슬퍼하는것은 무엇인가 조선녀학생이 아니고 다른나라녀학생들도 처녀시긔에는 이런비애、 커런비애로 적은가슴을 태이는일이 만흔데 더욱 우리조선녀학생은 사회뎍으로 묵은시대에서 새시대로 건너가고 민족뎍으로 남에게 학대밧는 처디에잇스니 그들의비애가 얼마나하랴? 덧짐에덧짐을친 고통은 그들의 심장을 어여내일것이다 이것도조 선인의공통한 감정으로 과거만세사건는것이잇스며 그뻬 심리상태를 자세히 긔록한 눈물의긔록이잇스나 이것도 주위사정상 긔재할수업스며 더욱 이러한비애를 만히쓴것은 대개 교회학교를 중심으로한 녀학교에만헛 섯다 그 다음은 경제뎍으로 곤박을밧는 그들이 집에갈뻬마다 부친의 『이번학긔에는 공부못할줄아라라』 하는것이데일슬푸다 하엿다 그들의 가뎡사정과 공부를마치고십흔그들의심정과 비교대조 하야 역시월종비극이다 그리고그중에는 『집안에서 자유를 허락지안코 집에잇스라는것』이만흔바 이것은 자긔리상에 맛지안는곳에출가를 강권할뻬에 난처한것을정면으로 표시하지못하고 이런말로 표시한것갓다 기타 아버지상사、 어머니상사、 언니、 옵바의상사뻬일을 녀자의 섬세하고고흔감정으로 표시한것이잇스나 지면관계로 모다삭데하고 그문의의대데만소개하엿다(一記者)

쌈한後悔時
‖데일슬펏섯다‖ ◇梨花女高 申寶石

내월생의잘못한것을깨다를뻬가슬푸고 어려서누구와 다툴뻬에일시뎍으로 그리고 나종에후회가날뻬에데일슬푸다

故鄉이그리워
‖학창의나의비애‖ ◇培花女高 金慈惠

열두살된 어린녀자의몸으로 사랑하는 부모의품을떠나 산설고물설은 한양녯터 외로운객창에몸을 부치게되얏슴니다 한낫공부를위하야 쓸쓸한 이왕산미테서정든고향과 사랑하는 부모의슬하를 그리워하든나는 보름달이반공에 곱히소서 온세계의신비를 말업시들처낼 뻬에……… 나는 한업시울엇습니다 고향이그리워서 부모가그리워서 내가승속에잇는 모든하소연을 밝은달빗이바다주는듯하야

동생죽을때
‖꿈이냐생시이냐‖ ◇培花女高 金貴男

어느해륙월십칠일해는이미서산을넘고 사면은컴컴한데 밤집흔열한시에 목포한모퉁이에서는애통한곡성으로 평화로운 침녹을깨치엇다 사랑하는아우를 영원한세상으로 리별하고 나의심장은 놉히뛰고눈물은 옷깃을적시엇다 사실이냐 꿈이냐!지금도이즐수업다

(以下三面에續載)

京城鍾路二丁目八三番地 眼鏡 萬年筆 榮光社 (中央青年會對面)

京城府武橋町 韓龍植

京城府南大門通 滙東書館 高裕相

京城府笠井町二三〇番地 關聖教總本部

京城府授恩洞八八 廣州麵子商會 石所煥 電話一三一三 振替京城一二九五六

京城府鍾路二丁目五番地 最新流行 洋靴專門 廣彰洋靴店 振替京城八〇四九番

京城鍾路一丁目五八番地 京城 堤川間 海東自働車部 電話光化門一九七八番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八番地 廣西綢緞 毛織布木商 白運永 電話光一三七六番

京城南大門通一丁目一〇三番地 共同貿易株式會社 綢緞布木販賣部 電話光六二五番

京城鍾路二丁目二〇番地 內外國各書 出版和散賣 學生用文具 直輸入販賣 德興書林 主 金東縉 電話光化門一一八九番 振替京城三九〇一番

京城府鍾路二丁目(斗南理學館上層) 太錫均

京城府貫鐵洞二百七十番地 金銀寶貝 金箔販賣元 金銀美術品製造 金光商會 電話光三七八番 振替京一二八一番

京城木曜會 朝鮮勸業信託株式會社 京城信託株式會社 朝鮮土地經營株式會社 京城穀物信託株式會社 株式會社證券金融社

東洋拓殖株式會社 京城支店

株式會社 京城株式現物取引市場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一二七 綢緞毛織布木商 京城商會 電話光化門三八四

京城府鍾路四丁目 義成洋靴店 主 具敎喆 振替京城一二六四六

京城府茶屋町三三 西洋料理 スキヤキ 廣橋食堂 電話光化門一六七六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一七 綢緞布木商 閔弘植商店 電話本局一三八二 振替京城七〇五

京城府授恩洞百十九番地 一瘇症仙藥 造本舖及 藥種商業 普彰醫院 主 崔俊相

京城府蓬萊町一丁目七八 綢緞苧布木商 崔俊煥商店 主任 崔性煥 電話本局二五一三 振替京城一〇五三

京城南大門市場內 果物委托販賣商 成明信 電話一六八六番 支店鍾路通五丁目二百五番地 電話光化門八一七番

京城府公平洞 西洋料理 太西館 電話光化門三四一番

京城鍾路三丁目百番地 東亞商會

家庭生活改良

새해부터고칠것은무엇?

西洋人이본朝鮮人生活改良

새해를당하야 조선사람의가뎡에 고칠것은무엇인가사람마다자긔허물은 자긔가모르는법이라 우리는우리가뎡의개량할점명을스사로 찻칠하고또는남들이 우리의생활을엇더케보는가에대하야 경성에와잇는유수한 서양부인들의말을들러소개하노라

白衣의讚美者!

조선것도직힐것이만타

◇東大門婦人病院長米國人『홀-』女醫談

조선에와서십여년동안동대문부인병원에서 부인의 병자를만히치료하고 조선사람 생활을위생상으로 만히연구하엿다는 동대문부인병원장의사『홀-』부인은말하되

조선사람 의의복은나는매단히조흔줄암니다근일조선사람사이에외국인의본을떠서검은옷이나기타잡색을만히입는모양이나이것은무래여그릴것이업는줄암니다 첫재흰옷은빗이흰까닭으로 더럽기를 쉬-더럽습니다이것을 경제상으로보면 불리할는지 모르나작고 더러우닛가오래입지못하고 자조자조 빠라입습니다 그러닛가 위생에리로우며 또여름에몸시 더운때에는가티 흰옷을입고 다니는것이보기도 조커니와 태양광선을물바다서 더웁기도 얼마덜-더울것임니다 그럼뿐아니라 거문옷에는온갓 미균이만히부터 다니지마는흰옷에는그런것이부터다니지안슴니다 일광이나 공긔에서밧는것도흰옷은

자양될것 만싸라드리는효력이잇슴니다 이에 대하야쉬운례를들면 엇던화분가튼데 무엇을심어놋코한편은흰보자로덥허놋코 한편은거문보자로 덥허노흐면 흰보자로덥허논데는 아조허놋치아니한것과만찬가지로되거문보자로 덥허논데는 아조자라지못합니다 그것을보면 거문옷이얼마나 생물의 생장에유해한것인지알수잇슴니다 일본사람들은 목욕을하느니 위생을뭄시하느니 하여도폐병가튼 전염병환자가 조선사람보다 배나더하고 이밧대로 조선사람이배나건은것은 모다이흰옷의 덕택인줄암니다 조선의온돌에 대하야일본사람이 여러가지로 비평하고심지어 온돌이조선을 망하는장본이라고까지 말하는사람이잇다하나 나는그러치 안은줄암니다 더러문명이라는것이 돌밥한것이아니라정하고

편한것이 문명입니다그런데 조선온돌은정하고또한편켓슴니다 다시말하려는것은 조선것이라고 반드시 모다어찬은것이아니올시다 조선풍속에선을벗고 방에드러오는일어 잇는데 이것은 대단히조흔일입니다방을 언제든지 정결하게할수가잇고 또신발에서 무며드러오는미균을예방할수도잇슴니다그런데일부조선인사이에서양식대로한다고 방에신발을신고드러오는수가잇는데 발을잡것지 아니하야 발에서떠러지는 미균이명의메개가되는일이 만슴니다이것은 서양인이 도로혀조선인풍속을 배흘만한것이올시다 그런나 온돌의수리를 잘못하야박바닥이나 장판에 틈이잇서연긔가새여드러오면 사람에게 크게해로읍니다

미리주의 하야방바닥을틈업시바르고 장판을 잘하는것이조켓슴니다 또 부인네게고히니다신발도붕지라도조선사람의선은 잘오로밧들던엄격로 밤닷쉬히게되엿슴니다우리서양녀자가온돌는 모양냇다고 구두뒤축을 놉다케하야발이 압흐로업흐러지고 뼈가뒤틀니고 의돈이생기나 조선신는 그러치안슴니다』하야조선것을 입에침이업시 칭찬하기로 『그러면개량할것이 업슴니가』하고긔자가물엇더니 『개량속에는조선것을잘직히는것도 드려겟지요』하며려

信仰中心의家庭을

만든후에야개량이유효

◇泰和女子館長米國人 애도어스孃談

조선에와서십칠년이나잇고현재태화녀자관(泰和女子館)관장으로잇서 조선의가뎡개량과

녀자교육 에만흔공헌이잇는에도어스부인은조선인의가뎡개량에대하야말하되『무엇보다도제일먼저하여야할것은가뎡에서도신앙(信仰)이중심이되여야겟습니다미듬(信仰)을중심으로하고거기서무슨일을하여야성공을할줄압니다 그리고 남자나녀자를물론하고서양의조흔것만을취하지못하고 덥허놋코 문명국의것이라고 그대로 수입해 드리여그폐해가적지 안슴니다 얼마전에내가한황사진을 구경하며 가젓는데:그하는말이 도모지참아눈으로볼수 업습되다 남자와녀자사이에 하는행동을 볼지라도특동사진에 나오는것은 미국이나영국의 극히일부분에서 하는일을배인것이데 그것을 사러가미뎡한조선 청년남녀들은이것이문명국에서 드러온 것이어닛가나도그러케 해보겟다는하고그대로

위대한일 입니다이외에하려고하는것은 대단히하니이것을 문명한것이라고하책이나 신문이나 잡지에또조흔것도만히 잇지마는 조치못한것도만히 잇습니다 그런데그런조치못한것을 그대로 료량업시지수입하야 하려고하는 것은대단히위험합니다 근래에 조선녀자사이에도 사상서류나 성욕(性慾)에관한서적이나 잡지를읽고부모나 선생이나모다 못은사람이라고 배척하고 아모말도듯지아니하며 자긔맘대로 한다는것은매단히 근심할현상 임니다근일에조선 가뎡에는 리혼이뒤를이어생기는 것도다- 그런데서나온것 갓습니다 얼마나비참한일입닛가 리혼하는때는 대개안해가무식하다는 것이 리혼의리유라하나 그것은아조 조치못한일이올시다 심한사람은 자식을몃식낫코 아모

죄도업는 안해를리혼하는일이 잇습니다 이에대하야는원래혼인을 너무가비얍게 하엿기에는에 그러케되는 것이나아닌가합니다 조선부인의 언행에대하야는매우양전하고아름다운것이만호니그것을잘직혀서나가며서양의장처만취할것이요서양것이라고어것이나가져것이나그대로하지마는것이조켓슴니다의복에대하야는불론노이업서서그런것이 켓지마는 옷을 두겹으로하야 입기때문에 부인네는그것을또떨일가에 시간을 다보냅디정입니다 이것을 무슨또뜻한것으로한겹만 해입고속옷을 덧옷게입는것이 엇덜가하는 생각이잇슴니다마는 이것은 돈업는조선사람의 처디로는 도더허할수업는일이닛가 현상대로 나갈수밧게업습니다 그러나 부인의의복으로가습니다

좋라매게 하는것은뒤생에조치못합니다바지도을엇개에매이게하는것이 조켓습니다 음식에대하야는 조선음식이 매단하조흡니다 밥이나 김치가튼것이다조키는하나 이것은 평상시에조흔것이요 몸이매단히 약한베에 보하는음식은 양료리에만흡니다 가뎡부인들께서 우리녀자관양료리과에와서 공부하면다배홀수잇슴니다 이외에 부인네가아이르기는데 말아들일 즉어린애병안나게하는것

평소위생 등에대하야서도일주일에두번식우리녀자관에서 가르칩니다 가뎡부인이만히와서배호시기 바랍니다

春風秋雨六十一年

滄桑의變을回顧

환갑된부인의평생경력담

乙丑生優道婦人 南宮儆信女史

을축! 을축년이왓다 세상에또가나오든인연깁흔을축년이또다시도라왓다 벌서나의 예순하나가되고얼골에주름살이잡혀서새로온을축년을마지할줄이야어늬누가뜻이나 하엿스랴 깃붐으로마지할가?슯흠으로마지할가?일시에 몰려오는 지나간모든회포가한업시머리에떠오른다무궁화동산에서 장기메인 한쌍소가 을축의새해를 세상에권하는새로온이아츰에 풍파만코 괴로옴만흔이세상에서눈물의생애!한숨의생애! 눈물과 한숨으로페이지를뭄여 노흔지나간예순한해동안에 싸힌나의력사를 종회억해보자 나의일홈은 남궁정신(南宮儆信)이다 나는 문벌잇고

幸運의幼時

부러운것이업섯다

재산잇는집 무남독녀로 정다운할머니와 사랑하는 부모의품에서쉬면서질가 불면날가 금지옥엽가티 곱게곱게 길러난것이다나는 부러운일도업고 무서운일도업고 어려운일도업고 괴로온일도업섯다 동모들은 모다나를부러워하엿고 맛나는 사람마다귀엽다고 안어주엇다 세상은모다나를위하야잇는것갓고세상은모다내차지인듯 십헛다 그러나운명의신은 나로하여금 그가티행복스러운생활을엇던두해밧게더

十二歲時母喪

분홍치마고별

나는 열두살되든해에 어머니를여희엿다어머니손으로댕시잇게지여주신분홍치마연두저고리를버서놋코힌치마흰저고리에흰당기를드리고낫마다밤마다어머니를부르지즈며눈물로세월을보냇다 아츰에떳든해가 누엇누엇서산에넘어갈때에는것잡을수업시소사오르는 애닯은생각을 진정할수가업섯고명절마다고흔옷을입고자긔어머니의손목을잡고세배다니는동모들을볼때에나는두다리를 쌔치고소리처서 울엇다할머니의 사랑과아버지의 사랑이극진하것마는 나를 위하야는오히려어머니의옛품이 그리윗다

十六歲에出嫁

부모업는고아에게

나는그렁저렁어느듯나히열여섯살이되여아버지의명령으로스물한살된원세성(元世性)이란이와혼인을하고열여덟살에식가로가게되엿다식가라야식부모님도다도라가시고식집간식누님댁을차저가게된것이다식누님댁에서일년을가티잇다가열아홉살되든해에남편과 따로세간을나서 한참동안은 자미스러운생활을 하엿다 오국자국 세간사리도 작만하고아들딸도 생기고 남편이벼슬도하고 남부럽지안케 지나인것이다

連疊한란리

시굴도피란

그것도 몃해를지나지못하야 임오(壬午)년란리(軍變)가우리에게림하고 뒤미처갑신년란리(金玉均亂)가다라서터나니 한쎄의줄겁든 가뎡도어느듯 섦으로도라가고 집안을헤치고 아이를을들러업고 식골로서울로 올랏다나렷다 피란하는동안에 주막에서 볼안당을맛나 봉별고생을다하고 깁은밤고인가는 업는데아이는 배곱하울고 치위서떨며먹을것이 업서서철철히 싸힌눈속을헤매이며 청승님을 뜨더서절근절근 그물을써러먹으며 생명을보전한것이다 겨우 란리가진정되고 서울로올라와서 다시살림을차리려할때에

男便의放蕩

신산한살림사리

남편은 허랑방탕하기를 시작하야주색잡기에 정신을일코 집안일을 도라보지아니하니 삼십전후청춘녀자로서 무엇으로도버리를하야 아이들로더브러 놓히생활을 보장하리오 길고긴녀름날에 비지땀을흘리며 바누질품을판대야 하로의량식이 되지못하고차듸찬 겨을밤에 닭이울도록바느질을한대야또한 하로의량식과 하로쎄일나무를 작만하기가 어려운것이다 아이 하나는등에업고 하나는무릅우에 누이고 바느질을하다가 그대로안커서 조는때가한두번이 아니엇다 굼기를 부자집밥먹듯하고 살가리올 의복이넉넉지 못하나누구에게 이런발을하소연 할곳조차업섯다 그어느해 녀름인가흉년은들고 돈은밧삭말느고 바누질품은 드러오지안어서 밥날라고솟는 철업는아이들도 더부런아츰도굼고 저녁도 굶고치는뜻이더운 녀름하로를 맥이풀리고긔운이 업시드러 누어울기만하다가 밤중에호파한개를 어더서살머먹은 것이처하야 엿새동안을니러나지도 못하고 죽을고생을다하엿다

악착한참척

삼남매가석달안에죽어

그러케 고생하는동안에 석달안작으로자식삼남매를한쎄번에일허버리고 텬디가아득하야 갈바를모르고 하놀을 원망하며텬리의무상함을 한업시 늣기엿다그쎄일을 지금 생각만하여도치가떨리고 소름이끼치인다 원래마음이 어질고 인정이만흔 나의남편은 그동안 자긔의잘못한것을모다 뉘우치고 다시집으로도라와서 권과가티 세간을모하가며 평화스러운 생활을하게되엿다 그것도몃날을계속지못하야

甲午日清戰爭

총소래비발치듯

갑오(甲午)년 일청전쟁(日淸戰爭)이니러나자 총소리가사면에서비발치듯 니러나고 여긔저긔서 울음소리가 텬디를진동하며검은옷입은 일병 푸른옷입은청병들이뒤석기여 경성시내가 마치수라장을일우엇슬때에

男便의離別

나라를위해

남편은『나는나라를위하야 목숨을바치고 나가는사람이니 다행히이몸이 살어잇스면 언제던지다시 도라오려니와 그러치아니하면 이것이마지막이라』고슬픔의영별을 나에게고하고 표연히집을떠난지 석달이되도록 한마디소식조차 들을길이바이 업섯다나는 먹을것을 보아도 눈물입을것을 보아도눈물,시시각각으로마음을조리우고안타가운가슴을태우며 하로일은 세월을 보냇다 바람에나무닙 날르는소리가바삭하고 나기만하여도 혹시남편이 도라오는것만 십허서두근거리는가슴을 진정치 못하며참아용긔를내여 문도 열어보자못하고 귀만기우리고 량편서잇순천도 한두번이아니엿다 십월에집을떠난 남편이 십이월에가서야 겨우살어잇다는 소식을전하여줌으로도 죄이 마음에놋코남편의도라오기만 하두가 삼추가티기다리고잇섯다

男便의自棄

섭기든회구담

그후에 남편은도라왓스나 밤낫술먹기로만 세월을보내고 아츰에나가면 밤중까지 도라오지아니하고 저녁에나가면 그이튿날낫이나 되여야 도라오는때가만흔족 날마다 아츰상은저녁상이지,저녁상은 그이튿날아츰까지밀리여잇스며밤중에술이취하야비틀거리고도라와서누어자면줄내가코를 빨며서감히그져레안처잇슬수가 업고밧그로 나가면며롬에는 모긔성화 겨울에는치위서전될 수가 업스니 자연히안팟그로 들락날락하면서 남편의술이깨이기만 기다리고 해정국을쓰려놋코 밤을새이는 것이다한편으로는 남편에게 대한야속한생각도 말할수업지마는 부모업시불상하게 자란남편을 아못조록정성을 다하야 섬기겟다는일편단심은 멸여살살치 부터하로도나의맘에서 떠난날이 업섯다그러케지나가는동안에나라의정사는 점점어지러워가고 청년의벼력가티갑진(甲辰)란리 (日露戰爭)가 터지매인심이흉흉하든 쇠레조선사람의 생명재산 보호문데로 상하가물끌듯 하얏다지 나가는 사람의큰기침 소래만들려도 총ㄱ래가 나는것가태서가슴이울렁울렁하든판에

收監의悲報

산림천택보안회사건

하로는 남편이 산림천택보안회(山林川澤保安會)사건의 주동렷다는 소식이 들려더니하로세번석들리는말이 혹은 총살을당하엿다하고 혹은멀리로 귀양을보냇다하고혹은거적에둘둘말어배에실어서림진강(臨津江)물속에집어너헛다는조직이돌리인다잘낫거나 못낫거나 남편하나를하늘가티 의지하고살던이 몸은마른하날에서 벼락을마즌 듯이정신이 혼미하고 방바닥에 안즌대로 다시니러나지를 못하엿다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고얼마동안을 마러잇은 사람가티멋멋하게안저잇섯다 나는할아리모든것을 다이저버리고 남편을따라수중의 고혼이 되려고림진강을향하야떠낫든일까지잇섯든것이다 그러나『죽지라래요고진감래』라는 녯말이 혓되지아니하야남편이 반년후에 무사히도라오고

耶蘇教入教

신앙생활첫거름

내나히마흔세살되든해부터는남편이예수교의 신자가되엿고 나도그와 함께예수를 맛으며그동안지나온 나의모든 고통-일평번가산을 탕패하고 류리하든이몸의슬픔과류남매의자식을나하서딸하나를남겨노코어롱하든이상한마음을 모다 씻처바리고 다만몸과마음을 하나님의 바친것이다 현재나는 복음전도관의권로인도하고저한다나는여러가지고생과 마음의고통으로 인하야그것이병이 되어항상두통이 심하고여덜해동안혈담이그치지아니하며몸이 녹는것과가티 맥을출수업는것이 나도모르게 건강이회복되여 예순한해의 환갑년을맛게되니 깃붐도천지 안커니와하날의 조화가무궁함을 깨닷지안을수업는 것이다 나의력사는대강 그러타하고

世事의變遷

상전이벽해로

그동안 세상의변천은 엇지그리심한가 당오한닙에 엿다섯가락당배다섯매하든것을내눈으로보앗고 바누질삭이 저고리한채에돈반두푼막이 한채에십전식내가마러서 지엿다그리고 당상저녁밤지을 나무가떠러 젓는데도,문밧게잇는나무장사를 녀자가불러서 사는것은녀자의 큰수치로알엇다,남녀가억개를 서로겻고종로 네거리를 거침업시도라다니는이러한조혼시절이도라올줄을누가 꿈이나 쉬엿스랴세상의변천은 이러한무서운 것이다,만약압흐로 예순한해동안을더산다하면 우리의눈압헤는 얼마나큰변천이나타날런인가?

前途의祝福

스사로축복

뒷일을 추억하는이아츰에 남아지안은길을 위하야스사로 복이잇기를구할것뿐이다

◇환갑맛는남궁경신녀사‖육십년회고담을말하며‖

開城北本町三一四 朝鮮中華 料理元祖 新豐館 電話九一番

開城北本町 崇神人組合開城支部

開城滿月町 好壽敦女子高等普通學校 職員一同 電話二二八番

開城北本町三九九番地 李載烜

開城北本町 合資會社 高麗蔘業社 長電話四八番

開城南本町 開城人蔘商會 長距里電話二〇八番 振替口座京城四三四六番

開城西本町 開城券番 電話一〇九番

開城滿月町 開城電氣會社 電話五六番

開城北本町 高麗女子館 電話一四二番

開城滿月町 材木販賣 建築請負 家具製造 三成商會 電話一四番

開城學堂商業學校 校長 松尾眞善 職員一同

開城東本町四〇六番地 開城婚喪組合

開城南大門通 藥種賣藥人蔘エキス 普春堂藥房 電話一五番

開城南本町 飲食店營業組合

天安邑市場 海陸物產委托商 業布木 張豐鉉

京釜線天安驛前 米穀商 永光商店 主 韓光錫

天安邑市場 綢緞布木商店 布木部 主任 張漢武 劉東植 電話二六 振替口座京城一三八一

天安邑市場 柳樂堂

天安邑天眞館 朴蘭姬

天安邑市場 蘇生醫院 李愚奭

天安驛前本町 天一洋服店 金洛秀

京釜線天安市場 金銀細工 雜貨商 金正煥

京釜線天安驛前 開安商會 金濟豪 李在鉉

天安內里 代書業 李範信

京釜線天安市場 普天堂大藥房 李奎行

木浦寶町 洪淳翊

木浦櫻町 日之出亭 月仙 翡翠 蓮花 花仙 錦玉 絲珠 錦蘭 蓮玉 山玉 王蘭

務安郡長山面 金奉寬

務安郡長山面 朴敏英

務安郡長山面 崔宗珉

務安郡長山面 金炳允

木浦府北橋洞 木浦에쓰페란토會

木浦府濟町二丁目三番地 棉花 米穀 海產 肥料 南鮮 貿易商會 長電話六一六 電略ナ又ミ

木浦物產問屋組合

木浦府竹洞 金永洙 電話四四五

木浦府幸町 委託運送業 貿易 元興商會 店主 黃良宣 電話三六五番

木浦府幸町 棉花穀物委托賣買業 權寧禮

木浦府榮町木浦臺 對月館 金相卿 金在玉

木浦府柳町繰綿工場 金德仁

木浦幸町 木浦棉花商組合 電話六四〇番

木浦府海岸通一丁目四 湖南商會繰綿工場 徐炳南 電話六一七番

木浦港町 徐桂行

木浦無產青年會

木浦南橋洞一〇六番地 南鮮 洋襪織工所 主 金在敎

務安郡長山面 私立育英學校 鄭玫奭 鄭煥周 姜智錫

木浦 無名氏

木浦府竹洞二十番地 濟衆醫院長 任賢宰 電話四四三番

木浦明治町 布木商 金永采

木浦府 東亞醫院 醫師 金命峻

木浦 玉山醫院 電話五〇二番

木浦竹洞 吉守命

木浦府大正町二十一番地 新興洋靴店 主 吳希

木浦 禁酒斷煙會

木浦府旭町 貿易商 鮮一社 文在喆 柳重吉 電話六一九番

木浦府務安通三番地 代書人 金武賢

木浦府務安通三番地 長新流行洋靴專門 梁炳震洋靴店

木浦竹洞 朴鍾憲

木浦北橋洞 金亨仲

辯護士 宋台煥 事務所(光州郡須奇區町 木浦府南橋洞)

木浦府南橋洞 崔成吉

木浦私立希聖幼稚園

務安郡長山面 徐丙翊

木浦府北橋洞 鄭麟采

木浦府明治町一五 染料商 姜溫永

木浦府竹洞二六 布木商 李敬倫

務安郡岩泰面 安鍾石

務安郡岩泰面 盧樹

木浦府竹洞一六 日成洋服店 朴炳斌

木浦中島

務安郡長山面 金峻聲

務安郡長山面 鄭亨采

務安郡長山面 金甲泰

務安郡長山面 鄭公永

務安郡長山面 鄭淑采

務安郡長山面 雜貨商 金文信

務安郡長山面 朴演植

務安郡長山面 長山興學會

務安郡長山面 長興商店 主 高濟國

務安郡長山面 長盛商店 主 張洪述

務安郡岩泰面 岩泰作小人會

務安郡岩泰面 千后彬

謹賀新年

寧邊郡廳 職員一同

寧邊織造組合 特産品熙川五足紬九龍寧邊産明紬總販賣部 藥山商會 主任 朴明化 振替口座京城一三七一番

朝鮮平安北道熙川邑內 平安自働車商會 支店（平安南道价川驛前 平安北道江界邑內） 電話（本店四番 价川支店五番 江界支店二一番）

寧邊邑內 土木請負業 管貞助

寧邊郡內 萩尾一平

寧邊郡古城面所書記 梁炳三

寧邊郡古城面 金光鉉

寧邊郡古城面 金相爛

寧邊郡古城面 金鳳時

寧邊郡古城面 金永彬

寧邊郡古城面 張廷鉉

寧邊郡古城警察官駐在所 鹽野幸重

寧邊郡古城警察官駐在所 車永彬

寧邊郡寧邊面 職員一同

寧邊郡北薪峴面 私立彰義學校職員一同

寧邊郡北薪峴面 職員一同

新興警察官駐在所一同

寧邊郡球場市 沈昌五

寧邊郡龍山面 職員一同

寧邊邑內 辯護士 李烶

寧邊邑內東部洞 金孝哲

寧邊郡少林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寧邊郡少林面事務所 職員一同

寧邊郡南松面 職員一同

南薪峴警察官駐在所 職員一同

寧邊郡東部洞 大同旅館 主 朴成龍

寧邊郡內東部洞 韓鳳源

寧邊郡八院面事務所 職員一同

寧邊郡古城面 面長 張大翊

寧邊 篤農家 崔鶴來

寧邊城內 朴宗橋

寧邊城內 張翼憲

寧邊郡內本町 朝鮮奇魔術學院

寧邊郡寧邊面東部洞 金德洙

熙川金融組合

寧邊郡內 秋月館 主 柳間星

寧邊郡寧邊面西外城洞 車國轅

寧邊城內 平野井喜助

寧邊法院支廳 判事 杉江吉三郎

寧邊 天道教宗理院

球場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泰平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寧邊郡泰平面造山里 太乙金鑛事務所 鑛主 車仁傑
寧邊郡泰平面細上洞 泰平金鑛事務所 鑛主 車仁傑 書記 徐寧國

寧邊警察署 職員一同

寧邊公立普通學校 職員一同

寧邊公立農業學校 職員一同

寧邊金融組合

熙川警察署

寧邊邑內 實業家 全聖根

錦山面長 金在灝

全北錦山郡內 鄭翊鎬

錦山面上玉里 李輔英

錦山邑內 代書業 [illegible]吉鍾

錦山邑內 鄭碩元

錦山邑內 金民均

錦山邑內 [illegible]渭鎬

錦山邑內 鐵物商 [illegible]

錦山警察署 盧萬植

錦山郡邑內 卞泰國

錦山面上玉里 卞炫柄

錦山邑內 代書業 金昌善

錦山邑內 白樂吉

錦山郡錦山面中島里 朴勝來

全北錦山邑內 [illegible]海佐

錦山私立學校教員 金炅根

錦山面新垈里 金寿鍾

錦山中島里市場 普成當藥局

錦山邑內 朴允鳳

錦山邑內 趙炳奎

錦山邑內 金二述

錦山米穀檢查所 李用求

錦山邑內 雜貨商 金泰成

錦山邑內 鄭奎鎬

錦山邑內 布木商 崔益源

錦山邑內 金世鉉（藝名調均）

錦山邑內 公醫 公木重板

錦山公立普通學校 鄭鴻謨 宋悅顯

錦山青年會長 鄭桓鍾

錦山邑內 任健熙

錦山邑內 金權植

錦山運輸株式會社 監查役 金勳植

錦山運輸株式會社 取締役 五十嵐市十郎

錦山郡內 錦山青年會

錦山郵便所長 赤星赤水

錦山郡中島里 李德守

錦山邑內 鄭懸鍾

全北錦山邑內 金正鉉

錦山邑內 金俊鏞

錦山邑內 崔在穆

錦山邑內 長老 任九桓

錦山郡錦山面中島里 金顯泰

錦山邑內 長老 金珉植

錦山郡守 金正基

錦山 朝鮮日報支局 總務 崔聖植

錦山邑內 錦山蔘業社 柳海燮

錦山郡市場 綢緞布木雜貨 共昌商會

錦山運輸株式會社 社長 寺井政次郎

錦山邑內 錦山運輸株式會社

錦山邑內 朴贊明

錦山運輸株式會社 取締役 金顯俊

錦山郡南二面大本山寶石寺 職員一同

宜寧郡廳內 財務課長 崔元植

宜寧郡廳內 [illegible]

宜寧郡廳內 郡書記 李鍾珣

宜寧邑內東洞 全洛善

宜寧邑內中洞 李尙萬

宜寧邑內中洞 姜齊馨

宜寧邑內西洞 南麟燮

宜寧邑內中洞 鐵物商印草彫刻業 卞龍達

宜寧東亞印刷所 主任 金殷玉

宜寧警察署內 道警部補 黃潤秀

宜寧邑內中洞 綢緞布木和洋雜貨 德成興

宜寧郡嘉禮面雲岩里 田溶久

宜寧郡嘉禮面加禮里 崔明鶴

宜寧邑內西洞 崔根昊

宜寧郡邑內西洞 李仁宰

宜寧郡嘉禮面井洞里 李鷗載

宜寧郡嘉禮面井洞里 李鶴載

宜寧郡邑內 金壽英

宜寧邑內 姜昌熙

宜寧郡正谷面城隍里 南相憲

宜寧邑內東洞 宋守岩

宜寧邑內中洞 金永燦

宜寧邑內西洞 李鶴來

宜寧郡宜寧面茂田里 李鍾奎

宜寧郡[illegible]面室谷里 金仁大

宜寧郡芝正面風谷里 面長 安武商

宜寧郡嘉禮面職員一同

宜寧邑內 金鎭壽

宜寧邑內東洞 南載熙

宜寧邑內東洞 金琫淵

宜寧邑內中洞 富春商店 和洋雜貨材木及鑛物 嚴敬文

宜寧邑內中洞 和洋雜貨綢緞布木商 金碩善

宜寧邑內中洞 尹中洙

宜寧邑內東洞 米穀商 南仁熙

宜寧警察署員一同

錦山邑內 鄭赫鍾 鄭殷鍾 鄭商鍾 鄭千鍾

宜寧郡守 崔斗淵

宜寧邑內東洞 李泰浹

宜寧郡農會

宜寧邑內 救世醫院 醫士 高達升

宜寧邑內東洞 李慶熙

宜寧自働車部 主任 孫洪晙

錦山南二面大本山寶石寺 住持 李徹虛

錦山運輸株式會社 取締役 鄭炳璘

在米洲로ー스앤젤쓰 金龍中

錦山運輸株式會社 監查役 金龍德

宜寧郡邑內東洞 李祐植

宜寧郡宜寧面茂田里 李鍾龍

宜寧公普校職員一同

宜寧郡嘉禮面加禮里 鄭麟奎

宜寧郡嘉禮面加禮里 朴鍾萬

宜寧郡宜寧面茂田里 李鍾達

宜寧郡嘉禮面加禮里 尹炳瑢

宜寧郡龍德面井洞里 李道載

朝鮮日報
新年號 其四

衣服問題의解決策

米國政府 徐載弼博士

朝鮮日報主筆貴下前通信에는우리朝鮮 家의 食糧增進策을略論하엿거니와 余가今番에는衣服原料의 供給問題에關하야多少의奨勵가必要함을陳述코자하노라世人이共知하는바와가티人生의身體를 保護하는 衣類의原料는 四種이有하니 動物에서二種 植物에서二種으로 羊毛,絹絲 木綿及亞麻等이라 其外에도 他植이 間或需用이되야 草葉纖維 動物皮革 絲草及金屬衣類이나 此는需用이稀少하고 羊毛와 木綿이 人類衣服의 二大主要物이되다

朝鮮의엇던部分은 氣候와土質이 木綿栽培에 適當하야上古時부터 培養하여왓다 그러나産業精神의微弱과 科學的智識의缺乏으로 劣等의木綿少額를産出하엿슴은뿐이엇섯다 何如間過去數年間에 此物品栽培面積이 擴張되엿다는말을 余는드럿노라 農業家가 米穀栽培에全力을傾注함보다는 木綿栽培에,努力하면 收入이相當히增加될터이니 木綿은 米穀栽培가 不適한田地에 耕作할수잇스며 따라서 正租一斤의 價格보다 五倍나되는 高價를綿一斤에서 收入이될지라 慶尙全羅,忠淸各道에서만 栽培하는木綿으로 能히朝鮮全人口大部分의衣服을 供給할것이다余의생각으로는 米國南方의 各種木綿이 朝鮮南道에 適合할터이라思한다木綿의 原料産額이多量이고보면漂棉工場과製絲工場이續出할것이며人民의衣類를 爲하야 外國人에게 金錢을주는것보다 同胞의 經營하는工場과 農業家에 주게되는것이고 其外에數萬의失業者가그런工場에서 職業을어더 生活하게될것이다

養蠶業은 朝鮮最古의 實業이다歷史上으로觀察하면 數世紀前에 朝鮮에서 養蠶業이 日本으로갓다는데 今日의日本은絹絲輸出로 每年歐米各國에서數百萬弗의 巨額을 受取하고數萬의民衆이 이產業으로 生活한다 그와反하야 朝鮮에는最近까지 養蠶業이 거의全滅이되얏다 昔日의敎師이든 朝鮮人이 今日日本에가서 昔日에敎授하엿던 그産業의 科學的方式을 다시배와 오는便이조흘줄로 思한다 우리同胞가이미此產業復興에 着手하엿다는말을 듯고 余는 甚히歡喜하는同時에多數人士가 이에從事하기를 企望한다

朝鮮의亞麻 即芧布는 近代科學에依하야 製作方法을 硏究하면 實로重要한 物品을作成할지라 世界亞麻의 大部分은歐羅巴의 三小國인愛蘭,白耳義及荷蘭의 產出인즉 朝鮮도亞麻產出國의 重要地가된다면 이에서 더한 다행이 업슬것이요 그方面에 努力만하면 不可能한事도아니니다

또는朝鮮에牧羊이 업서온것은甚히異常한事이다 蒙古滿洲及北方中國等地에서는 古來로牧羊에 從事하야 羊毛의必要를認하여왓스나 朝鮮에는 牧羊을試驗한事이업고余의記憶으로는 一八九六年 故高宗皇帝께서 滿洲로부터 羊百頭를 輸入하야 東大門外牧場에서 養育한것뿐이다 牧羊의方法의如何한것을 觀察키爲하야 余는一次訪問하엿더니 余는그牧場管轄者의 粗態에 驚愕을 禁치못하엿다 皇帝는 牧場의設備를 完全히 下賜하섯것마는直轄官吏는 中間에서 그經費를 私腹에充하고 그輸入된羊牛,馬,鷄類等은 饑死에瀕하엿다 그러고 羊의多數는 牧場의濕氣로 因하야 足部가傷하야 死亡하엿다는말을드럿다余는 牧羊術을 詳細히 知치못한다 그러나現今 余가居住하는『펜실바니아』州의西部一帶『와스트버지니아』州及米國의西北各州의조흔羊毛를 만히보앗는데 其中 牧羊의最適地帶는 우리朝鮮과 恰似한地方이다 山脈이多한地方이 牧羊에適하고濕地에蓄育한 羊毛가最優品이라 하는데 그런羊毛는長과潤이 優越하며 洗濯하면木綿과가티 白色이된다하고市場에서 最高價格을바드며 牧者는收入이多大하다한다 余의推想으로는 同胞中 活動家는牧羊問題를 硏究하야 朝鮮의牧羊業先驅者가될사람이잇슬것갓다朝鮮人에게對하야는 國家의富를增進하고同胞의必需品을發展케하는產業에從事하는것보다나흔事業이업슬것이며 此等産業의 指導者가 今日朝鮮人의 가장要求하는바이다

衣類問題를 論함에 際하야우리朝鮮人이 外衣에 白色을棄하기를 切實히바란다 白衣는浪費임으로 米國의財產家도使用하기를躊躇한다 余는 白衣에對하야 多數한反對點을收擧할수잇다 그러나 最히不適한點은 朝鮮女子에게 甚한苦役이되는事이다 不止不息의洗濯은女子의生氣를 奪取하여外곳그生活을 悲慘케한다 黑色外部의衣服은足히이弊端을除할수잇다 經濟上으로論할지라도黑色은 長久히使用한즉 金錢의費用이少하고또白色衣보다 身體에保溫이 더되나니 黑色은溫氣를吸收하되 白色은抗拒한다또는 白色外衣를입는데 外國人에게 多大한恥笑를 買하나니 外國人은 朝鮮의風俗은아지못하고 白色周衣를 밧게閑漫히 着한模樣이 不經濟不實用的人種이라고嘲笑하며 또는 破廢키容易한 笠子를 頭上에쓰고 纓子로 턱을매인것이不實用이라고痛論한다普通外國人의생각에는朝鮮人이 일도안코 遊戲도안코 잠호지도안는民族이라한다 萬一그러치안타면何故로如斯한 不實用的衣服을 着하느냐한다 世上의人心은 일하고 遊戲하고 잠호는民族에게 注意도 加하고 顧慮도한다 朝鮮人은 아모것도아니한다고 世人이생각하면朝鮮을 念頭에도 두지아니할것이다 이런印象을 世界人의腦裡에서 업시하려면 白衣를拾하고 有色衣를換着할것이며또는 우리가일하고 놀고 잠호라면 白衣를 棄하고 竹笠을擲할것이라하노라

習慣과風俗을 變更하는 데는敎育으로由하야 平和로히實行할것이니 이런事業에는 個人의演士보다도 新聞과 雜誌의使命이大하고 機會가 多하다貴朝鮮日報는 이런使命을 帶하고人生實地의 眞理를傳播하는 機關이되기를 余는 懇切히希望하노라

一九二四、一一、一四、

農村經濟의危機

李勳求

오늘새벽十二點鐘을치는그刹那에비듯人爲的이라할지라도한마듸의時間上區劃을지나면서그와恐怖와煩惱가만턴甲子를永劫으로보내고歡喜와希望과滿足으로充滿하지아니하면안니될乙丑을마졋나過去一年間을回顧하건대우리朝鮮社會에는種種의相이緣起幻滅되엿다마는우리全人口의八割을占領하고經濟上全生產額의約九割인農產物을가지고勤的이나靜的으로無限한途程에서徨彷하는우리農業者의農村社會相은果然엇더하엿느냐?農村社會의全般의相을늘어分析的또는因果的論評을試함도意義가이스며必要가잇지만餞舊迎新의잇때를當하야特히農村社會經濟相을一面으로簡單히考察하고저한다

元來農地의分配가變則的으로不平均한것은우리農村社會의한特徵이다곳밧구어말하면土地所有의關係가너무社會上一部階級에게集中되여잇는것이다오는날世界上廣大한面積의土地에對하야그所有權을掌持한大地主가만하다는稱이잇는英國이라도오히려그百分比가우리朝鮮에比하야자못低位의數字를表示한다따러서우리農村社會에는極히優越한數字를가진小作人의階級이잇다完全農業者의全戶數가二百七十萬을算하는中에小作人의戶數가二百十萬을占領한다따러서그들의繁榮과衰亡은直接으로農村經濟問題의中心을形成하는同時에間接으로一般社會問題의重大한因子가된다

近日新聞紙上報道로信憑할만한數字에依하면이多數한小作人階級의農業者는現在의負債價值를表準으로하야 그所有한全財產의平均價를算出한後每年生產額보다超過되는消費額을計算하야이로써計除消却하면計算上으로는十個年이라는時間을經過하기前에經濟的으로自然破滅의宿命을가지고잇다한다 이엇이얼마나놀넘만한事實의豫言이냐眞實로肝膽이서늘한말이다 더구나지나간甲子는이러한宿命을가진小作人階級에게經濟的으로致命的打擊을준해다旱災救濟니饑饉救濟니하는소리는社會耳目을聳動케하는큰問題엿지만은事實上昨年의旱災는二重이나三重의禍害로多數한小作人階級을驅迫하야餘地업시經濟的破滅境에陷入케하엿다

元來農村經濟는農業이라는產業과農業者의特性에기픈根柢를둔彈力性의强大한것이다勿論一般經濟界의現象을따러直接間接으로그影響을밧지안는것은아니지만都市의經濟가甚히恐慌되여破綻이百出할때에도農村에서는依依長閑의態度로平穩을保有함하는것이常例이다이[illegible]久遠한歷史를가젓다[illegible]代의科學的學理와[illegible]的勤力을應用하는거시歐米의農業에比하야아직原始的狀態에잇는朝鮮農業의特色이一部分의理由가되지만自作自給으로食糧의缺乏이極甚하지아니한限度內에서外部의影響을直接感受하고都會의經濟보다彈力性이强大한것은共通的事實이다그런데昨年의旱災는그被害區域이殆히朝鮮全道에亘하는同時에農業上가장重要한地位를占한三南地方이尤甚하야該地方의多數한小作農은農業經濟上彈力性을根本的으로喪失하게되엿다그原因은上述한外에도여러가지를들어말할수잇거니와爲先

第一로農業經濟上流通資本의根本的缺損이다旱災로因하야種子와肥料와耕耘灌漑等費用과밋이에對한利息의全部가損失된은勿論이요晩時의降雨로移植을行치아니하면아니되엿던것을다시耕起하야主作物의代播도不能하엿스며또主要作物인稻作地에는一次代播하엿스며또勞力의一時的需要로因하야變則的昂騰을示한勞貸을支拂하고도오히려秋成期에收穫이皆無한悲境에싸저元來로貧弱한經營資本에更起할餘地가업시打擊을밧은것이요

第二로剩餘勞力의供給處가업는것이다元來農家特히小作農의副業은그種類가少數이며또그發達의程度가幼稚하야農閑期의勞力利用으로藁材加工品을生產하는것이今日農村의現狀이다그런데이加工品의製作도原料의缺乏이나또는供給의不潤澤으로行할수업스며또他方面으로는工業勞働의場所가아조업고若干의精米所나『매가리人간』가튼都市地農產物調製의小工業이또한極度로沈滞疲漫한狀態에싸저잇게되며따러서農村에서豐富하게溢出되는勞働量을受容할能力이極度로減退되엿다

以上과가티經營資本의餘地업는損失과剩餘勞力의供給處가업는것은食糧이缺乏한多數의小作農으로하야그食糧獲得의方途가杜絶된다近日新聞紙의報道를據하면一部地方의小作農은今後二十日을지나지못하야食糧이缺乏할으로엇지할줄을모른다하는현狀에昨年九月以降各港口의米穀移出은三百萬石의多額을超過하엿다따러서大勢上으로食糧缺乏의度가갈수록增加되며이것의代用品인滿洲粟의輸入이또한潤澤치못하며또一步를讓하야潤澤하다할지라도貯入할方途가업는小作人들이다이는實로多數한小作人階級에게至大한生活上威脅과不安을주는同時에實地로飢餓가迫至하야도엇지할줄을모르는現狀이다

다시農村經濟의中堅이라는稱이잇는自作農階級의現狀을한번考察하면또한以上말한바小作農階級과彷彿한狀態로沈淪되여간다元來農業經營上으로나農村經濟上으로나社會組織上으로나自己所有의土地를自己가耕作하는自作農階級은各種의素質을俱有하야農業經營方式의健全한發達과農村社會組織의充實한成分으로現代資本主義經濟組織에立脚한各國은共히그階級을保護維持함에더려創定에努力하는政策을行한다그러면朝鮮의自作農階級은果然엇더하냐最近九個年間의統計에依하야보건대그被損戶數가五萬三千의多數에達할뿐안니라年年減하야가는趨勢를示한다그原因은內部的과外部的원이錯綜紛糾하여잇슴으로그의詳細한論評은他日을俟하려니와綜合하여말하면各種洗滌의增加와消費가生產을超過하야自然히낫타나는現象이다더구나昨年의旱災로因하야生產額의減少는食糧의購入과其他生活維持의必需費用을支拂하랴면또엇지는수업시所有의土地를放賣할수밧게업시된다달어시漸減의傾向을가진自作農階級의沒落이一層더促進되는同時에農村經濟의健全한發展은크게障害와威脅을밧게되엿다

또한번다시地主階級의現狀을考察하여보면더구나孟浪하다元來地主階級은純粹한意味의農業者가아니며따러서農村經濟의圈外에설것이다그러나農業의根本的土臺가土地에잇스며또그것을所有한地主의善惡과良否는農業自體의進步와退步에關係가잇슬뿐아니라農村經濟問題와農村社會問題에至大한影響을준다挽近各地에서蹶起하는小作問題는事實上이곳에서그기픈根底를發見할수잇다또地主가운데에는無爲徒食의徒로그生活의根據가都會에잇서서眞正한資本主의形體를가진것과또一便으로地主인同時에農業上企業에從事하야生活의根據가農村에잇는地主兼自作農의形體를가진것의두種類가잇다前者는農村經濟圈에서除外의例決을受할지라로異論이업겟지만後者는그러치안타그戶數를統計上으로보면前者는約一萬七千戶이며後者는約八萬戶에達한다여것이커二百十萬戶의小作農에比하야極히少數임은更論할必要가업거니와이地主가운데에우리朝鮮사람의數爻는逐年減少되여가고그代身에東京이나大阪에잇는大資本團또는大資本家의數爻가漸漸增加되여갓다이結果가民族的의影響은姑舍勿論할지라도單純히朝鮮農村經濟의見地로보아서만갑지아니한現象이다웨그런고하니朝鮮內農地에서生產蓄積되는資本이朝鮮農村과何等의關係가업는外地市場에서行하는企業의資金으로融通되며따러서朝鮮農村의金融經濟가委縮枯渴할은避할수업스며因하야朝鮮農村의衰敗는必然的事實이다 더구나近年의新制度인期米市場은一般經濟界現象에極히鑽敏한地主階級의賭目的射倖心과投機的精神을挑發興奮시켜多數한破產者가續出하는同時에그所有에屬한集團的土地는自然의勢로日本人의手中에流入된다또秋期의收穫을豫想하고東拓이나殖銀이나其他外資를借入하야各種企業에投資하엿던多數의地主는一般經濟界의沈滯로因하야豫期의成績은姑舍하고失敗에失敗를重疊함뿐아니라旱害로因한無收穫은利息도支拂치못하는窮境에싸저엇질수업시土地의所有權을拋棄하는悲運에沈淪되엿다이러한것의綜合的結果가果然우리農村經濟에如何한影響을줄것은知者의論評을不俟할지라도燎原의火와가티明瞭하다

以上簡單하게論述한바와가티지나간甲子年은眞實로우리農村經濟의致命的危機엿쓰며딸하서一般農業者가憂愁와煩惱와悲哀의雰圍氣가운데에싸여永久히이저버리기어려운해엿다 그러지아니하야도經濟的破滅을絶叫하는이社會에서이와가튼凶歉은小作農階級을驅하야流離丐乞을하지아니할수업는窮地로陷케하엿쓰며自作農階級과地主階級은所有의土地를拋棄하지아니할수업는悲運에呻吟케하엿다果然危機一髮의狀態에臨한農村經濟다永劫에서永劫으로線을그어가는時間의한마듸를지나乙丑을마질때에이農業者들이지고 넘어온 苦痛과恐怖에싸인危險의『짐』을버서바리고歡喜와希望으로生을繼續할수잇슬가

우리는昨年의旱災가한참繼續될때에日本政府에서救濟資金의臨時支出의議論이잇다는것을言論機關의報道로接하얏던것을記憶한다또그後에各種土木事業의經營과水利事業振興과土地改良事業遂行으로窮境에싸진農業者들로自活途를行케하는것이當局方針이라고宣傳됨을들엇다또土地의買入과밋其他各種朝鮮內에有望한企業에對하야日本大資本家의活動을勸誘하야旱荒救濟의一助가되게한다는日本學者의高論卓說도들엇다하지만緊縮에緊縮을行하는現日本政府의政策을이우리朝鮮內의零碎한資本을吸收하랴고努力함을볼지라도이모든것이全體的으로實現되기에는너무도卓上空論의觀이잇스며또實現된다할지라도그效果는疑問에부칠수밧게업다또다시우리는前年北支那旱荒時에零碎한金錢일지라도寄送한것과關東震災當時에巨額의救濟資金이流出된것과各國의人道上同情의援助가遝至하던것을聯想할수잇다그러나多幸히昨年의旱災는그被害의程度가이러災害와同日의論이아닐뿐아니라또以上모든外的의救濟나援助를要望할必要도업다다만內的의生命이活潑한狀態로表現되아自力自食의根本原則을提唱하는同時에이農村經濟危機를當하야一般農業者의徹底한自覺과切實한忍耐는奮鬪努力하야의難關을突破하고安全한彼岸에到達하여야만하겟다는希望과歡喜로새해이乙丑을맛는다(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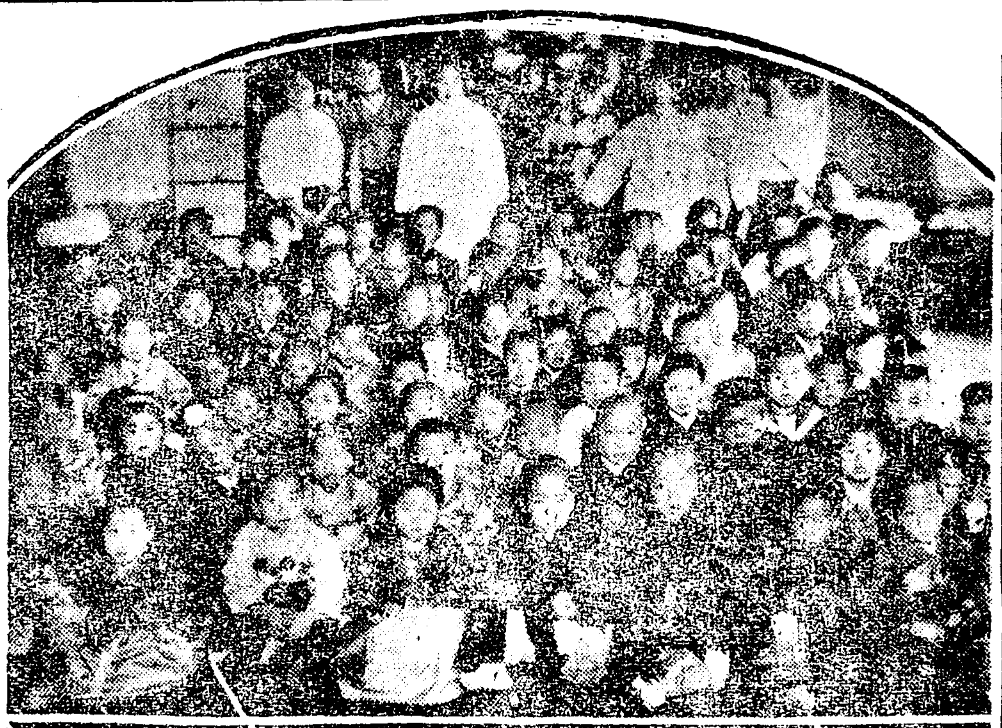
조선인의생명개척자

하와이한인국민보사사장 김영긔

조선사람의생명이아직까지남어잇는증거는조선사람의사상과주지를발표함이라 우리민족이지혜잇게말하고 지식잇는사람의사상을흡수하랴면 조선인의정신을 본위로삼은조선일보를아니볼수업는배라

누가공평공론을잡고쓰던지공직하고정중한언조로우리동포를경성할진대 그신문이이천만의사명을 봉행한다칭할것이다 조선일보가새로운면목으로 새주인을맛나 조선사람의보통지식을계발하며 신문명의큰길로향진하니 조선일보가반만년긔업을유전케하는 경세종이되기를 바라노라

우리한인에게 한가지남은긔회는 배울것밧게업다가뎡에서 어진부모의교훈을밧을것이요 학교에가서근대과학뎍 지식을 지안코배울것이다 조선일보가가뎡의부모책임 학교의 교사책임을겸임하야 조선사람을위하여서 활발스러히권진활주케한다하니조선일보가 더욱발전키를바라노라 조선사람의생명재산을보호하며 조선사람의자유평등을 향유함이조선사람에게잇슨즉 조선일보가 이것을위하야 조선사람의 생명을지도하는언론기관이되며 이신문으로말미암아 만세력사에유광한자유보가되기를첨축하노라



꼿피고나비나는

◇◇平和의樂園◇◇

三光幼稚園

원아수삼십팔명

삼광(三光)유치원은대정십이년사월 이십일일에 서양부인하마련(河瑪蓮)씨의성력으로설립되엿고 장로교묘동교회(長老敎妙洞敎會)의경영으로현재보모(保姆)가 두사람이오 원아수(園兒數)가삼십팔인이요 금년제일회로졸업한아이가십륙인이다

水標幼稚園

원아수삼십오명

수표(水標)유치원은 대정십이년봄의 수표교교회의 경영으로설립되야 교회로부터 매삭륙원의 보조금을바다서 월사금합하야유지하는중인데현재보모가두사람이요 원아수가삼십오명이다

中央幼稚園

원아수구십명

중앙(中央)유치원은대정사년구월십일일류양호(柳養浩)씨가설립하야 현재도씨의경영으로 나날이왕성하는중인데 보모가 세사람이요 원아수가 구십명이요 삼회로 일백이십여명의 졸업생이낫다

培花幼稚園

원아수구십명

배화(培花)유치원은 대정륙년사월십일에 서양부인 애도시(愛道時)씨의 주선으로 설립되엿고현재 서양부인 색이씨의경영으로 보모가두사람이요 원아수가 구십명이요 칠회에졸업생이삼백 오십여명이낫다 그러나아즉완전한 교실이업고 배화학교삼층을 가교실로 빌어서잇슴으로속히 교실을 건축키위하야노력중 이라한다

安洞幼稚園

원아수오십팔명

안국(安國)유치원은대정십이년사월일일에유성준(兪星濬)씨가설립하야 현재안국동 녀자면려청년회(女子勉勵靑年會)에서경영하는것이다보모가두사람이요 원아수가 오십팔인이다 장차운동장을 확장하야북촌일대 아동의 운동과유희를 자유롭게하고저한다한다

梨花幼稚園

원아수팔십명

천에서 가장력사가 오래인리화(梨花)유치원은이제로부터십여년전에 서양부인 색라우늘늬씨가 설립하엿는데 교실이완비되엿고 아이들의 유희긔구가충분히 설비되엿스며 현재보모가두사람이요 조수가 세사람이며원아수가 팔십명이요 그동안오백여명의졸업생이낫다한다

朝陽稚幼園

원아수칠십칠명

조양(朝陽)유치원은 대정십삼년삼월초순에 리강혁(李康赫)씨가설립하야 현재 씨의열성으로 유지하는중인데 설립이래로 나날이 왕성하야 보모가두사람이요 원아수가칠십칠인이다

泰和幼稚園

원아수이십오명

태화(泰和)유치원은 대정십이년사월일일에 서양부인 마이어쓰씨의 열성으로 설립되야현재 서양부인배의례(裵依禮)씨가경영하는중이다 현재 보모가두사람이요 원아수가 이십오명이요 금년에 제일회로 여덟명의졸업생이낫다

甲子幼稚園

원아수오십이명

갑자(甲子)유치원은대정십삼년사월십오일에 류늬선(柳一宣)씨가설립하야 현재씨의 경영으로유지하는 중인데 보모가두사람이요 조수가 두사람이요원아수가 오십이명이다

南大門幼園

원아수삼십팔명

남대문(南大門)유치원은대정십년오월일일에 서양인어비신(魚丕信)씨가설립하엿고 현재장로교회남대문밧 교회에서 경영하는중인데 보모가두사람이요 원아수가 삼십팔명이요 졸업생이두회로 사십사명이낫다

◇……사진설명……◇

우편▶──조양──태화──중앙──배화──◀중앙──리화──

──안국──◀좌편──갑자──수표──삼광──남대문──

恭賀新年

長白齒磨粉

本舖 米國紐育

太平洋商會京城出張所

京城府公平洞壹壹壹番地

電話(光化門)壹貳貳壹番

振替口座京城壹參六壹六番

懸賞文藝

感想 新年

(賞一等) 明以道

불상한동무여 벌서또한해로다 하는것은 나의 목메인말이엇다 어두운밤 바람불고 눈보라치는일제 이말을하고서 얼마나울엇으며 몃번이나 안타가워하엿는가 몹시괴로웟다 만은병들엇다 苦生에 몰리고 몰리엇든나의 綺麗한身勢는 그래도 무슨期待와 希望에싸여서 二十一年이란 적지안흔 새해를마저왓섯다 故鄕을 떠날때에 희고 어리어리하든 나의얼굴은 바람에 쓰슬고 쓰슬어 썩어젓다 럭미레 거슬는 수염조차 나려고한다 푸른하늘에 뭇별들은 짝바거리고 멀라ㅣ보이는 電燈불은 반짝반짝하는속에서 다만 하소연만 할뿐이다 괴로운世上을떠나신 祖母님께옵서는 地下에서 讚誦하실지로다 病席에 누으신 어머님은 눈이감기도록 기다리실지로다 엽집금집에 헤여진안해는 얼마히욕하고 속살거릴지로다 나를 오라는사람도 업고 붓잡는이도업건마는 그만도라가기를이젓다 주먹을 불근쥐고 악을내여서 해보려든온갓施設은 오즉그始初만 잇을뿐이오 成功을보지못하엿다 北宮黝의勇猛은 메해풍상에 쇠진하엿고 禍寬博의不受는 참고견대는가운데사푸러젓다

아! 나는 父母를일엇다 兄弟를일엇다 妻子를일엇다 나종에는나까지도 일엇다 모든것이假飾이다 虛無이다 나에게는아모것도업다 오즉 江原道金剛山에 중한아이 더듬어잇슬뿐이다 불상한동무여벌서또한해로다

(慶南東萊郡梵魚寺講院에서)

乞人

(賞二等) 啞笑

우리집大門을 搖亂하게 두다리며『배가곱흐니 밥을 좀주우ㅡ』크게웨치는 사람이 잇섯다世上사람은 그를보옹하야『乞人』이라한다 衣服의襤褸한것은 다시말할것업고 얼굴에는 주린빗이分明히 떠오른다 『배가곱흐니밥을 좀주우ㅡ』그가 이러케발할때 그의말과表情이 一致함을 나는보왓다『커려케 말하기가북그럽지 안은가』하고 사람들은 말한다만은 그는 自己의거짓업는마음을 오즉 말하는때북그려움이 잇지안을것이다 눈을감엇다엿다하면서 밥달라는 말外에는 아모말업시 섯는그모양과가티 그의마음도 또한그러하리라 그의목소리가 적다하지마러라 世上사람들에게 가장眞한態度를 밧는그는 모ㅡ든사람들이 (더욱이現代의人)妙하게숨기는 그말을 大膽하게하고잇다

當身은오날저녁 어듸서자려오물으니 그는힘잇게 고개를숙엿다들면서『아모데서나 자지요』한다

乞人! 그는赤裸의人間이다

孤寂

(賞二等) 金孝宗

고요한밤이다

참조흔밤이다 한적한 밤이다 눈이 가득차 잇는 뜰에는 희고도찬 달이 말업시 나려다보고잇을것이로다

電燈불빗은 변함업시 비치여주것만은 웬일인지 방안은침침쓸쓸만해보인다

누어도孤寂 일어나도孤寂 四面으로 휘감겨오는것은 孤寂뿐이다

아모도 사람과孤寂은 서로떠나지 못할것인가보다 아니다사람은오히려 孤寂을즐거하는先天的特性이 잇다

그러타 이가튼밤 외로히누어 世上을 생각해볼때 孤獨을늣기지안을사람은과연 업스리라 社會가잇고群衆이잇고同胞가잇는이世上에서 더구나날마다즐기는家族들이잇고『나』를알아준다는親友들이잇슴에도오히려寂寞을조하함은엇진일인가?

사람은『나』를『남』에게서차즈라고한다그리하야『나』와『남』이서로合한때에야비로소孤獨에늣김은술어지고마는것이다『나』와『남』의靈魂이永遠히附和存在할만한때그때에야사람으로서의完全한『格』이되는것이다

아! 엇더케變遷無窮한이世上에서 永遠을想像하며 證據할수잇을것인가?

흘러가는思想과周圍의모든境遇는사정업시도변해가며부서져가노나! 믿음조차虛事가되고마는이世事가아닌가 생각하면참으로쓸쓸하다

나는한對像에게敬虔한憧憬에쓰니지안코熱熱하게『타』(灼)버리고말럿다

누구든지나의마음만을알아주는『남』이잇다하면 그가男子든女子든 나는그의가삼에봇안겨永遠히울고말겟다 나의시들어가는靈을爲하야 이쓸쓸한孤獨을이기爲하야 밤은더욱깁허간다 열두時를알리는時鐘만썽ㅡ썽ㅡ

一九二四、一二、一〇밤

童話 옥순의죽음

(賞一等) 李淑仁

김선달이라하면 우리집 동리에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범이나오난드시몸서리를치며무서워하는 인정이라고는 손톱만치도업는수전로임니다 자긔집뒤곡간속에서는 필목과곡식이 여름장마에 푹푹썩어도 그는앗가운줄모르나 사람에게 한줌쌀이나 한치의필목을 주는때는무섭게도치를떠는 도척이가튼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든딸이무참히도작년에죽은후로는 이상하게도그무섭든맘이 다어듸로가버리고 불상한사람만보면 집으로다리고와서 밥을먹이고 옷을주고돈을주어보내는인정만코동정만은 착한 사람이되엿담니다 여러분도 김선달가티 착하게된 력사를드르시면 어엽분옥순의 마음을 칭찬하시겟슴니다

눈오고사나운 바람부는 옥동가티 치운작년겨울대목에 이러난일입니다 김선달집대문압헤명색만옷인 갈갈이씌여진 헌누덕이를 두른장님거지가 사랑스러운팔구세즘되여보히는 계집애에게 끌리여 치위를무릅쓰고벌벌떨며 밥한술달라고 슬픈소리로 애걸하엿슴니다 그러나원래 인정이란맘모르든 김선달이나오더니 돈은커녕모든아주고 무지한수먹으로 때만낫든거지의 등쭐기를 쥐어박으며문밧그로내쫏첫슴니다 이광경을 본옥순이가 아버지에게 매여달리며 불상한어린아이에게 옷이나한벌입혀주자고 말아엿스나그아버지가 야단야단함으로 다시는아모말도 못햇슴니다 그러고아버지몰래 뒤문으로나와 그두거지를다리고 자긔방으로 드러와더운밥과 맛잇는음식을 먹여주고 쩔고잇는 어린아이에게자긔가입고잇는 두거운넝켜고리와두루마기를 버서입혀주엇슴니다 그러고동생이나 맛난듯이사랑하며아버지께잘말하야어느때이든지가티잇게하겟다고생각을하고 그아이의손을 잡으며

『얘네일홈이 무어이냐』

『제일홈은봉순이야요』

『능엇커면 네일홈이 나고방불하구나 나는옥순이란다』

『에!』

『그럼오날부터 내동생이되여다구 나를언니라고 불러다구! 그럼내모든세간을줄터이니』

하며아버지가 작년설에 사주신패물을보여주니 봉순이는 어련마음이라 그것을매우 가지고십허하엿슴니다 이를본 옥순이는더욱측은하게생각하야

『봉순아 너이것이 가지고십흐냐 이런것보지못햇지』

『네ㅡ나는 구경도 못햇서요 참조흔 것이야요』

『그럼오날부터 네가내동생이낫가 이것을주마』

하며치마단에 채여주엇슴니다 그러고 봉순이가 조와하는것을보고옥순이도 퍽조와 햇슴니다 이가티 자미잇게 이약이하고잇슬때에 무서운아버지가 드러오셔서이꼴을 보시더니 하도엄청이나시는드시 아모말도못 하십니다 그사이에 봉순이는자긔아버지를 업고쥐숨듯 나가버렷슴니다 옥순이는 아버지에게매달리며

『아버지 지금나간 봉순이를 부르서요 참불상한아이야요』

하며ㅅ길 하엿스나 아버지는못들은데하고 속옷바람으로 잇는 옥순이를 내려다보시며

『네옷은 엇지햇니 대답하고』

『비불상한 봉순이를 주엇서요 참엇지 쳐위하는지 모르겟서요 커는 집에옷이만치만 그에는 그다보흔 옷밧게 업대요그래서 옷을 주엇서요! 아버지려정마서요』

김선달은 벌서부터눈이실룩해지며 범가티 소리를지르며봉순이를 그럿케보고 십흐면가티 다니라고 속옷만입은 옥순이를 대문밧그로내보냇슴니다 옥순이는 치운줄도모르고 봉순이를차저단엿스나 간곳을알수업섯슴니다 눈은 퍼붓고유리가튼 빙판우흐로 옥순이는거려오다가 긔운업시쓰러저 다시일어나지를못햇슴니다김선달도자긔가 화김에 사랑하든딸을내보내노코 생각을하니 세상에자긔가티 몹쓸놈은 또업슴으로곳옥순이와 봉순이를 차지라나섯슴니다 그러나 벌서때는늦고마럿슴니다 그후부터 김선달은마음을 고치고봉순이를 데려다가옥순이와가티사랑햇다함니다 얼마나마음이착하고 장한옥순이임닛가

一九二四、一一、二八

미련한호랑이

(賞二等) 李定鎬

엇던김흔시골에 남편은 일즉이죽고 첫먹이어린아들과 단둘이서 쓸쓸하게살어가는 마나님한분이잇섯슴니다

어느날밤 이엇슴니다 마나님은어린아들을 재워놋코 바느질을하고잇슬때인데 김흔 산골이라사나운 즘승이만흔중 배를놈쥬리던 호랑이한마리가 주린배를채우려고 이동리 까지나려와서마나님의 집에하나밧게 업는황소를 물어가려고 집울타리를뚤코 들어왓슬때임니다 그때에별안간 무엇에놀래엿든지 곰게잠자든어린아이가 잠을 깨여서소리처울엇슴니다 바느질을 하고잇든 마나님은어린아이를 달래이려고 아모리 애를썻지만은어린아이는 울음을 쓴치지안코 작고울엇슴니다 참다못하여서 마나님은 아가밧가테호랑이가 우는애 물어가려고왓단다 울지마라 응응하엿스나여전히울음은 쓴치지 안엇슴니다 마나님은 다시이애밧게주주가 왓단다울지마라 하니까…이상도하게 그러케 몹시울든어린아이가 울음을뚝쓴처 바렷슴니다 밧게서 동정을엿보고잇든호랑이가 생각하여보니 세상에는 나보다더무서운 즘승이별로히업는데 이집의 어린아이는 내가왓다니가! 울음을 안뚝치더니 주주가왓다니가! 울음을뚝쓴치니 아마도 주주라는것은나보다도 몹시무서운 즘승인가!보다고 호랑이는 어리석은생각을하엿슴니다 그러나 이왕온길에 그저갈수야잇나? 이집의황소나 잡어먹고가리라고 호랑이는 황소가잇는외양간을 차저가서 잠자고잇는소를 물어먹으라고할때인데 마츰 이웃에사는도적놈하나가 이집에 황소를훔처가려고 살금살금 기여들어와서 이리저리더듬거려서 찻든중마츰곳비도 업는황소가 손에붓잡히엿슴니다 올타 이집마누라가 나가거거조케하느라고 소의곱비까지 풀러노핫고나! 하면서 조화서 도적놈은 호랑이의등덜미의 털을붓잡어 끌고나와서소인줄알고 등어리에 올라탓슴니다 자아 도적놈은무엇을탓겟슴니까?

그때 어리석은호랑이가 생각하기는 이집마나님이말하든 무서운주주가 탄줄알고 고만놀래인마음에 죽을힘을다하야 들로산으로 뛰여달어낫슴니다 등어리에 타고안즌도적은 왼황소가이러케 잘다러나나 하면서도그것이무엇인지를 분별치 못하고그대로 가는대로 업혀갈뿐이엇슴니다 그러는 동안에얼마를갓든지 먼동이트면서 훤하게밝어왓슴니다 지금까지 소를타고오는줄만 밋으면서도 조금식의심을두든 도적놈이 훤한빗에가만히나려다보니까 이는황소가 아니라 큰호랑이엇슴니다 그런데다 더욱이 욱어진숩속잠자든곰한마리와 여호한마리가 호랑이의뒤를 련해또차오면서 호랑아커씨 그등에 타고가는 사람놈을왜잡어먹지 안코등에다 태워가지고 감니까? 우리가티잡어먹읍시다 합니다자아 이모양되엿스니 등어리에타고 안진도적놈의마음이 엇더케 되엿겟슴니까!그리자 호랑이는 아즉도그것이주주인줄만 알고이애들아 아서라 이게주주야? 사람이아니라하면서 여전히 달려갓슴니다 도적놈은 참다못하여서 그데로지나가는 길가에 큰고목나무가지위로 뛰여 올라갓슴니다그러나호랑이는 엇더케도 무서웟든지! 그냥뒤도 안도라보고달어나바리엿슴니다 그러나또큰일이낫슴니다 따러오든곰과여호는호랑이의못난것을비우스면서아츰해장거리가생겻다고도적놈이매여달린나무밋까지일으러서곰은나무위로 올려오며 여호는섬죽한주둥이로나무의밋동이박힌영을파고잇섯슴니다 그때에 도적놈은벌벌떨리는다리를억지로예여노하서 나무의맨끗까지 올라왓슴니다 그러나 곰은여전히작고딸어올려왓슴니다 그때에도적놈은오도가도못하게되엿는데 요행히 그나무는고목인고로 나무등이 가운데가뚤어진큰구멍이잇섯슴니다 그래서 도적놈은 그구멍으로들어가서겨우피신을하엿슴니다이윽고 곰은그구멍이 잇는곳까지 기여올너와서 들어가려고 하엿지만은 구멍이적은고로 곰은들어갈수가업섯슴니다그래서미련한곰은 그구멍을 막어사람을나가지못하게하려고엽고안저서여호가 밋동파기만 나려다보고잇섯슴니다 그때에 도적놈이 가만히치어다보니까곰의부랄이축느러저잇는고로 즉시 주머니속에잇든 망근줄으로 곰의부랄을매여서힘것잡어다리엇슴니다 그래서 곰은크게소리를 질르고죽어바렷슴니다 미레서 나무뿌리를파든여호는고만놀래여달어나바리엇슴니다도적놈은아모일업시곰한마리만잡은후에다시는도적질은못할것이라고마음을고치고곰의가죽을팔어서잘살엇다고함니다

웃업는陷穽으로

(選外佳作) 기덕숙

몸은 大地의 밤가마에 허우적거리나,
마음은 蓮花世界를 차저ㅡ
恒常 虛空으로 떠오른다。

ㅡ이리하야ㅡ
몸은 마음을 잡으려하고
마음은 몸을 살려고 애쓰나
둘은 漸漸 疲勞하여지고
서로 距離는 멀어갈뿐이다

ㅡ距離가 멀어갈수록
空洞이 커가는 두사이에는
막을내야 막을수업는
空想 懊惱 悲哀 絶望 苦痛이
나날이 더차(加充)흘러서
分散 疲勞한 그들(身과心)을
웃업는 陷穽으로 모라다넛는다 (完)

불상한피리나무

(賞二等) 洪銀星

봄이면 어엽뿐싹이나와서다시 어엽버지는 피리나무하나가내(川)ㅅ가에잇섯슴니다 치운겨울에 죽을번죽을번하다가 다시사라나서 싹이나오려하면 뭇동리아이들이 달녀들드러서 썩거피리를내여 붑니다 지금도이압집 금동(金童)이가 피리나무가지하나를 엇슴니다 그피리나무는 뚝!뚝!하며 압흔듯이부러저서 축느러젓슴니다 이럴때에 길에서놀든 아이들로따라우ㅡ달녀들어 금동이와한쇠『아이구조화라!』를연해부르며 피리나무를 커의들의힘자라는데로 주리를틂니다 그러면피리나무는 주리를틀틀이면서 압하서견듸다못하야 섭질을 벗슴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섭질을또다시싹가서 피리를 맨드러가지고『쎄ㅡ쎄ㅡ쌔』하고붑니다 아! 그피리나무가 좀압핫겟슴닛가?

하로는금동이가 낫잠을 자는데 이상한일이올시다 거룩거룩한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어룬이엿거서 피리부든 그나무를한팔에 부둥켜안으시고 또한팔에는굿다란 회초리를 드시고

『네이놈금동아! 이나무를비가엿고따리고주리를틀고하엿지?이것보아라 이러케가지는 하나도남人지안코맨몸둥이뿐이아니냐!이나무는이제죽엇다!』

하시고달녀드시며 회초리로 금동이를 때리셧슴니다 금동이는혼이나서이리저리피해다러낫슴니다 그러다가어듸인지 산쏙대이에 일으자갈데가업서서 천여만여한곳에서 뛰여 나렷슴니다 그럴때금동이몸이 웃속하야 지며잠이 깨엿슴니다 잠이 깨인금동이는 꿈속에엇더케 혼이낫던지입속말로

『하나님! 다시는아니그러겟슴니다』하고맹세를하엿슴니다 그리고 피리나무잇는 데를가보앗슴니다 피리나무는 과연가지는업고 밝안 몸만남엇슴니다 금동이는 후회를마지 아니하엿스나 피리나무는 이미고목(枯木)이되엿슴으로 소용이업섯슴니다 그런만 아니라봄철인데웬일인지 흰눈이 부실부실오기시작햇슴니다 금동이는 이것을보고

『아이고 커피리나무가인제는아주죽겟고나!』하고곳제가입엇든두루막이를덧허주엇슴니다

아! 그러나 그피리나무는 금동의정성도 도라보지 아니하고영영죽고말엇슴니다 그뒤 멋칠지낸후 따뜻한봄해빗이 누엿두엿넘어가는석양(夕陽)판에어린아이 열아문이 그피리나무를둘러싸고이러한노래를 불럿슴니다

불상한피리나무
거룩거룩하외다
우리들을위하아
어엽분싹죽이고
멀리멀리영원히
하나님의품안에
안기여놀리로다

이러케애해는 서산에지고 멀리서 노래와합주하는 레배당의커녁종 소래가 뎅그렁뎅그렁들렴니다(完)

參考作品 (圖案하여온구리은版本畫) 於義洞公普、金千蘭

新詩 아름다운들

(賞一等) 申必熙

그곳은멀리멀리紅葉이욱어진들이웃업시다은곳이야요
……이와가티 가만이눈을감고생각해봄니다
그럿슴니다!이붉고붉은紅原을黃色의太陽이幸福의光線을고이고이던지고잇슴니다ㅡ이곳에는아모도업슴니다ㅡ심술구진차듸찬眼線으로사람을흘금흘금보는커혼자怜悧한체된체하는그런맵슬머리슬언사람가트니들은
한사람도업섯슴니다
오죽해人님이게실뿐아엿슴니다
비단결가티고흔楓楓빗의들이잠든듯이다함업시니어잇슬뿐임니다
ㅡ무엇이라할는지요ㅡ
다물들빽가든
香氣로운술에醉한가튼
이가튼맘으로나는뭐벅뭐벅좀고잇섯슴니다
인제고만술가보아요ㅡ
ㅡ지금에다시생각하기는넘우나뭇견듸겟세요ㅡ
오오ㅡ그곳에서ㅡㅡ그리고 그리든님니 낫타낫세요
내가오래오래 두고두고 차저다니든 아주 어엿분님이ㅡ
내몸을 꼭쉬여안고서 입살에피가나도록 키ㅡ스 해주엇섯요ㅡ깃벗섯슴니다
참으로!참으로ㅡㅡ네!
限것힘것소래처 울고십흔 두군두군 떨리는가슴으로 억자로눌으고서 그情다운 님의무릅우에 이몸을아조 부렷섯세요
아모도 보지아니 하섯슴니다
ㅡ해人님이 우스실뿐 이엿담니다……
우리두사랑의幸福者를坐도서楓楓빗의 들이限업시어듸까지든지꿈속 가티이어잇섯세요ㅡ
그것은커ㅡㅡ!……그것은
ㅡ커
감자빗두뎡에서조밥의點心을먹은後의꿈……꿈엣세요ㅡ
네ㅡ떡내나는헌누덕이를닙은재의ㅡ나혼자의ㅡ네(完)

흰옷의설음

(賞二等) 劉昌宣

쑥대밧廢墟에아득거리는黃昏이
蒼白한달빗아래스러커갈때
느린嗚咽의애끓는哀調는
運命에 쫏기는흰옷의 우름이엇기!

× × ×

밤은어둠을밟고오고
찬바람은눈보라를모라닥치어라
피빗半月도碧空에숨어지고
밤은刻刻히어두어、그리고三更
뭇별은반작거려치움을낫는데
애닯어라、악착스런運命의손에
쏠려가는흰옷아!
오오흰옷의무리여가는곳이그어데이냐?

× × ×

西天에힘업시슬어지는
헐금한달빗과함씌
쓰린설음에곤두치는흰옷의무리!
오오그러나이를엇지하랴!
큰暗黑을압헤가로막고
풀수도업는限으로손발을둥녓나니

× × ×

썩어라모든것은죽음의洗禮를바든뜻
무섭은孤寂이숨여들뿐인데
소리업시잠잠한파아란하눌엔
千古의盛衰를말하는
永劫의興亡을속삭이는
별들만감실감실떠나려가도다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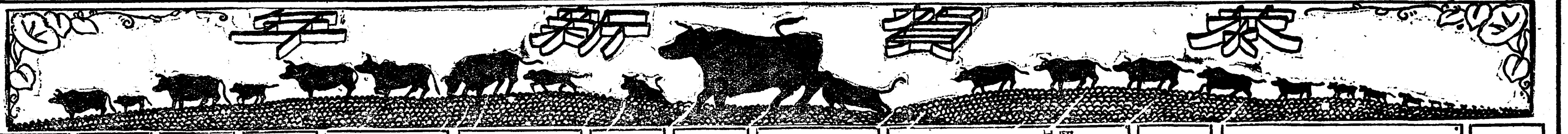
흰옷자락에궁그는눈물방울에도
별들이써려커숨박곡질하여라
千古의盛衰를말하는
永劫의興亡을속삭이는
聖靈의눈동자가티반작이는별만이

봄달(春月)

(賞二等) 南相本

(一九二四·一二·六·밤)

사람들은讚美하지오 가을달을
놉고맑은 가을달을
새파란칼날가튼 가을달을
ㅡ落葉과찬바람의交響樂
幾億萬昆蟲의애커로운伴奏ㅡ
그러나 나는봄달을 더사랑하여요
부연牛乳빗에잠자는 봄커녁하늘에
희미하게빗나는 봄달을
보드랍고따듯한 봄달을
당신의가슴속가튼 봄을달!



間島龍井村 朝鮮人民會長 姜權

間島龍井村 間島興業株式會社 (電話一三九番) 取締役社長 金一龍 專務取締役 姜載厚 取締役 李熙瀅 金京俊 金玄 金龍錫 吳明[illegible] 韓國彥 監查役 趙商九 金基弘 李容碩

間島 李容碩

間島龍井村 貿易 富春洋行支店 電話四一番 附設物產客主 鷄林旅館 電話四一番 主任 金河千 常務 李春彥

間島龍井村 光明會 職員一同 附屬學校職員一同

間島龍井村 中央旅館 主任 許潤

間島龍井村 乾材藥房 龍湖局 主任 朴榮厦

間島龍井村 隆東洋行 電話一六八番

間島龍井村 姜在德 電話九三番

間島龍井村 吉松商店 電話一五九番 金然晟

間島龍井村 德興泰 電話一〇六番

間島龍井村 金容福 電話二四番

間島 龍井金融部 電話一七八番

間島龍井村 青丘活版所 電話二一番

間島龍井村 綿絲布及穀物商 全昌根 電話一七二番

間島龍井村 代書業 李弼商

間島龍井村 衛生堂義齒專門 朱大敬

間島龍井村 帽子及ゴム靴專門 金水商店 電話一八九番

間島龍井村 黃淵琦

間島龍井村 海陸物產委託賣買旅人宿業 義成商會 電話一六三番 主任 張浩文 尹政熙

間島龍井村 尹政熙

間島龍井村 朴順元

間島龍井村 鐵工組合

間島龍井村 鄭道淳商店 電話二三番

間島龍井村後場里 家勝 裁縫機械會社分店 主任 金璣憲

間島龍井村 東亞煙公司 電話四七番

間島龍井村 泰成洋行出張所 電話一三三番

間島龍井村 綿布雜貨商 秦來源 電話一四八番

間島頭道溝 穀物布木 滿東商店 主任 [illegible] 電話二九番

間島局子街 食料雜貨卸小賣商 有隣洋行 電話三六番

間島局子街 東南商店 電話三四番

間島局子街 墾民教育研究會 會長 金永學 副會長 鄭在冕 總務 宋昌羲 編輯部長 金鉉闢 研究部長 尹和洙

間島局子街 朝鮮人民會長 崔允周 電話二二番

間島局子街 協信昌 電話八三番

間島局子街 和洋食料日用雜貨 山水商店 電話二〇番

間島局子街 永新泰 電話七二番

間島局子街 穀物貿易 山下商店 電話九四番

間島局子街 救世病院 朴瑞陽

間島局子街 朴寅鎬 電話九三番

間島 局子街金融部 韓源根

間島頭道溝 綢緞雜貨帽子製造 張昌注商店 米國싱가會社出張所

間島局子街 金慶華商店 電話九一番

間島局子街 秦中源 電話八八番

間島局子街 大同商店

間島頭道溝 朝鮮人民會

間島頭道溝 朝鮮人民會長 金鳴汝

間島頭道溝 米穀布木商 全應七

間島 頭道溝領事分館 毛利此吉

間島頭道溝 商務會

間島 頭道溝病院長 關重雄 電話一六番

間島頭道溝 蔘茸唐草乾材 濟昌局

間島頭道溝 崔成七商店

間島龍井村 朝鮮人民會 電話九九番

間島龍井村 松竹洋行 主任 李松朋 電話六六番

間島頭道溝市 東亞源釀酒所 電話二一番 金秉翼 吳明彥

間島頭道溝市 林學舜